



하늘이 높고 푸른 가을은 우리 인간의 모든 사고(思考)와 활동이 사색(思索)과 활기를 찾게 되는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52회 전국체육대회도 종료되었고 체전에 9번째 참가한 우리 태권도도 많은 수의 우수한 선수들을 배출함으로써 무사히 끝을 맺었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2,000여년 전 고구려 시대로부터 승계(承繼)되어 온 우리의 태권도는 이조 말엽의 혼란기와 일제 통치하의 침체 속에서 그 명맥(命脈)이 끊어 질 듯하다가, 해방 후 뜻을 같이 한 많은 인사들에 의해서 오늘 날 안으로는 국기(國技), 밖으로는 범 세계적인 「스포츠」로 각광을 받으며 발전 육성케 되었습니다.

연이나, 아직도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커다란 사명감을 우리에게 책임지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꿈은 태권도의 호신술(護身術)로서의 가치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태권도를 통한 인격도야(人格陶冶)가 온 나라 국민의 자신감(自信感)과 박력, 그리고 생활인으로서의 건전한 자세를 위해 기여 하는데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사고(思考)는 바로 건강한 육신(肉身)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당면한 사명중의 하나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기(國技)인 태권도가 세계 정상으로서의 자리를 명실상부(名實相符)하게 굳건히 지켜 나아가기까지의 우리가 치뤄야 할 노력과, 그 것을 이어갈 마음의 자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성과 자오와 행(行)함을 아는 인간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태권도가 스스로 체통을 지키지 못 하고 그 것을 배우려는 국내·외의 많은 태권도인들에게 혼란과 실망을 야기시켜 온 우리의 과(過)에 대하여 우리는 마땅히 담백(淡泊)한 마음으로 자책(自責)을 느껴야 합니다.

이 기회에 태권도를 지도 육성하는 일선의 관계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해(利害)나 또는 명분(名分)이 서지도 않는 권위(權威)의식에 사로 잡혀서 의식 또는 무의식적으로 태권도가 걸어 가야 할 단 하나의 길에 장애를 자초(自招)하는 장본인이 되는 우(愚)를 범(犯)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부(自負)와 긍지(矜持)를 가지고 참으로 태권도를 사랑하고 아끼는 길이 무엇인가는 구태여 여기 기술(記述)할 필요도 없이 자명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개척자적 정신을 발휘하자!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김 윤 용

《그 것이 내게 무엇을 해 주는가를 바라기 보다, 내가 그 것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태권도인들에게도 좋은 좌우명(左右銘)이 될 것입니다. 《태권도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하는 그 것을 생각하고 실천할 때 비로써 우리는 개척자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은 것입니다. 원래 개척자에게는 영광보다도 피눈물 나는 희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척자란 그 희생이 영광으로 승화(昇華)된다는 신념으로 확신을 느끼며, 바로 그 신념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감을 어깨에 짊어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본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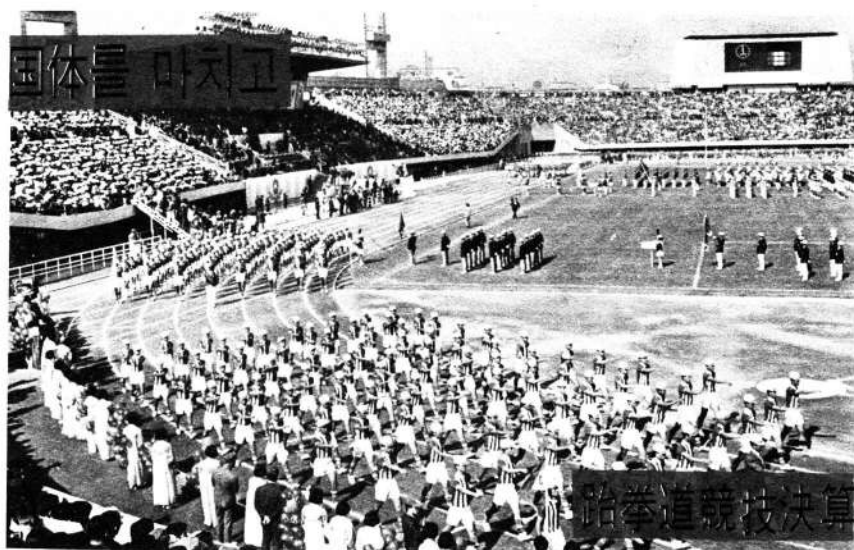
우리의 태권도를 진실로 세계적 「스포츠」로 육성하는 길, 그리고 나아가서 세계 「올림픽」대회의 한 종목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는 길, 이러한 우리의 꿈을 세우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 가를 명확하게 판식(判識)하고 동시에 그대로 행함을 늦추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본인은,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구미(口味)에 맞는 태권도를 잘마무리에 앞서 우리가 택한 태권도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상(理想)에 맞는 태권도가 될 수 있는 가를 부심(腐心)하며 모색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본연의 임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국가인 태권도는 민족의 오랜 숙원인 국토통일을 이룩하는데 있어서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온 국민에게, 특히 자라나는 젊은이들에게 널리 보급되어야 하겠습니다. 태권도는 강인한 정신력을 길러 주며 인격형성에 그 이치(理致)를 두고 있습니다. 태권도를 통한 인격도야는 사회모범의 기준이 되며 이는 바로 태권도가 가진 강점(強點)인 것입니다.

우리는 태권도를 통하여 민족중흥과 국토통일의 역군(役軍)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 개척자적 정신으로 사명감에 불타는 태권도인이 됩시다. 그리고 해외로 뻗어 나아 가는 우리 태권도를 자만(自慢)으로 방치해 두지 말고 다듬고, 더욱 개발하여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권위에 조금도 손색이 없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물려 줄 자랑스러운 유산을 우리의 손으로 이루었다는 자긍(自矜)을 갖도록 합시다.



태권도 경기대회가 여러 종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경쟁이 치열한 대회가 개인전으로는 전국체육대회이며 단체전으로서는 대통령기평택전일 것이다. 그러나 전국체육대회는 개인전으로 각 도의 명예를 걸고 나오느니 만큼 단체전 못지 않은 열띤 경기인 것이다.

태권도계에는 관(館)의식이 깊이 뿌리박고 있지만 전국체육대회 때 만은 이 관(館)의식이 완전 불식(抹拭)되어 도(道)의 명예만을 생각한다는 것은 진심으로 경하할 만한 일이다.

이번 제52회 전국체육전에서 각도 대표들의 늠름하고 자신에 넘쳐있는 모습은 태권도의 올바른 정신의 승화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겠다.

예년에 비해 선수와 감독 코치들의 태도 또한 아주 좋았고, 항의나 난동 또한 없었다는 것은 태권도계의 전일보한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대회가 진행되는 것만 각도 감독이나 코치들에게 대회에 참가한 소감과 아울러 전적의 전망을 들어 보았다.

충남은 작년도에 8위를 획득하였으나 금년에는 3위가 목표라고 했다.

그러나 선수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고 기백이 없는 것이 걱정되어 합숙 훈련 당시부터 이 점을 집중적으로 훈련하였다고 한다.

제주도의 경우 작년도 51회 때에는 경기 판정에

불만을 품고 경기를 보이코트한 적이 있는데, 자신들이 뇌우친 점이 있어 금년 대회에서는 작오도 새롭게 은메달 7개 동메달 4개를 목표로 삼았다고 했다.

그러나 이 목표는 검은손에서 나온 듯하다. 그러면 석도 KO승을 자신 할 수 있다는 선수가 2명 정도 있다고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강원도는 작년에 7위를 마크했으며, 금년의 목표는 6위를 목표로 삼고 있으나, 심판의 공정성만 기대 준다면 좀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선수 중에는 3위나 4위를 무난히 얻을 자신이 있는 선수도 있으나 예산 관계로 충분한 연습을 하지 못한 점을 몹시 아쉬워 하고 있었다.

경상남도의 경우는 작년도엔 4위를 획득했으나 금년에는 우수한 선수들을 해외로 많이 파견한 관계로 금년 목표는 5위나 6위 정도로 전망하고 있었다.

부산은 과거 우승한 실력을 가진 복병으로 각도 선수들의 강적의 대상으로 등장하였다. 더욱이 동아대학교 선수들이 많이 선발되었다는 것을 보아도 부산의 실력은 가히 짐작할 수 있게 됐다.

금년도의 메달 수를 11개로 목표하고 나온 것으로 보아 귀추가 주목되었다.

서울의 경우 태권도가 전국체전에 참가한 이래 단체전 경기인 경우 우승(1963년)한 사실이 한번 이었고, 개인전으로 바뀐 다음부터는 중간선에 머물

기만했다. 서울은 다른 도와는 달리 서울특별시 가 선수 훈련에 깊은 관심을 두지 않고 소홀히 한 점도 있지만, 그냥 내버려 두어도 서울은 우승할 수 있다는 자만 때문에 체전 총집에서 경상북도와 군소 한 점수로 51회 체전에서 2위의 고배를 마신 적이 있다. 금년에는 서울도 전 종목에 걸쳐서 합동훈련이다, 선수들의 대우를 개선한다 등등으로 부산을 떨더니, 과연 그 결과는 좋은 성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전라남도의 경우, 작년도에 5위를 얻었으나 금년도 목표는 1위 아니면 3위를 목표로 삼았으며 메달 14개를 자신하고 나왔다고 했다. 그도 그럴 법한 장담이었다. 1964년도 전국체전이 광주에서 열렸을 당시 우승을 했던 「팀」이었기 때문이다.

충청북도의 경우, 전국체전 때마다 소리없이 중위권을 달리고 있는 도가 바로 충북이다. 작년도에는 6위를 차지하였으나, 금년도의 목표는 작년도의 6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다. 원래 충청도 사람들의 기질이 온유한 탓인지 투지력의 부족을 아쉬워 하고 있었다.

전라북도 하면 태권도, 태권도하면 전라북도 할 정도로 많은 태권인구와 우수선수를 확보하고 있는 도다. 그러나 부산이나 경기도 팀에게 고배를 마신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그렇지만 52회 대회에는 과거의 고배를 설욕하고

자 안간힘을 다하고 나온 것 같았다. 서울에 와 있는 전복선수들을 총 소집하여 총 공세를 펼 결심인 것이 눈에 띄었다. 금년 목표는 1위가 아니면 죽음을 목표로 하고 나왔다는 비장한 결의로 필승을 거듭 다짐하고 있었다.

이번 전국체전에서 한가지 서운한 일은 제일교포팀이 불참했던 사실이었다.

제일교포 팀은 1964년부터 출국 체전에 참가하였으나 51회 작년부터 체전에 참가치 않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체전에 참가하여도 번번히 입상권내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선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라 한다. 그러나 본국에서 우수한 사범을 초청하여 선수

육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53회 대회 부터는 전국 체전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발휘하게 될 것이 기대되고 있다.

첫날 경기일인 9일부터 예선에 참전한 선수들이 352명으로 되어 있었으나 각도 체급별로 빠진 도(道)도 있기 때문에 340명이 된다.

340명 중에서 첫날 경기에 있어서 실제 싸워서 예선에 통과한 선수가 90명이고 추첨에서 부전승으로 예선을 통과한 선수가 무려 159명이나 된다.

2일째 경기에서는 100명이 준 결승에 올라 갔다. 첫날 경 1와는 달리 갑작스러운 추위 탓으로 선수들의 컨디션이 일기와 같이 얼어붙은 것 같았다. 그러나 이중에서도 도별로 승리한 자를 골라 보면 다음과





같다. 첫날인 9일에는 서울이 13명, 경기도 13명, 경북 12명, 전북 12명, 부산 9명, 제주 7명, 강원 6명, 전남 6명, 경남 4명, 충북 2명 등이다. 경기 이틀날인 10일은 서울 12명, 전북 16명, 경남 12명, 경북 11명, 강원·제주·경기가 7명씩, 충북 8명, 부산 6명, 충남 3명, 전남 11명, 합계 100명이 준결승에 올라갔다. 2일째 경기가 첫날인 9일 경기보다 오히려 10명이 더 많은 것은 먼저 밝힌 바와 같이 추첨으로 올라간 선수들이 끼여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 3일 째에 있어서는 전북이 14명, 부산과 전남이 각기 8명씩이고 충북이 7명, 경기 6명, 제주 4명, 강원 3명, 충남 3명, 경북과 경남이 각 2명이다, 합계 54명이다. 원칙적으로 인원수를 따지자면 64명이라야 하지만 계급별 볼참도에서 선수가 열 명이나 빠지게 했음을 기억하여 주기 바란다. 12일 결승에서 각 시·도별 우승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북이 9명으로 가장 많은 우승자를 내었으며, 다음이 부산 5명, 충북이 4명, 경기 4명, 서울 3명, 경북·강원이 각 2명씩, 제주·경남·전남이 각 1명씩, 충남만이 유감스럽게도 금메달권 우승자가 없었다. 금메달의 영광을 획득한 선수가 합계 32명으로 금년도 전국체육대회의 영광을 차지한 우승자들이다.

종합 순위에 있어서는 전라북도가 단연 1위를 차지하였고 2위에는 모처럼 상위권을 차지한 서울이다. 3위는 전라남도가 차지했고, 충청북도가 4위,

강원도가 작년도 7위에서 일약 5위로 뛰어 올랐다는 것은 하나의 기적처럼 여겨진다.

6위는 부산직할시, 7위는 경상북도, 8위는 경기도였다. 경기도는 51회 제전에서는 당당 1위였으나, 금년은 도 자체 예선에서 부러 발생을 일으켰고 예선을 마친 후 도 지부 임원들의 갈등이 중앙협회까지 파급되어 실지로 사고 단체로까지 규정되는 소동을 빚어 전력을 완벽하게 정비하지 못한 원인으로 있었을 것이다. 앞으로 경기도에 권토중래의 기회가 다시 있을 것을 기대하고 싶다.

다음 제주도가 9위를 차지했고, 10위에는 경상남도, 11위에는 충청남도도 최하위를 차지하였다. 충남에 바라고 싶은 것은 좀 더 기백있고 박력있는 기술의 개력을 단행하여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다음은 이번 대회를 통하여 참가한 선수들이 공격할 때의 주먹과 발차기의 종류를 분류해 보기로 하겠다.

이 통계는 행동추종 기록기(行動追從記錄器)를 놓고 양쪽 선수 중에서 한쪽 선수만을 대상으로 기록하여 보았다.

기록에 필요한 기술 부분은 앞차기, 옆차기, 주먹치르기, 몸돌려차기, 높이차기(안면차기) 등을 주로 기록하였다.

이 중 제일 많이 공격하는 부분은 앞차기가 단연 많고, 다음으로 옆차기, 주먹 등이다. 여기 13명을 대

상으로 기록한 결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알차기 총 131회, 그러니까 1분 30초를 13인으로 끝하면, 1170초에 (19분 30초) 131번, 알차기 뿐이라는 것은 1분 30초에 10번 정도의 알차기가 있었을 뿐이고 주먹치르기가 13명이었으니 합하여 54번 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열차기에 있어서는 40번, 몸 돌려차기가 17번, 안면 발차기(높이차기)가 통틀어 2번 밖에 없었는데 이는 태권도 기술면으로 보아 슬픈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기술의 향상이란 많이 쓰고 많이 연구하는 데서 비롯되고, 다양한 기술이 나온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각 도 임원이나 선수들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없는 기술을 가지고 마음만 앞세우지 말아야 하겠고, 또 덜어 놓고 이겼다고 메를 쓰는 감독이나 코치가 되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도 선수들이 쓰지 않는 새롭고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여 완전하고 완벽한 기술을 갖추어 모든 대회에 임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대회를 통하여 부상자와 경기도중 다운 당한 선수 가 있었다는 것은 매우 애석한 일이다.

감독 코치는 사전 선수들의 체력에 충분한 양식을 넣어 주어야 한다.

여기에 양식이라 하는 것은 사전 준비 운동으로 손이나 발이나 천신에 혈액순환을 시켜주어야 하고, 정

신적으로 경각심을 주어 단반의 준비를 완료함으로써 임전 태세를 갖추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수족이나 정신적으로나 몸을 움직이는데 유연하여 지는 것이지 우뚝하니 앉아 있다가 경기에 임한다는 것은 몹시 위태로운 일임을 일깨워 주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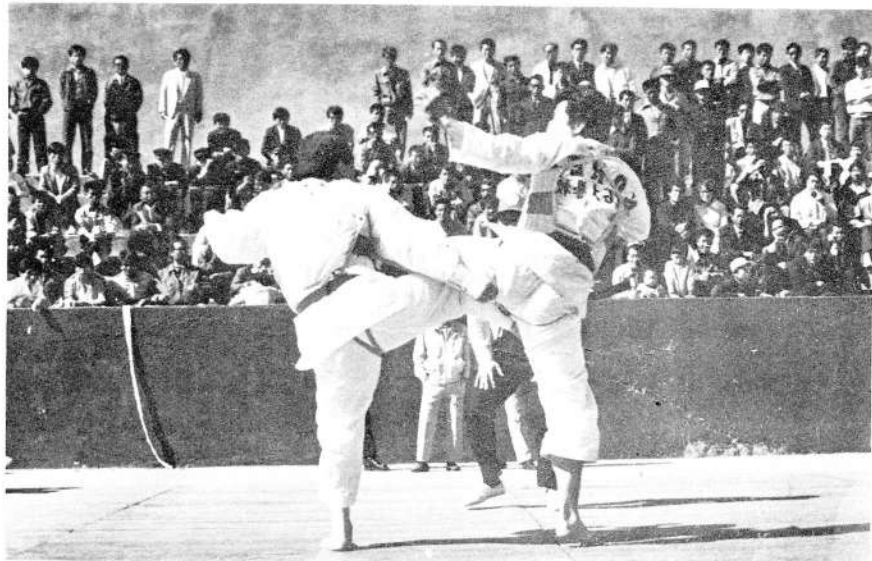
끝으로 금년 제52회 체전을 통하여 우리 태권도에 있어 예년과는 달리 경기장 질서가 좋았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정신 자세에 있어서 진일보된 것임을 태권도인 전부가 자랑할 만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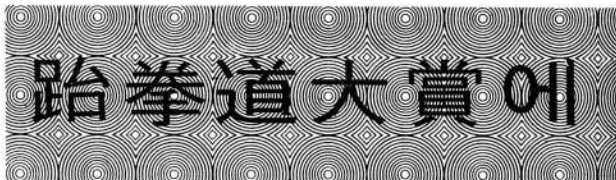
더욱 욕심을 부려본다면 응원에 있어 말보다 박수 갈채를 보내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그리고 본부석에 자리잡고 앉아 있는 임원들의 권위를 좀 더 높여 주었으면 한다. 본부와 관계없는 지방 임원 또는 태권도 계에 관계 하였던 인사들이 준비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막상 자리에 앉아 대회를 통한 지휘 할 사람들이 아래 경기장에서 서성대어야 했던 것은 어딘가 보기가 좋지 않았음을 느끼었다.

태권도는 국기(國技)다 라는 말은이젠 새로운 단어가 아니다. 우리는 다 함께 행동으로 태권도가 국기(國技)라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야 할 책임과 사명감에서 우리가 만든 예의 규범을 착실히 지켜 앞으로 계속 꺾어야 할 전국체전에 우리가 닦은 즐거움을 가지고 국민 앞에 자랑 합니다.

《끝》





—대상연혁—

태권도 협회가 창설된지도 올해로
서 어언 10년이 된다.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밖으로는 한
국의 얼을 크게 떨치었고, 안으로는
국민학교부터 중, 고, 대학교, 군경
일반에 이르기 까지 무려 130만명이
란 엄청난 인구를 확보하고 있는 태
권도는 명실 공히 국기(國技)이다.

이 거대한 조직은 국가 원동력의
주조적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태권도가 그 기틀을 마련하
기 까지에는 여러 사람들이 자기를
희생하고 주야로 오직 태권도를 위한
현신적인 노력의 결실이라 하겠다.

이런 뜻에서 대한태권도협회는 19
70년 태권도 사상 처음으로 태권도
대상제도를 제정했다.

시상에 있어서는 공로상, 지도상,
연구상 이렇게 3개 부문으로 했다.

1970년 제 1회 수상자로서는 엄운
규, 이종우 두 사람이 공로상을 수상
하였고, 지도상과 연구상에는 대상자
가 없었다.

1971년에 외서는 공로상 부문과 지
도상 부문에서 두 사람씩 선정되었
다. 그러나 연구상에 대상자가 없었
다는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그리고 지난 한해 태권도 발전을 위
해 그 공이 남달리 컸었던 분들에게는
감사패를 전달하기로 했음을 누
기해 둔다.

변진석(서울) 손석진(부산) 고경일
(제주) 김태운(경남) 최규열(경북)
김종득(전남) 고인환(충남) 정갑순
(충북) 권용수(전북) 조성일(강원)
황광천(경기) 이도재(경남)

공로상



이병로 (李炳路)

1928년 5월 6일생

서울 출신

중앙대학교 법정대학 정치학과

졸업

대한태권도협회 총무이사

한국체육관 태권도부 전임사범

1961년 9월 14일 본 태권도협
회가 창립되면서 오늘에 이르기
까지 10년간 협회 총무이사로 재
임, 사무적으로 많은 계보를 조중,
통활하여 무난히 이끌어 왔으며
사무적 기능과 체계를 세우는데
그 공로가 다대했다.



김순배 (金順培)

1931년 5월 7일생

경기도 출신

한양공대 기계공학과2년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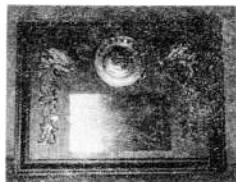
대한태권도협회 경기이사

태권도 창무관 중앙본관 부관장

1961년 9월 14일 본 태권도협

회가 창설 당시 평이사로 피선,
1962년 전무이사 피선, 타고난 원
만한 성격으로 많은 계보 속에서
도 무난히 임기를 마치었고 1964
년에서 오늘에 이르기 까지 경기
이사로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 태
권도 경기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그
공로가 다대했다.

빛나는 얼굴들



지도상



전일섭 (田逸浚)

1922년 12월 6일생

충청남도 출신

서울성동중학교 졸업

전북체육회 총무이사

지도관 전북본관장

1961년 본협회 창설 이래 오늘에 이르기 까지 전라북도 태권도 협회를 이끌어 왔으며, 태권도 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에 가장 많은 선수를 출전시켜 왔으며 500여명에 달하는 입상자를 배출, 지도공적이 크고 두드러 졌다.



권영문 (權永文)

1944년 7월 26일생

경상북도 출신

동아대학교 체육초급대학 졸업

남대문국민학교 태권도지도교사

남대문국민학교 태권도 지도사

범으로, 2000여명에 달하는 전교생에게 태권도를 지도하였고, 150명의 어린이 특별연무단을 조직, 지난 3년간 본협회 행사 때마다 어린이 연무단의 시범을 지휘해 왔었고, 국내외에 태권도의 참모습을 널리 알렸고, 특수부문 기술 지도에 그 공이 특히 컸었다.

—심사평—

수상대상자 후보 추천이 많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태권도의 눈부신 발전상을 뜻하는 것이라 하겠다.

심사대상후보자를 놓고 상전심의 위원들간에 진지한 논란도 있었으나 전국적 규모와 해외에 까지 범위를 확대 논의하는 데는 이의가 없었으므로 각 부문별로 2명씩 후보자를 내는데는 그리 어렵지는 않았다.

공로상과 지도상에 있어 대동한 표를 얻은 후보는 많았으나 태권도계에 종사중 중등에서 이탈 또는 사고를 결격사유로 참고하기로 했었다.

지도상부문에서 권영문씨가 다소 논의가 되었다. 태권도계에 투신한 연한과 연령문제였었으나, 뚜렷한 공적과 지도력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최종 합의에 도달하게 되었다.

연구상 수상 대상자로 한양대학교 원 우영교수(본협회이사)와 서울금양국민학교 박병주교사가 물망에 올랐으나 두분의 연구과제가 완성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 더욱 연구되어야 할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데서 이번 심의에서는 제외키로 했다.

두분의 연구로서는 원우영교수의 "태권도인의 체력에 관한 연구"와 박병주교사의 "국민학교에 있어 태권도 과외활동에 대한 연구"였다.

여기 태권도대상의 종류중 명칭의 차이는 있어도 상의 순위는 없다는 것을 아울러 알려 둔다.

상전심의위원회 위원장

엄윤규



살아 있는 태권인 송 덕 기 웅

THE OLD MR. SONG DUCK-KI, A TAEKWONDO MAN WHO IS IN EXISTENCE.

By Lee, Suk Huh

태권도는 한국의 것이다!

우리 태권도인은 물론 우리 국민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자랑하여 왔다.

그러나 태권도가 진정 우리의 것이라고 자랑할 수 있기에는 역사적 근거와 그를 뒷받침할 증거가 마땅히 있어야만 한다.

우리는 약 2천년전 고구려 환도성 무용총 천정 벽화를 내세울 수가 있겠다. (태권도지 창간호와 여류씨의 태권도사 참조)

그다음 신라시대나 고려시대를 거쳐 이조시대와 조선은 정조 임금님으로부터 무예 도보 통지를 편찬하게 까지 하였던 사실로 보아 우리의 국기로서 민족 속에 깊이 파고 들어 꾸준히 전파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역사적 사실 자체를 오늘날 어떠한 형태로 우리 앞에 내세울 수 있는가를 찾아야 한다는 의무감에 수 십년 동안을 몰두 해 왔던 것이다.

해방후 李承晚 전 대통령의 생일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경찰부도대회가 열렸었다. 그 당시 우리 고유의 태권을 시범하기 위해 그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었으니 그분은 다름 아닌, 우리가 찾고자 했던 송 덕기 웅 이시다. 송 덕기 웅에 대해 그 후 신문이나 잡지에 여러번 소개되었으나 그것은 단지 한국의 고유한 태권의 기술을 가졌다는 것 뿐이지 이것을 연구 검토하여 하나의 무형문화재로서 또는 살아있는 인간문화재로서의 국보적 가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 태권인의 산 증인, 우리 태권인의 자랑스러운 우리는 그동안이나마 있어 왔던 것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여기에 송 덕기 웅의 많은 파란과 역경을 역

Taekwondo belongs to Korea.

We, Korean people, have taken much pride in our Taekwondo as a Korean self-defense art. But, above all, we have to prove historically that Taekwondo is a peculiar Korean martial art.

The origin of Taekwondo in this country can be traced back to the Koguryo dynasty about 2,000 years ago. Muyong-chong, one of the royal tombs built in that dynasty, carried a painting illustrating Taekwondo practice on its ceiling. After the period of Silla and Koryo, King Chongjo of Yi dynasty published "Muye Dobo Tongji", an depicted textbook on martial arts, which included Taekwondo as one of the major contents.

These facts tell us Taekwondo has grown as a unique Korean self-defense art for 19 centuries.

After the liberation in 1945 from the Japanese rule, there was held a martial art contest among the nation's policemen on the occasion of the former President Syngman Rhee's birthday. During the contest, a demonstration of Taekyun (an old name of Taekwondo), our peculiar art of self-defense, was given by the old Mr. Song Duck-Ki, a man for whom we would have looked for a long time before.

Following the demonstrating, Taekyun has several times been introduced in the newspapers and the magazines, but only in terms of a simple theory of his Taekyun techniques, not of his value as a moral or human cultural asset.

세계 해쳐나온 인생역정(人生歷程)을 더듬어 보고 이조말(李朝末)을 거쳐 일제(日帝)의 억압시대 그리고 조국 광복과 더불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살아 있는 태권사를 들어 보기로 한다.

송 덕기翁을 찾아 뵈온 것은 지난 여름 찌는 듯한 어느 여름 한 나절이었다.

서울 서북쪽에 우뚝 솟아 있는 인왕산 중턱에 활쏘는 곳, 황학정(黃鶴亭)에서였다.

79세의 고령에 백발이 성성했지만 정정 하기는 50~60세 정도로 밖에 볼 수 없을 정도였다.

예기(銳氣)와 정열에 찬 눈빛은 마주 쳐다 볼 수 없을 만큼 빛났었고 신체적 조건은 40대 못지 않게 부드러워(柔軟性) 보였다.

송 덕기翁은 13살부터 태권을 배우기 시작하여 20살 미만에 일류 선수들과 같이 경기에 나가 싸우기도 하였다. 그 당시의 경기란 동리(洞里) 간에 십사오명의 선수를 선발하여 이기는 사람은 그대로 다음 사람과 계속 싸우는 승발전(勝拔戰)이었다.

이긴 동리에서는 승전의 영웅과 같은 환영과 웅충한 잔치를 며칠을 두고 계속 선수들에게 베풀었다.

송 덕기翁은 태권단의 선수가 아니다. 우리나라에 신문화가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온 여명기(黎明期), 그러니까 이조말과 한일 합병 직후가 된다.

신 체육 운동으로 철봉이나 축구에도 탁월한 재능을 지녔던 송翁을 일찍부터 조선 포병대(구한 말 한국군대)에서 철봉을 가르쳤고 또한 불교축구단이란 직업 팀에서 축구 선수로서도 용명을 떨친 시절도 있었다. 80고령에 이르러서는 아침 일찍 황학정에 올라가 활쏘기와 70년동안 몸에 익힌 태권으로 소일을 하고 계시다.

송 덕기翁의 어린 시절 태권을 처음 시작할 때 가르쳐준 분으로 임 호(林虎)라는 분이 있었다.



We should regret that we could not trace back earlier, which existed during the last years of Yi dynasty and under the Japanese 36 years ru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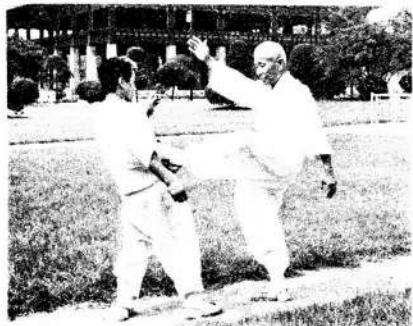
It was a broiling hot summer afternoon when we visited Mr. Song Duck-ki to Whanghak-chung, an old bowing place halfway up the In-wang Mountain in the northwestern part, Seoul, last summer. We were surprised to see him, a 79-year-old white haired old man with an appearance of a man in his fifties or sixties. His eyes were brilliant with vigour and enthusiasm and he seemed to have as soft a body as a you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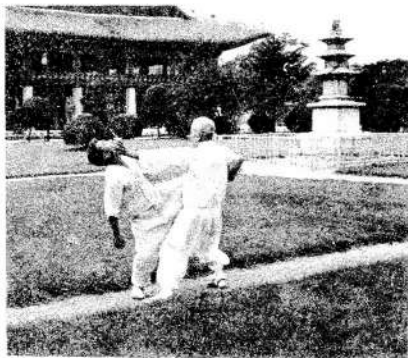
Song began to practice Taekyun when he was 13, and also he had matched with champions under twenty. It was a tournament match in which champions of several towns, about a dozen from each, contended. Any winner of the contest was treated like a war hero. The villagers, overwhelmed with a wild enthusiasm over the victory of their champion, held a banquet in honor of the heroes for a few consecutive days.

That old Mr. Song Duck-Ki was well-known not only as a Taekyun champion but as an expert in the fields of the exercise-bar and the football when Korea was at the dawning of a modern culture.

He has taught the techniques of the exercise-bar to the soldiers in the Chosun Artillery, a part of Korean military of the last years of Yi dynasty and also he used to play on a professional football team named the Buddhist football team.

In these days, he walks up to the Whanghak-chung early in the morning to enjoy bowing and practices Taekyun as often as he can find time for.





임 호 선생은 인격적으로도 훌륭하신 분이요 기술적으로도 표범과 같이 날쌔 분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한다.

임 호 선생은 짚단을 차고 담장을 뛰어넘고 소나무 사이를 제비처럼 빠져 나가는 것이 마치 날으는 법과 같았다 한다. 사방의 적을 양손으로 어르고 왼발 바른발로 차 넘기는 기술은 마치 번개치듯 했다고 자랑한다.

송 덕기 옹의 이와 같은 자랑섞인 말씀에 기자는 좀 의아한 듯 하여 이번엔 송덕기 옹의 기술을 보기로 하였다. 준비한 촬영기와 카메라를 꺼내 드니 송 덕기 옹은 우리를 보고 약 한시간 정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다.

그 이유는 우리 교유의 태권을 시범하려면 우선 복장을 한복으로 갈아 입고 또 신은 짚신을 신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시간 후 송 덕기 옹은 말씀대로 완전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나오셨다. 이윽고 태권 시범은 시작 되었다. 우리 일행은 모두 다 목뚫한 침묵만 지키며 우두커니 서서 송 옹의 시범만을 지켜 보았다.

이 시범을 보는 순간 우리 일행은 빙빙하니 났을 잃은 상태였다.

80 노인의 몸가짐이란 상상할 수도 없이 부드럽고 재치있는 속력 최한한 기술의 변화였다.

이것만을 보아도 우리의 선인(先人)들이 지닌 태권 기술을 능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겨루는 자세는 마치 오늘날 「고고」나 「싸이키」춤에 비할만큼 리듬이 있다. 기합 소리조차도 한국 교유의 것 그대로 「익크」 「익크」 하는 것이다. 「익크」란 상대의 기를 누르는 것이 아니고 상대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며 이는 우리 교유의 민족성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라 보겠다.

“When I was a little boy, I was first taught Taekyun by the late Mr. Lim Ho. Mr. Lim Ho was a man of character and he was nimble in his skills of Taekyun like a leopard and no one could ever be equal to him. With straw-baskets on his legs he was easily able to jump over fences and pass smartly through rifts of a number of pine-trees like a flying tiger. If he were surrounded on all sides by the enemies he coaxed them with two hands and beat them out as swiftly as lightning by kicking them with both feet,” said Mr. Song Duck-Ki very proudly.

Eager to watch the actual scene of his play, we asked him a favor of showing us his Taekyun and immediately got ready to take pictures.

We had to wait for him to attire himself in a traditional Korean uniform for Taekyun and to wear straw-sandals. It took him about an hour. At last, he began to show us his martial skills and we watched him in silence. His skills made all of us standing in a daze. It was an admirable performance and we were almost shocked. Although he was an old man who neared eighty, he was quite soft, smart and strong, and his motion showed real quickness and agility.

It was our firm belief that Taekyun is indeed an excellent and incomparable martial art.

His postures to compete were as rythmical as Soul dance or Psychedelic of these days, and besides, the voices of mesmerizing by his cry were Korean native sounds like “Ick-ku,” “Ick-ku”.

“Ick-ku” is not to dispirit but to ‘kindly’ call the opponent’s attention to him, a mark of our gentle national character. It well becomes gentleman-ship and the spirit of fair play on the part of a knight-errant to let the enemy fight as much as he can.

During the visit, we could get some old terms from him expressing the skills of Taekyun. Those words were as precious to us as a treasure. Unluckily, it is an undeniable fact that the Taekyun words we use now are mostly derived from the Japanese Karate terminology.

We are very pleased to have this opportunity to introduce our own expressions, for we are sure

상대의 의기를 죽이기 보다 상대에게 경각심을 주
어 상대로 하여금 정정 당당히 싸울 수 있게끔 하여
준다는 것이야말로 신사적이며, 무인으로서의 패어
플레이가 아니고 무었이겠는가.

송 덕기 용을 찾은 후, 우리에게 안겨진 보배적인
선물은 기술용어 인 것이다

현재 우리가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은 현대적
감각과 일본의 것을 우리화 한것임을 부인할 수 없
는 실정인 것이다. 이 귀중한 자료가 앞으로 우리
가 사용하고 있는 태권 용어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
을 믿고 고유 태권의 기술 용어를 소개하기로 한다.

첫째 서서로 맞서서 대련을 준비하는 자세는 『품』(品)
이라고 하며 품이 움직이면 『굴실』이라고 한다 계속
움직일 때는 『굴실 굴실』, 『안장다리』 상대의 발을
안으로 만지 거는것, 『박장다리』 밖으로 만지.
『낙시걸이』 내발목을 꼬부러서 상대 뒤발목을 걸어
넘기는 것, 『무릎걸이』 유도 술에 배대치기, 『발
등거리』 발등으로 차기, 『곧은 발질』 곧은 발차기,
『결치기』 안으로 열차기, 『두발 당상』 두발뻗어차기
『날 치기』 손잡고 몸돌려 땅재주 넘어가며 발로 상
대 얼굴 차기, 『칼 잡이』 아금손으로 상대 복 치기,
『이마 재기』 상대 이마를 장칼바닥으로 치기, 『낙함』
턱베기, 장칼 바닥으로 상대턱을 치는것, 『턱 걸이』
장칼 바닥으로 상대턱을 치며 미는것, 『작금 다리』
상대 정강이 후려끼기.

이상의 귀중한 용어는 어디엔가 서민적이고 우리
실생활에 토착화(土着化) 한 맛이 충분히 풍기고 있
다. 우리는 이것을 좀더 다듬어 시대적 감각에 마
추어 후세들에게 넘겨 주어야 하겠다.

살아 있는 태권인, 우리 태권도의 산 증인 송덕기
용의 만수무강을 손모아 빌면서 다시금 우리 태권도
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송용의 산 증인은 다시 없이
귀중한 것임을 거듭 강조해 두고자 한다.

(註-송덕기용이 보여준 태권의 자세 그리고 경
기 장면을 본협회에서는 필립에 담아 소중한 보관하
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가능하면 송덕기용을 살아 있는 태
권인으로 구체적인 자료정리를 서둘러서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을 준비도 아울러 협회에서는 구상중에 있다.

태권도인은 누구나 송 덕기용에 대해서 깊은 관심
을 갖는 동시에 항상 주의깊게 우리 태권도 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한 우리 태권도의 역사적 정리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애써 찾는 자세와 이와 같
은 인물이나 자료를 발견했을 경우 지체없이 본 협회
에 연락해 줄 것을 바란다.

that they will prove very useful to the study of
Taekyun.

Poom...a pose ready to face each other

Kum-sil...Movement of Poom

Kum-sil, Kum-sil... Continuous movement of Poom

An-jang-da-ri...Inside leg-bracket (Foot-fricks)

Pack-jang-da-ri...Outside leg-bracket

Nac-si-gul-yi... Tackling the opponent, ankle by
ankle

Mu-reup-gul-yi...Flinging the opponent by the
knee

Bal-deung-gul-yi...Kicking with one's instep

Go-deun-bal-jit...Kicking straightly

Kyut-chi-ki ...Kicking inside under one's arm

Du-bal-dang-sang...Kicking with two feet jumping

Nal-chi-ki ...Kicking the opponent's face, standing
on one's hands

Kal-jae-bi...Beating the opponent's neck with the
part of hand between the thumb and
the forefinger

Yi-ma-jae-Ki...Beating the opponent's forehead with
the outside of one's palm

Nak-ham...Beating the opponent's jaw with the
outside of one's palm

Tuck-gul-yi... Beating and pushing the opponent's
jaw with the outside of one's pal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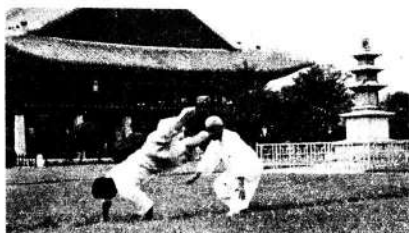
Cac-kum-gul-yi...Kicking the opponent's shin

These old words smell of a common and native
characteristic of the general public. These words
must be rephrased to suit the sense of the present
day so that the secret of Taekwondo may be hand-
ed down to our coming generations.

The old Mr. Song Duck-Ki!

What a living history of Taekwondo!

It's incalculable contribution to our Taekwondo
will long live in the memory of our people.





살아 있는 태권인 송 덕 기 웅

THE OLD MR. SONG DUCK-KI, A TAEKWONDO MAN WHO IS IN EXISTENCE.

By Lee, Suk Huh

태권도는 한국의 것이다!

우리 태권도인은 물론 우리 국민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자랑하여 왔다.

그러나 태권도가 진정 우리의 것이라고 자랑할 수 있기에는 역사적 근거와 그를 뒷받침할 증거가 마땅히 있어야만 한다.

우리는 약 2천년전 고구려 환도성 무용총 천정 벽화를 내세울 수가 있겠다. (태권도지 창간호와 여류씨의 태권도사 참조)

그다음 신라시대나 고려시대를 거쳐 이조시대와 조선은 정조 임금님으로부터 무예 도보 통지를 편찬하게 까지 하였던 사실로 보아 우리의 국기로서 민족 속에 깊이 파고 들어 꾸준히 전파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역사적 사실 자체를 오늘날 어떠한 형태로 우리 앞에 내세울 수 있는가를 찾아야 한다는 의무감에 수 십년 동안을 몰두 해 왔던 것이다.

해방후 李承晚 전 대통령의 생일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경찰부도대회가 열렸었다. 그 당시 우리 고유의 태권을 시범하기 위해 그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었으니 그분은 다름 아닌, 우리가 찾고자 했던 송 덕기 웅 이시다. 송 덕기 웅에 대해 그 후 신문이나 잡지에 여러번 소개되었으나 그것은 단지 한국의 고유한 태권의 기술을 가졌다는 것 뿐이지 이것을 연구 검토하여 하나의 무형문화재로서 또는 살아있는 인간문화재로서의 국보적 가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 태권인의 산 증인, 우리 태권인의 자랑스러운 우리는 그동안이나마 있어 왔던 것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여기에 송 덕기 웅의 많은 파란과 역경을 역

Taekwondo belongs to Korea.

We, Korean people, have taken much pride in our Taekwondo as a Korean self-defense art. But, above all, we have to prove historically that Taekwondo is a peculiar Korean martial art.

The origin of Taekwondo in this country can be traced back to the Koguryo dynasty about 2,000 years ago. Muyong-chong, one of the royal tombs built in that dynasty, carried a painting illustrating Taekwondo practice on its ceiling. After the period of Silla and Koryo, King Chongjo of Yi dynasty published "Muye Dobo Tongji", an depicted textbook on martial arts, which included Taekwondo as one of the major contents.

These facts tell us Taekwondo has grown as a unique Korean self-defense art for 19 centuries.

After the liberation in 1945 from the Japanese rule, there was held a martial art contest among the nation's policemen on the occasion of the former President Syngman Rhee's birthday. During the contest, a demonstration of Taekyun (an old name of Taekwondo), our peculiar art of self-defense, was given by the old Mr. Song Duck-Ki, a man for whom we would have looked for a long time before.

Following the demonstrating, Taekyun has several times been introduced in the newspapers and the magazines, but only in terms of a simple theory of his Taekyun techniques, not of his value as a moral or human cultural asset.

세계 해쳐나온 인생역정(人生歷程)을 더듬어 보고 이조말(李朝末)을 거쳐 일제(日帝)의 억압시대 그리고 조국 광복과 더불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살아 있는 태권사를 들어 보기로 한다.

송 덕기翁을 찾아 뵈온 것은 지난 여름 찌는 듯한 어느 여름 한 나절이었다.

서울 서북쪽에 우뚝 솟아 있는 인왕산 중턱에 활쏘는 곳, 황학정(黃鶴亭)에서였다.

79세의 고령에 백발이 성성했지만 정정 하기는 50~60세 정도로 밖에 볼 수 없을 정도였다.

예기(銳氣)와 정열에 찬 눈빛은 마주 쳐다 볼 수 없을 만큼 빛났었고 신체적 조건은 40대 못지 않게 부드러워(柔軟性) 보였다.

송 덕기翁은 13살부터 태권을 배우기 시작하여 20살 미만에 일류 선수들과 같이 경기에 나가 싸우기도 하였다. 그 당시의 경기란 동리(洞里) 간에 십사오명의 선수를 선발하여 이기는 사람은 그대로 다음 사람과 계속 싸우는 승발전(勝拔戰)이었다.

이긴 동리에서는 승전의 영웅과 같은 환영과 웅충한 잔치를 며칠을 두고 계속 선수들에게 베풀었다.

송 덕기翁은 태권단의 선수가 아니다. 우리나라에 신문화가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온 여명기(黎明期), 그러니까 이조말과 한일 합병 직후가 된다.

신 체육 운동으로 철봉이나 축구에도 탁월한 재능을 지녔던 송翁을 일찍부터 조선 포병대(구한 말 한국군대)에서 철봉을 가르쳤고 또한 불교축구단이란 직업 팀에서 축구 선수로서도 용명을 떨친 시절도 있었다. 80고령에 이르러서는 아침 일찍 황학정에 올라가 활쏘기와 70년동안 몸에 익힌 태권으로 소일을 하고 계시다.

송 덕기翁의 어린 시절 태권을 처음 시작할 때 가르쳐준 분으로 임 호(林虎)라는 분이 있었다.



We should regret that we could not trace back earlier, which existed during the last years of Yi dynasty and under the Japanese 36 years ru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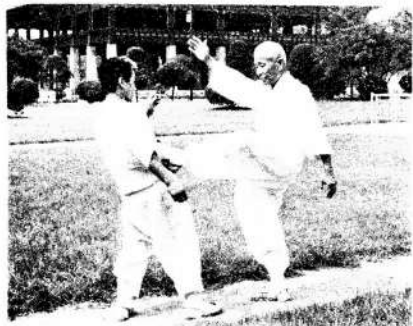
It was a broiling hot summer afternoon when we visited Mr. Song Duck-ki to Whanghak-chung, an old bowing place halfway up the In-wang Mountain in the northwestern part, Seoul, last summer. We were surprised to see him, a 79-year-old white haired old man with an appearance of a man in his fifties or sixties. His eyes were brilliant with vigour and enthusiasm and he seemed to have as soft a body as a you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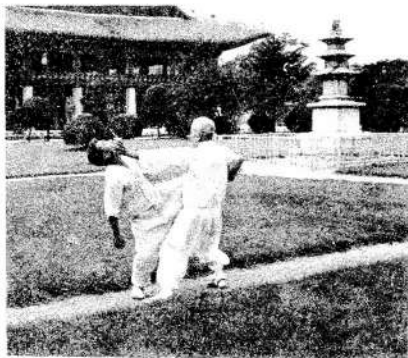
Song began to practice Taekyun when he was 13, and also he had matched with champions under twenty. It was a tournament match in which champions of several towns, about a dozen from each, contended. Any winner of the contest was treated like a war hero. The villagers, overwhelmed with a wild enthusiasm over the victory of their champion, held a banquet in honor of the heroes for a few consecutive days.

That old Mr. Song Duck-Ki was well-known not only as a Taekyun champion but as an expert in the fields of the exercise-bar and the football when Korea was at the dawning of a modern culture.

He has taught the techniques of the exercise-bar to the soldiers in the Chosun Artillery, a part of Korean military of the last years of Yi dynasty and also he used to play on a professional football team named the Buddhist football team.

In these days, he walks up to the Whanghak-chung early in the morning to enjoy bowing and practices Taekyun as often as he can find time for.





임 호 선생은 인격적으로도 훌륭하신 분이요 기술적으로도 표범과 같이 날쌔 분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한다.

임 호 선생은 짚단을 차고 담장을 뛰어넘고 소나무 사이를 제비처럼 빠져 나가는 것이 마치 날으는 법과 같았다 한다. 사방의 적을 양손으로 어르고 왼발 바른발로 차 넘기는 기술은 마치 번개치듯 했다고 자랑한다.

송 덕기 옹의 이와 같은 자랑섞인 말씀에 기자는 좀 의아한 듯 하여 이번엔 송덕기 옹의 기술을 보기로 하였다. 준비한 촬영기와 카메라를 꺼내 드니 송 덕기 옹은 우리를 보고 약 한시간 정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다.

그 이유는 우리 교유의 태권을 시범하려면 우선 복장을 한복으로 갈아 입고 또 신은 짚신을 신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시간 후 송 덕기 옹은 말씀대로 완전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나오셨다. 이윽고 태권 시범은 시작 되었다. 우리 일행은 모두 다 목뚫한 침묵만 지키며 우두커니 서서 송 옹의 시범만을 지켜 보았다.

이 시범을 보는 순간 우리 일행은 빙빙하니 뒀을 잃은 상태였다.

80 노인의 몸가짐이란 상상할 수도 없이 부드럽고 재치있는 속력 최한한 기술의 변화였다.

이것만을 보아도 우리의 선인(先人)들이 지닌 태권 기술을 능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겨루는 자세는 마치 오늘날 「고고」나 「싸이키」춤에 비할만큼 리듬이 있다. 기합 소리조차도 한국 교유의 것 그대로 「익크」 「익크」 하는 것이다. 「익크」란 상대의 기를 누르는 것이 아니고 상대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며 이는 우리 교유의 민족성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라 보겠다.

"When I was a little boy, I was first taught Taekyun by the late Mr. Lim Ho. Mr. Lim Ho was a man of character and he was nimble in his skills of Taekyun like a leopard and no one could ever be equal to him. With straw-baskets on his legs he was easily able to jump over fences and pass smartly through rifts of a number of pine-trees like a flying tiger. If he were surrounded on all sides by the enemies he coaxed them with two hands and beat them out as swiftly as lightning by kicking them with both feet," said Mr. Song Duck-Ki very proudly.

Eager to watch the actual scene of his play, we asked him a favor of showing us his Taekyun and immediately got ready to take pictures.

We had to wait for him to attire himself in a traditional Korean uniform for Taekyun and to wear straw-sandals. It took him about an hour. At last, he began to show us his martial skills and we watched him in silence. His skills made all of us standing in a daze. It was an admirable performance and we were almost shocked. Although he was an old man who neared eighty, he was quite soft, smart and strong, and his motion showed real quickness and agility.

It was our firm belief that Taekyun is indeed an excellent and incomparable martial art.

His postures to compete were as rythmical as Soul dance or Psychedelic of these days, and besides, the voices of mesmerizing by his cry were Korean native sounds like "Ick-ku," "Ick-ku".

"Ick-ku" is not to dispirit but to 'kindly' call the opponent's attention to him, a mark of our gentle national character. It well becomes gentleman-ship and the spirit of fair play on the part of a knight-errant to let the enemy fight as much as he can.

During the visit, we could get some old terms from him expressing the skills of Taekyun. Those words were as precious to us as a treasure. Unluckily, it is an undeniable fact that the Taekyun words we use now are mostly derived from the Japanese Karate terminology.

We are very pleased to have this opportunity to introduce our own expressions, for we are sure

상대의 의기를 죽이기 보다 상대에게 경각심을 주
어 상대로 하여금 정정 당당히 싸울 수 있게끔 하여
준다는 것이야말로 신사적이며, 무인으로서의 패어
플레이가 아니고 무었이겠는가.

송 덕기 용을 찾은 후, 우리에게 안겨진 보배적인
선물은 기술용어 인 것이다

현재 우리가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은 현대적
감각과 일본의 것을 우리화 한것임을 부인할 수 없
는 실정인 것이다. 이 귀중한 자료가 앞으로 우리
가 사용하고 있는 태권 용어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
을 믿고 고유 태권의 기술 용어를 소개하기로 한다.

첫째 서서로 맞서서 대련을 준비하는 자세는 『품』(品)
이라고 하며 품이 움직이면 『굴실』이라고 한다 계속
움직일 때는 『굴실 굴실』, 『안장다리』 상대의 발을
안으로 만지 거는것, 『박장다리』 밖으로 만지.
『낙시걸이』 내발목을 꼬부러서 상대 뒤발목을 걸어
넘기는 것, 『무릎걸이』 유도 술에 배대치기, 『발
등거리』 발등으로 차기, 『곧은 발질』 곧은 발차기,
『결치기』 안으로 열차기, 『두발 당상』 두발뻗어차기
『날 치기』 손잡고 몸돌려 땅재주 넘어가며 발로 상
대 얼굴 차기, 『칼 잡이』 아금손으로 상대 복 치기,
『이마 재기』 상대 이마를 장칼바닥으로 치기, 『낙함』
턱베기, 장칼 바닥으로 상대턱을 치는것, 『턱 걸이』
장칼 바닥으로 상대턱을 치며 미는것, 『깍금 다리』
상대 정강이 후려끼기.

이상의 귀중한 용어는 어디엔가 서민적이고 우리
실생활에 토착화(土着化) 한 맛이 충분히 풍기고 있
다. 우리는 이것을 좀더 다듬어 시대적 감각에 마
추어 후세들에게 넘겨 주어야 하겠다.

살아 있는 태권인, 우리 태권도의 산 증인 송덕기
용의 만수무강을 손모아 빌면서 다시금 우리 태권도
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송용의 산 증인은 다시 없이
귀중한 것임을 거듭 강조해 두고자 한다.

〈註〉송덕기용이 보여준 태권의 자세 그리고 경
기 장면을 본협회에서는 필립에 담아 소중한 보관하
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가능하면 송덕기용을 살아 있는 태
권인으로 구체적인 자료정리를 서둘러서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을 준비도 아울러 협회에서는 구상중에 있다.

태권도인은 누구나 송 덕기용에 대해서 깊은 관심
을 갖는 동시에 항상 주의깊게 우리 태권도 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한 우리 태권도의 역사적 정리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애써 찾는 자세와 이와 같
은 인물이나 자료를 발견했을 경우 지체없이 본 협회
에 연락해 줄 것을 바란다.

that they will prove very useful to the study of
Taekyun.

Poom...a pose ready to face each other

Kum-sil...Movement of Poom

Kum-sil, Kum-sil... Continuous movement of Poom

An-jang-da-ri...Inside leg-bracket (Foot-fricks)

Pack-jang-da-ri...Outside leg-bracket

Nac-si-gul-yi... Tackling the opponent, ankle by
ankle

Mu-reup-gul-yi...Flinging the opponent by the
knee

Bal-deung-gul-yi...Kicking with one's instep

Go-deun-bal-jit...Kicking straightly

Kyut-chi-ki ...Kicking inside under one's arm

Du-bal-dang-sang...Kicking with two feet jumping

Nal-chi-ki ...Kicking the opponent's face, standing
on one's hands

Kal-jae-bi...Beating the opponent's neck with the
part of hand between the thumb and
the forefinger

Yi-ma-jae-Ki...Beating the opponent's forehead with
the outside of one's palm

Nak-ham...Beating the opponent's jaw with the
outside of one's palm

Tuck-gul-yi... Beating and pushing the opponent's
jaw with the outside of one's pal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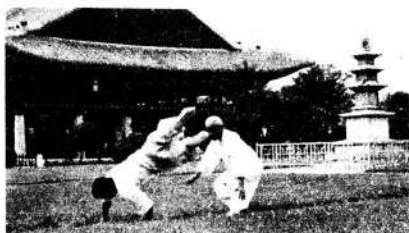
Cac-kum-gul-yi...Kicking the opponent's shin

These old words smell of a common and native
characteristic of the general public. These words
must be rephrased to suit the sense of the present
day so that the secret of Taekwondo may be hand-
ed down to our coming generations.

The old Mr. Song Duck-Ki!

What a living history of Taekwondo!

It's incalculable contribution to our Taekwondo
will long live in the memory of our people.



태권도의 내일을 펼쳐다

— 장 재식부회장께 현황과 전망을 듣는다 —

우리 태권도는 다른 운동에 비해서 국위 선양과 인간의교의 일익을 크게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우리 태권도는 더욱 국제무대로 진출해 나가야 하겠고, 또한 우리 태권도를 통해서 경제적으로나 인간의교 내지는 국력파시에 효과적인 일을 해야 될 것으로 믿는다.

지금 외국에 나가보면 국력에 따라서 국가민족에 대한 인식이 평가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사람들이 세계 각국에 관광을 다닌다고 뽐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관광에 소모하는 외화는 약 1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를 우리 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4000억원이나 된다. 엄청난 돈이다.

그러나 우리는 큰 자본을 들이지 않는 태권도를 세계 도처에 뿌리 박게 함으로서 앞으로 우리 인간의교의 중요한 일익을 맡아야만 하겠다.

특히 월남의 예로 봐서도 한국이 월남에 알려진 반 이상이, 태권도를 통해서 이루어 졌다고 하겠다.

이렇게 국제무대를 염두에 두고 우리 태권도를 다 시 살펴 볼 때, 일사불란한 대열의 정비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본인의 경험으로 봐서 어느 운동보다도 정신면이 앞서는 것이 바로 태권도이다.

이와 같은 태권도가 이유야 어떻던간에 그간 다 소의 분류가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일치단결해서 태권도의 발전을 기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다음으로 태권도가 좀 더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는 무엇 보다도 국민들의 깊은 인식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상당수의 도장이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기는 하나 좀더 건전한 스포츠로서 차원을 높여 나가려면 비태권도인으로부터 좋은 인식을 먼저 얻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태권도인들은 국가와 민족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관념을 더욱 투철히 가져야만 할 것이다.

국제적으로 한국태권도의 열을 심는 것도 그 하나요, 국내적으로는 태권도인이 중심이 되어 국민들로 부터 환심을 살만한 좋은 일을 해야만 하겠다.

이것이 바로 태권도 발전의 바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부락에서 불량배가 선량한 마을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했을 때 태권도인이 희생적으로 이를 해결한다든지, 또 국제는 국가적으로 좋지 못한 풍조나 사회사건이 야기했을 때, 태권도인들이 앞장 서서 희생적으로 이를 정화하고 막아 나가는 등등이라 하겠다.

또 태권도인을 위해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 사람들은 운동하는 사람들을 일러 두뇌보다는 육체적으로 앞선다고들 한다.

그러나 나는 이런 사고방식은 잘못된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어떤 운동이던 두뇌가 없고서는 일정한 한계 이상 못 올라 간다.

그러므로 태권도인은 인식을 새롭게 가져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태권도는 정신 도야와 도의를 앞세우는 운동인 고로 두뇌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전 국민과 전 세계 앞에 과시할 수가 있어야만 하겠다.

본인은 공무원 생활 약 15년을 통해서 중국 적으



로는 역시 체력사업임을 절실히 깨달았다.

어떤 사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큰 일을 해내야 할 때 체력이 약하면 불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머리가 아니라 그 보다 더한 것이 있어도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 태권도인은 먼저 사회적으로도 기여해야 되겠고, 단련한 체력을 토대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정력과 박력을 양성해야 되겠다. 즉 사회적 원동력을 양성한다는 생각 밑에 태권도의 수련을 쌓아야만 하겠다.

다음으로 기술 자체의 체계와 태권도인의 사회적으로 무언가 일할 수 있는 체계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어떤 것이 되었던 태권도가 정신수양을 위한 수련이라고 전제할 때 이에 대한 해답은 너무나도 자명해 질 것이다.

이렇게 될 때 태권도계의 내분이나 형이나 기술의 통일등도 자연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게 된다고 본다.

그리고 시험시에 느낄 수 있는 것으로는 기술적인 통일과 개발이 미흡함을 우리 태권도인은 물론이요, 일반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공격이 너무나 단조롭다는 평이다. 일단계에서 이단계 삼단계로 연결되는 기술의 개발이 꼭 있어야 하겠다.

또 시험시에 선수들이 승부에만 너무 집착하는 경

향도 깊이 반성할 점이다.

태권도는 정신이 앞서는 스포츠다.

새삼 태권도인의 자세에 자타를 막론하고 새로운 기풍진작이 필요할 시기라고 본인은 거듭 강조하고 싶다.

어떤 경기나 다 마찬가지로 시험에 임하는 선수 는 이겨야 한다는 신념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태권도라고 해서 승부를 소홀히 할수는 없다.

그러나, 그 태도만은 달라야 하겠다는 것이다. 그때야 어느 운동 경기와도 다르게 정신을 알세운 태권도의 참뜻이 있다고 나는 믿는다.

시험에 임하는 태도는 정정당당하되 일단 승부가 판가름 나면 다소 불복스러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심판이 내린 판정에 순종하는 태권도인다운 의연함이 있어야 하겠다.

순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은 소인이다. 태권도는 결코 소인의 것이 아닌 역사와 전통이 있는 운동이다.

시야를 넓게 갖는 태권도인, 그리고 원대한 포부의 운상이 될 수 있는 태권도의 참뜻을 좀더 생리화하고 체질화해야 할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우리 태권도인들이 할 일은 날이 갈수록 더욱 많아 질 것이다. 국가민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태권도인의 긍지와 자부심이 절실히 요망된다.



체육은 왜 필요한가

柳 根 碩

사람 처놓고 遊藝나 運動을 즐기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 중에는 健康을 위한 意圖의인 것도 있고, 自己防禦를 目的으로 하는 것과, 自己表現의 方法으로 이것에 골몰한다. 그러나 그것은 이와 같은 意圖의인 것이기 前에 사람인 까닭이라는 切實함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사람은 生命을 基盤으로 하여 그 生命을 保存할 目的으로, 外的 的 環境에 適應하는 反應으로 運力을 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運動은 物理學에서 다루는 運動量으로 解決 못 짓는다. 質을 달리하는 그 무엇이 있다. 即 外的 環境은 〈살아가는 場〉으로 삶과 不可分의 關係를 가지고 있으며, 內的 環境은 生物體의 內界를 뜻하는 機能으로서의 統一된 秩序와 均衡을 保存하는 不可逆性의 反應을 보이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은 사람이라는 生物體가 〈산다〉는 生命目的에 合理的으로 反應하는 現象으로서 合目的의 關連性의 統一된 秩序過程을 우리는 運動 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뜻으로 생각할 때 人間의 生命現象은 곧 運動이며, 運動은 곧 生命現象의 反應임을 否認할 수는 없는 것이다.

例를 들면, 食欲은 內的欲求이며, 이 欲求 充足을 위해 飲食을 찾는 것이 이미 運動으로 表示되며, 飲食은 外的環境으로서 삶과 뗄 수 없는 關係에 있고, 이것을 먹는다는 自体가 또한 運動으로 表現된다. 이렇게 하여 成長이니, 発達이니 하는 것이 運動의 結果로서 이루어져, 人間의 形態나 機能을 未分化에서 分化로 分化에서 中心化로 次元을 달리하여, 삶의 目的을 達成하게 하는 合目的의 秩序를 가지면서 生命 全體로서의 順次的 要求를 充足시키게 되는 것이라 하겠다.

그 좋은 例가 嬰兒의 運動이다. 어머니 젖속에서

나오자마자 어린애는 몸과 팔 다리를 움직이며 부산하게 運動을 繼續한다. 젖을 빨고, 울고 끊임없는 움직임 속에 날을 보낸다. 이러한 現象은 누구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先天的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곧 〈살아 있다〉는 表現이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無意味한 것이 아니라, 生物이라는 立場에서 큰 뜻을 지니고 있다. 즉 젖을 빨고 넘길 때, 젖꼭지에 매달려 있을 때 乳兒는 自然히 목 뒤의 筋肉을 不知中 作用하게 되어 그 筋肉을 発達시키게 되는 것이다. 운다는 것도 體育運動으로는 肺臟運動이 되는 것이고 보면 何等 異常할 것도 없다. 팔다리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그 部分에 筋肉強化를 위한 生物學의 要求에 따른 〈살려는〉 努力이며, 〈成長〉하려는 過程으로서 恰似 呼吸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이라 하겠다. 이래서 乳兒들은 歲月의 흐름에 따라 열드러 기게 되고, 기는 동안에 등배의 筋肉이 強化되어 그 機能을 發揮하게 되고, 따라서 앉거나 서서 걷는 能力이 생기게 된다. 이것이 곧 삶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合目的의 秩序요 生命 全體로서의 順次的 統一된 秩序過程이 아니겠는가?

이와 같이 사람이 운동을 한다는 것은 낯과 直結된 絶對的 要求로서 그 누구도 이 權利를 奪取할 수는 없는 것이다. 萬一 乳兒나 兒童들의 살기 위한 이러한 過程에 障害을 주거나, 방해물 준다면 生命을 奪取하려는 強盜나 殺人者와 다를 것이 없다.

이와 같은 內外的 身體技能 發達は 筋肉運動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으로서 이외의 다른 方法은 없는 것이다. W. Roux의 法則에도 말한 것 같이 運動으로서 健康도 発達도 있게 되는 重要な 要素이다. 그러나, 卷問에는 素質을 가지면서도, 그것을 開發

하지 못하여 때를 잃은 곡식 같이 자라다 말고, 그
模樣으로 一生을 살다 가는 사람들이 許多하다. 人
體란 다른 機械와 같아서, 各 部分品이 完全하고 各
己의 機能이 卓越한 때, 綜合統一된 人間으로서 그
作業에 能率을 좋게 할 것이라는 것은 確한 理致라
하였다. 이러한 理由로 우리는 成長期에 있는 兒
童들에게 充分한 運動이 주어야 한다고 主張하는
바이다.

그뿐만 아니라, 人格이나 人間으로서 教育하는 데
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또한 體育教育이라 하겠다.

이제 여기 머리가 좋은 學生이 있다고 하자. 腦
란 것은 生理的으로 따지고 보면, 하나의 器官에 不
過하고, 그 內容은 단백질질을 주로한 物質이다. 그
러므로 이들의 成長 發達 現象도 다른 器官과 마
찬가지로 刺激에 依해 適應하는 過程을 거쳐 形成
되게 마련이다. 그야 適의 訓練이 大腦皮質의 質
을 啓發하나, 이것도 身體活動의 助力없이는 不可能
한 것이다.

이제 身體의 部位와 機能을 自動車에 比한다면,
大腦皮質은 運転士가 될 것이고, 情動腦는 엔진이
되며 其外 部分은 車체가 되는 것이다. 사람 몸에
는 神經系(電氣配線), 內分泌(기름들), 四肢(車
바퀴) 等等車체와 비슷한 것이 있어, 그 配置와 짜
임새가 바르고 튼튼하지 않으면 運転士(大腦皮質)
의 知略과 技術이 能擧하다 하더라도 일에 能率이
줄을 理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 教育은 主知教育을 하여 大腦皮
質의 發達에 힘쓰고 있다. 다시 말하면 運転士 教
育에 熱中하고 車체나 엔진은 돌보지 않는 形便이
니 그 教育된 사람들이 得次 무엇을 어떻게 하겠는
나 하는 것이 문제다.

情動腦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其他科目에서 啓發
되는 것으로 그중에도 體育은 曠 수 없는 役割을 한
다. 腦幹과 척수는 그 機能을 發揮하여 各 器官을 조
정 관리하며, 음식물을 消化, 吸取하고 이것을 다시
分配하여 生活 에너지를 供給하니 自動車에 揮發油
를 供給하는 것과 같은 役割을 한다. 이와 같은 器
官의 成長과 發達도 體育이 担当하니 <삶>에 있어
重要的 與件을 強化補充하는 일을 도맡은 셈이다.

위에서 말한 것 같이 大腦皮質·情動腦·腦幹脊
등을 고루 啓發하는 教育이 이루어 진다면 先哲들
이 말한 知·德·體의 三育이 곧 이루어지게 되고

비로소 圓滿한 人格을 形成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教育이 大腦皮質의 教育만을 하므로 教育
이 偏重되어 있고 意欲不在의 教育으로 되고 있다.
意欲이란 理知 以前의 것이며 情緒와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道德과도 깊은 關係를
가지는 것임으로 道德教育도 情緒教育이 저버려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까닭에 只今の 우리教育
은 또한 道德不在의 教育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道德은 理知로 說明되지 않는 要素가 있기
때문에 教科書가 道德을 解決할 수는 없는 것이다.

道德은 素朴한 行動을 知로 가름하여 理性을 바탕
으로 한 意欲으로만 解決되는 까닭이다.

이와 같은 意慾도, 그 意慾을 밀고 나갈 에너지도
人間生活에 必要하기 때문에 우리는 教育에서 이것
을 強調한다.

우리는 산다는 데에 滿足하지 않는다.

더욱 힘차게 잘 살아야 한다는 理想이 있다. 그러
기에는 知와 理를 活性化할 에너지의 身體를 強化
하여야 하며, 知와 理 그리고 活動力의 三者를 意慾
이라는 接合劑로 모두어 人間다운 生의 發展에 貢獻
하여야 한다.

흔히 學校의 優等生이 社會의 落第生이라고들 한
다. 그것은 그럴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學校의
優等生은 大腦皮質의 点数로 얻은 名譽이다. 사람의
大腦皮質은 實行力을 갖게 되어 있지 않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情動腦다. 그러나 學校에서 情動腦
의 点数는 無視되었고, 또 關心도 없었다. 그러나,
實社會는 <알고 있고>, <생각 하는>것으로 일이 處
理되지 않는다. 實社會는 行動하는 者에게 實利
가 간다. 歷史를 보면 理論으로 革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實力으로 革命은 이루어지고, 그 行動
者가 實權을 잡았다. 商論으로 돈이 벌어지는 것
이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가르친 學徒들이 社會의 落
第生이 되는 것은 意慾도 行動도 없고, 에너지조차
없게 學校教育이 만든 것이니 當然한 노릇이다.
Max Scheller는 「... 人間의 本質은 盲目的인 힘인
geist(精神)에 依해서 誘導되고 無力한 geist가 下
等한 힘에 依하여 發動된다」고 한 것은 혹시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아닐까.

사람은 必然코 盲目的인 힘과 geist가 生活 속에
必要하고 그래야 發展이 있으리라 믿는다.

중등부 「핀」 금

김 무천 (충북, 14세, 제천중 3년)



수련연수 : 3년
 우승경력 : 없음
 우승소감 : 무어라고 기쁨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어머님께 이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기 타 : 연장 1회

중등부 「라이트」 금

백 용훈 (충북, 16세, 대성중 3년)



수련연수 : 2년
 우승경력 : 없음
 우승소감 : 기쁩니다. 무어라고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중등부 「플라이」 금

최 창화 (충북, 15세, 제천중 3년)



수련연수 : 1년 6개월
 우승경력 : 없음
 우승소감 : 기쁩니다. 부모님께 이 커쁜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중등부 「웰터」 금

방 승호 (경기, 15세, 동상중 3년)



수련연수 : 3년
 우승경력 : 개인전
 우승소감 : 더 열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승을 후원해 준 친구를 잊지 않습니다.

중등부 「밴텀」 금

이 종진 (전북, 15세, 전주영생중 3년)



수련연수 : 4년
 우승경력 : 전북대회
 우승소감 : 이 기쁨은 친구들과 함께 합니다. 부모님과 특히 형님께 소식 전하고 싶습니다.

중등부 「미들」 금

이 유성 (경북, 17세, 함성중 3년)



수련연수 : 3년
 우승경력 : 최우수선수선발대회, 도 교육감기 평택전
 우승소감 : 벅찬 꿈입니다. 좀더 좋은 성과를 올리겠습니다.
 기 타 : 연장 1회

중등부 「페더」 금

서 석우 (서울, 16세, 장훈중 3년)



수련연수 : 1년
 우승경력 : 없음
 우승소감 : 이 기쁨을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분발해서 더 훌륭한 기술을 익히겠습니다.
 기 타 : 연장 1회

중등부 「헤비」 금

양 성무 (제주, 15세, 서귀중 3년)



수련연수 : 1년 6개월
 우승경력 : 없음
 우승소감 : 사범과 선배들의 덕으로 이런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고등부 「핀」 금

심 형기 (경기, 18세, 조사농공)



수련연수: 5년

우승경력: 신인선수권대회

우승소감: 학교와 선배님들께 감사할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 타: 연장 1회 추첨승

고등부 「라이트」 금

성 만용 (서울, 19세, 동대문상고)



수련연수: 6년

우승경력: 전국개인선수권대회

우승소감: 노 상석 코치님께 감사를 포함합니다.

고등부 「플라이」 금

이 철주 (경기, 18세, 동산고)

수련연수: 5년

우승경력: 우수선수선발대회 (70년),

개인전 (4, 5, 6회)

우승소감: 부모님과 사법님께 이 기쁨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해외로 진출했으면.

기 타: 연장 1회, 추첨승



고등부 「첼터」 금

강 의성 (전북, 19세, 남성고)

수련연수: 6년

우승경력: 신인선발대회

우승소감: 회장, 사법, 그리고 전두원씨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바쁘게 모에 헌신하고자 합니다.



고등부 「밴텀」 금

백 성조 (부산, 17세, 동아고)



수련연수: 4년

우승경력: 국제 중등부 2연승

우승소감: 부상당하고도 다행히 우승을 해서 정말 기쁩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와 코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고등부 「미들」 금

백 남식 (전북, 20세, 삼계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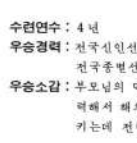
수련연수: 5년 6개월

우승경력: 전국체육대회 (51회)

우승소감: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선배님들의 후원 덕분에입니다. 후배양성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등부 「페더」 금

한 광열 (전북, 19세, 전주농림고)



수련연수: 4년

우승경력: 전국신인선수권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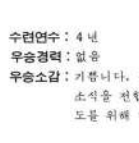
전국중등선수권대회

우승소감: 부모님의 덕분입니다. 앞으로 노력해서 해외에 태권도를 보급시키는데 전력하겠습니다.



고등부 「헤비」 금

김 준용 (경남, 19세, 진해고)



수련연수: 4년

우승경력: 없음

우승소감: 기쁩니다. 진해의 동창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태권도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단체 1위 전라북도 태권도 「팀」

권 용 수 회장 우승소감

본인이 약 4년 동안 회장직을 맡아 왔는데 매년 3위 이내로 입상만 하다가 금년 처음으로 금 「메달」 9개, 은 「메달」 3개, 동 「메달」 5개를 획득, 우승을 차지해서 기쁜 마음,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우승을 적극 성원해 주신 전북 도민과 함께 힘으로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태권도의 우승팀으로서 기만을 더욱 돈독히 마련하겠으며, 도내 행사로서 크게 태권도의 선양에 힘 쓰겠습니다.

이번 우승에 공로가 크신 부회장 전 일석씨, 전무이사 유병용씨를 여러분들께 소개 하오니 감사드립니다.

일반중기부「핀」급

최 추성 (전남, 20세)



수련연수 : 5년
우승경력 : 없음
우승소감 : 그저 기쁠뿐입니다.

일반중기부「라이트」급

이 언기 (서울, 21세, 성균관대학교)



수련연수 : 6년
우승경력 : 신인선수권대회 (70년),
종별선수권대회
우승소감 : 선배와 부모님께 기쁨을 전합니다.
「라이트」급의 석권을 바라며
후배양성에 종사하고 싶습니다.

일반중기부「플라이」급

김 비호 (강진, 17세)



수련연수 : 8년
우승경력 : 49회 국제 은메달,
50회 국제 동메달
우승소감 : 어머니께 이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태권도를 수련,
해의로 진출할 생각입니다.

일반중기부「웰터」급

김 철환 (충북, 18세, 풍양공전)



수련연수 : 4년
우승경력 : 개인선수권대회 (70년)
우승소감 : 관장님이 열려해 주신 덕분에 우승했습니다.
협회의 여러분에게 사의를 표합니다.

일반중기부「밴텀」급

이 근우 (전북, 20세, 영지대학교)



수련연수 : 8년
우승경력 : 51회 국제
우승소감 :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훈장을 계속해서 해의로 태권도를 보급하는데 헌신하겠습니다.

일반중기부「미들」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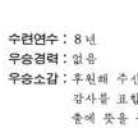
양 여과 (전북, 22세, 성균관대학교)



수련연수 : 6년
우승경력 : 신인선수권대회 (70년),
종별선수권대회 (70년)
우승소감 : 전북도민들의 성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으나 우승해서 기쁩니다.

일반중기부「페더」급

노 병한 (부산, 22세, 태권도사범)



수련연수 : 8년
우승경력 : 없음
우승소감 : 우편해 주신 코치와 후배들에게 감사함을 표합니다.
앞으로 해의 진솔에 뜻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중기부「헤비」급

전 광성 (강원, 24세)



수련연수 : 3년
우승경력 : 없음
우승소감 : 무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사범님과 부모님께 감사하며 계속해서 후배양성에 힘 쓰고 있습니다.

단체 2위 서울특별시 태권도「팀」

김 순 배 감독 임상소감

1963년 전국체육대회의 단체전에 서울시 참가했을 당시 전주에서 우승을 거둔 이래, 하위 내지 중위에 까지 랑에 올라서지 못하는 부진한 상태를 보여 오다가 이번 52회 제전에서 단체 2위를 마크하게 된 것은 선수들의 노력은 물론 더 말할 바 없거니와 서울특별시에서도 금년에는 종합 1위를 목표로 모든 면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를 통해 선수 여러분이나 코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사의를 표하며 우승권에 입상할 수 있었던 몇몇 선수들이 탈락한 것을 애석하게 여기면서 앞으로 가 있을 분발하여 전북「팀」을 쥐고 우승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반고기부 「권」 금

김 원일 (경기, 22세, 인화중학교)



수련연수 : 7년
 우승경력 : 49회 국제, 51회 국제
 우승소감 : 기쁩니다, 사범님과 부모님께 감사하며 더욱 힘써 해외에 진출할 생각입니다.

일반고기부 「라이트」 금

라 중열 (전북, 22세, 성광과학고교)



수련연수 : 8년
 우승경력 : 국제 50회, 51회
 우승소감 : 무어라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가족, 특히 형수께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에 진출하여 후배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일반고기부 「플라이」 금

이 정희 (경북, 22세)

수련연수 : 6년
 우승경력 : 없음
 우승소감 : 경북대편도의 발전을 위해 우승한 것이 정말 기쁩니다. 어머니를 바보한 가족에게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일반고기부 「월터」 금

강 기영 (부산, 24세, 부산기술고등학교교사)

수련연수 : 12년
 우승경력 : 70년 최우수선수선발대회, 48회 국제
 우승소감 : 은회시합이었음니다, 잡게가 두달하며 해외에 진출하여 후배를 양성하겠습니다.



기 타 : 왼쪽 팔이 분구임에도 우승함.

일반고기부 「벤텀」 금

전 우동 (부산, 22세)



수련연수 : 6년
 우승경력 : 51회 국제 동메달
 우승소감 : 기쁩니다, 꿈만 같습니다. 태권도 입원 어려운데 사의를 표하며 후배양성에 전력하겠습니다.

일반고기부 「미들」 금

김 건일 (부산, 27세, 동아대학교)



수련연수 : 13년
 우승경력 : 태권명기열전전, 50, 51회 국제
 우승소감 :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힘껏 싸우겠습니다. 올해가 마지막 시합이며 후배양성에 전력하겠습니다.

일반고기부 「페더」 금

안 영빈 (전북, 22세, 명지대학교)

수련연수 : 7년
 우승경력 : 51회 국제,
 총연선수권대회 (70년, 71년)
 우승소감 : 금·은을 놓고 다툰 몇차례 선배님에게 최승한 마음뿐입니다. 전복사업과 관광님께 감사함을 표합니다.



일반고기부 「헤비」 금

서 동현 (전북, 24세, 우석대학교)

수련연수 : 14년
 우승경력 : 전북대회
 우승소감 : 고학을 위해 좀 더 수련해 앞으로 해외로 진출, 태권도 보급에 전력하겠습니다.



단체 3위 전라남도 태권도 팀

전 철 회장 입상소감

선수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충분한 후원을 해 주지 못한 것이 가슴 아웁니다. 도민의 성원과 임원및 선수들의 혼연일치의 덕으로 성과하며 이번 대회를 경험합니다 다음번 대회에서는 기필코 우승을 겨루도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따뜻한 환대로 맞아주시 총장님들을 그리고 연일 수고로 주신 해육회 임원들께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跆拳道人の体力에 관한 研究

(2)

玄 友 泳

한양대학교 작업능률향상과학연구소

제 2 호 “태권도 지에서 보는 바, 태권도인의 体力을 把握하기 爲하여, 体力 検査를 20 個 項目에 걸쳐 測定하였다.

이제 그 結果를 初技者, 中技者, 高技者別로 統計・整理하고 그 內容을 比較・分析・檢討한다.

우리 나라 國體를 自處하는 最多數 人口의 競技 種目인 跆拳道로서는 늦은 감마저 주기는 하나, 이제라도 이러한 研究結果가 統出하으로써 世界에 뿌리 박은 韓國 跆拳道의 發展 및 科學化에 크게 貢獻됨을 確信하며 讀者 諸位의 많은 參考있기를 바란다.

※ 特히 筆者인 玄 友泳教授에게 中・高校의 修練者 讀者諸位의 便宜를 위하여 內容을 簡易하고 註釋을 달아 줄 것을 부탁 하였다.

修練生 여러분은 이 結果를 自己의 測定結果値와 比較하여 自身의 訓練方法에 適用, 利用할 것을 부탁하는 바 이다. [편집자]

Ⅲ. 結果 및 討議

前記 Ⅱ, I, 対象을 Ⅱ, 3,의 方法으로 測定한 結果는 다음 [表-2]와 같다.

다음의 [表-2]에 依하면,

(1) 身体形態 (体格)

① 身長 (키)

初技者 M=162.36cm, 中技者 M=165.21cm, 高技者 M=167.10cm이고 初技者, 中技者, 高技者 順으로 크며, 高技者가 中技者보다 平均 1.89cm, 初技者보다 平均 4.74 cm 크다.

② 體高 (앉은 키)

初技者 M=87.71cm, 中技者 M=88.89cm, 高技者 M=89.15 cm로, 初技者, 中技者, 高技者의 順으로 크며, 高技者가 中技者보다 0.26cm, 初技者보다 1.44 cm 크다.

③ 體重 (몸무게)

初技者 M=59.63kg, 中技者 M=59.89kg, 高技者 M=59.95 kg 으로서 初技者, 中技者, 高技者의 順으로 무거우며, 高技者가 中技者 보다 0.06kg, 初技者보다 0.32 kg 무겁다.

④ 胸圍 (가슴둘레)

初技者 M=83.54cm, 中技者 M=86.31cm, 高技者 M=88.24 cm로써 初技者, 中技者, 高技者의 順으로 크며, 高技者가 中技者보다 1.93cm, 初技者보다 4.70cm 크다.

(2) 身体機能 (体力)

① 握力 (쥐는 힘)

初技者 왼손 M=35.13kg, 오른손 M=36.81kg, 中技者 왼손

M=42.22kg, 오른손 M=43.59kg, 高技者 왼손 M=47.71kg, 오른손 M=48.42kg 이다. 따라서 왼손・오른손 共に 初技者・中技者, 高技者의 順으로 쥐는 힘이 강하며, 高技者는 中技者보다 왼손 쥐는 힘, 5.49kg, 오른손 쥐는 힘 4.83kg, 強하고 初技者보다 왼손 쥐는 힘 12.58kg, 오른손 쥐는 힘 11.61kg 強하다.

※ 握力 (쥐는 힘)은 엄지 손가락과 나머지 4 손가락의 말초 屈筋 (손의 各關節의 角을 굽히는 데, 使用되는 굽히는 힘)의 最大 收縮力을 作用하여 손의 쥐는 힘을 測定하는 方法中의 하나이며, 一般적으로 身体 角部位에 있는 屈筋의 힘을 代表하여 測定하기도 한다. 따라서 握力과 당기는 힘 사이에는 큰 相関이 있다고 한다.

② 背筋力 (등 굽히는 힘)

初技者 M=117.47kg, 中技者 M=130.06kg, 高技者 M=137.17kg으로써 初技者, 中技者, 高技者 順으로 強하며, 高技者가 中技者보다 7.11kg 強하며, 初技者보다는 19.70kg 強하다.

※ 背筋力 (등 굽히는 힘)은 주로 몸통인 어깨, 가슴, 허리, 등에 있는 筋肉의 힘을 測定하는데 使用하며, 身体 軀幹部의 關節의 角을 굽히는 데 必要한 筋力을 測定하는 것이나, 一般적으로 身体 各部位에 있는 伸筋力 (펴는 힘)을 代表하여 測定한다. 따라서 背筋力의 強弱은 그 사람의 伸筋力과 큰 相関이 있다고 하며, 特히 跆拳道의 지르기, 차기 등은 伸筋力과 密接한 關係에 있는 것이다.

③ 脚力 (다리 힘)

初技者 M=109.18kg, 中技者 M=119.18kg, 高技者 M=126.29kg이다. 따라서 脚力은 初技者, 中技者, 高技者의 順으로 強하며, 가장 強한 高技者는 中技者보다 7.11kg 強하며, 가장 弱한 初技者보다는 17.11kg 強하다.

跆拳道인의 身体形態(体格) 및 身体機能(体力)에 對한 測定 結果表

[表-2]

No.	區 分		初 技 者		中 技 者		高 技 者	
	測定項目		M	S · D	M	S · D	M	S · D
1	身	長	162.36	3.14	165.21	6.21	167.10	6.92
2	座	高	87.71	2.11	88.89	4.10	89.15	4.79
3	体	重	59.63	5.01	59.89	5.66	59.95	5.25
4	胸	囲	83.54	6.21	86.31	4.87	88.24	5.02
5	握	力	左35.13	4.37	42.22	4.77	47.71	4.33
			右36.81	4.11	43.59	4.36	48.42	4.22
6	背	筋 力	117.47	13.28	120.06	15.14	137.17	15.56
7	脚	力	109.18	18.16	119.18	20.18	126.29	20.19
8	肩 腕	引 力	32.36	3.45	34.74	4.08	36.85	4.18
9	肩 腕	押 力	40.44	5.09	50.24	7.01	52.45	6.17
10	윗몸 일으키기		71.77	9.61	75.71	8.57	82.14	6.24
11	Step up Test		61.11	5.17	59.37	4.78	58.21	4.93
12	肺 活 量		3.424	3.18	3.698	4.83	3.845	3.91
13	Burpee Test		5.15	0.57	6.26	0.81	6.75	0.78
14	Shuttle Run		12.05	1.18	10.25	0.92	10.05	0.94
15	体	前 屈	14.39	2.01	19.06	4.52	20.18	4.05
16	体	後 屈	40.57	4.58	59.55	6.74	61.85	6.91
17	달리기 - 60 m		9.43	0.62	8.83	0.91	8.57	0.92
18	立	幅 跳	215.15	19.02	244.16	20.16	242.51	15.14
19	Stick	Test	12.55	3.75	5.69	1.72	3.11	1.70
20	重心移動反應速度	音	0.307	0.093	0.246	0.027	0.240	0.029
		光	0.372	0.08	0.280	0.034	0.265	0.031

※ M=平均值, S·D=標準偏差

※ I 研究計劃 1 研究對象이 結果處理 過程에서 初技者 120, 中技者 80, 高技者 35로 變更됨.

※ 脚力(다리 힘)은 발목, 무릎의 關節의 角을 넓히는데 使用되는 筋力測定の 方法中의 하나이다. 即 다리틀 머는 힘을 測定하는 것이며, 발목, 무릎 部位에 있는 伸筋力을 뜻한다. 跆拳道에서 jump, 달리기 등은 이 筋力과 많은 相關이 있는 것이다.

④ 肩腕引力(팔과 어깨로 당기는 힘)

初技者 M=32.36kg, 中技者 M=34.74kg, 高技者 M=36.85kg으로 初技者, 中技者, 高技者 順으로 強하며, 가장 強한 高技者가 中技者보다 2.11kg 強하며, 初技者보다는 4.49kg 強하다.

※ 肩腕引力(팔과 어깨로 당기는 힘)은 팔과 어깨 部位의 筋肉을 動員해서 당기는 힘을 測定하는 것인데, 主로 팔과 어깨에 있는 屈筋群의 筋力이 協同해서 最大의 힘을 發揮하게 된다. 跆拳道에서 저 내기 등은 이 部位의 筋力이 強하면 有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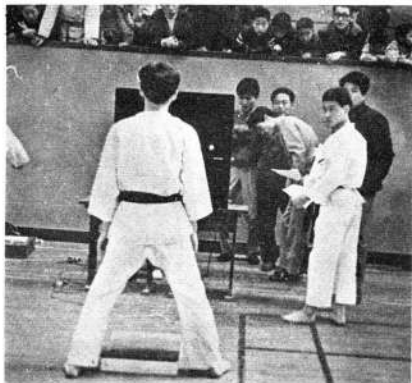
⑤ 肩腕押力(팔과 어깨로 미는 힘)

初技者 M=40.44kg, 中技者 M=50.24kg, 高技者 M=52.45kg으로 初技者의 順으로 強하며, 가장 強한 高技者는 中技者보다 2.21kg, 初技者보다 12.01kg 強하다.

※ 肩腕押力(팔과 어깨로 미는 힘)은 主로 어깨 및 팔의 伸筋群이 作用해서 미는 힘을 測定하는 것인데, 跆拳道에 있어서 저르기, 달리기 등은 이 힘과 密接한 關係에 있다. 따라서 跆拳道에서, 이 測定項目에 動員되는 筋群의 힘을 育成함은 跆拳道 修練에 重要한 役割을 하는 것이다.

⑥ 윗몸 일으키기(sit up)

初技者 M=71.77회, 中技者 M=75.71회, 高技者 M=82.14회이다. 따라서 初技者, 中技者, 高技者의 順으로 많은 回数를 施行 하였으며, 가장 많은 回数를 施行한 高技者는 中技者보다



6.43회, 初技者보다 10.37회 많은 回數를 施行 하였다.

※ 윗몸 일으키기 (sit up)

이 種目은 一般의 筋持久力을 測定하는데 實施한다. 即, 腹筋과 背근 中에서도 主로 腹筋의 收縮持久力을 測定하는데 여기에서 높은 成績을 얻은 사람은 軀幹을 오래 支拂할수 있는 것이다. 跆拳道에서 上體 앞으로 굽히는 動作과 軀幹 앞으로 말자기들은 腹筋力과 密接한 關係가 있는 것이다. 윗몸 일으키기 와 連續적인 軀幹 말자기는 密接한 關係가 있는 것으로 이에 對한 訓練을 受할자가 訓練과 關係에서 距離한 것이다.

⑦ step up test (오르 내리기 검사)

初技者 M=61.11회, 中技者 M=59.37회, 高技者 M=58.21회이다. 따라서 高技者가 가장 적은 回數를 보였으며, 그 다음이 中技者, 初技者의 順位이다. 高技者는 中技者보다 1.16회 적으며, 初技者보다는 2.90회 적다.

※ step up test (오르 내리기 검사)의 測定項目은 오르동안 계속 운동하는 能力 即 全身持久力을 測定하는데 一般의 利用 하고 있다. 一定한 높이의 箱子를 2秒에 1회 오르·내리기를 5分間 계속 하는 能力과 그 運動後에 호흡 순환기 등 생體의 變化에서 얼마나 빨리 回復이 가능한가 등을 알 수 있는 種目이다. 따라서 이 種目에서 좋은 成績을 얻은 사람은 內臟器管 등 生理能力이 完備한 사람으로, 跆拳道에서 軀幹 對練을 하는데 注意를 요하는 全身持久力이 있는 사람 인 것이다.

⑧ 肺活量 (뱉어 내는 힘)

初技者 M=3.424cc, 中技者 M=3.698cc, 高技者 M=3.845cc이다. 따라서 初技者, 中技者, 高技者의 順으로 肺活량이 많으며, 가장 많은 高技者가 中技者보다 147cc 많으며 初技者보다는 421cc 많다.

※ 肺活量 (Vital capacity)은 肺容積과 肺氣운동의 大小를 呼吸機能을 測定하는데 一般의 利用한다. 即, 最大呼吸에 있어 最大 呼出을 行한때의 氣體量을 말하며 1회에 呼出할수 있는 空氣의 最大量을 測定하는 것으로서 有氣性, 運動能力과 많은 相關이 있다. 跆拳道에서 呼吸을 하는데 呼吸調節 또는 對練時에 要求되는 呼吸調節 및 呼吸調整과 關係가 있다.

⑨ Burpee Test

初技者 M=5.15회, 中技者 M=6.26회, 高技者 M=6.75회이다. 初技者, 中技者, 高技者 順으로 많은 回數를 施行 하였으며, 高技者는 中技者보다 0.49회, 初技者보다는 1.60회 많은 回數를 施行한 것이다.

※ Burpee-Test (팔 집고 몸 앞으로 뻗었다가 일어나기)는 몸의 敏捷性을 測定하는데, 一般의 利用하는 測定項目이다. 一定한 單位時間內에 손집고 몸앞으로 뻗었다가 일어나기 動作의 回數를 測定하는 것인데, 거의 全身에 있는 伸筋群, 屈筋群이 最大의 出力으로 協同하여 作用 하므로 많은 回數의 試行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跆拳道에 있어서 型 및 對練時의 方向轉換, 前, 後, 左, 右 에로의 移行 運動 등에서 自己 몸을 재빨리 움직일수 있게 하려면 이 測定項目의 成績이 優秀한 者가 有利 하므로 이에 對한 日常時의 訓練이 要求된다.

⑩ Shuttle Run (10m 왕복 달리기)

初技者 M=12.05/Sec, 中技者 M=10.25/sec, 高技者 M=10.05/sec, 이다. 따라서 高技者가 가장 빠르며, 그 다음이 中技者, 初技者 順으로 빠르다. 가장 빠른 高技者와 中技者와의 差는 0.20/sec, 이며 高技者와 初技者와의 差는 2.00/sec, 이다.

※ Shuttle Run (10m 왕복 달리기)의 種目은 身體의 敏捷性, 瞬發力, 및 身體調整力 등을 測定하는데 많이 利用되고 있다. 即, 身體各機關의 瞬間的인 協同力과 機能들이 綜合하여 이루어지는 能力을 알 수 있다. 이 測定項目의 成績이 優秀한은 跆拳道 型 및 對練에서 高度한 敏捷性과 身體 調整力이 必要한 動作을 迅速하게 遂行하는 能力이 있는 것이다. 身體의 移行 speed, 180° 以上の 身體方向 轉換 (stop and go), 보그릴라 처기 등이 主內容이다.

특히 이것은 素質보다는 訓練에 依한 效果가 要求됨으로 이에 對한 訓練은 切實한 것이다.

⑪ 体前屈 (뒷몸 앞으로 굽히기)

初技者 M=14.39cm, 中技者 M=19.06cm, 高技者 M=20.18cm이다. 따라서 가장 많이 앞으로 굽히기를 한것은 高技者이며 그다음이 中技者, 初技者의 順位이다. 가장 많이 굽히기를 한 高技者와 中技者와의 差는 1.12cm이며 高技者와 初技者와의 差는 5.39cm이다.

※ 体前屈은 身體의 柔軟性을 測定하는데 使用되는 測定項目이다. 柔軟性은 各關節의 可動性을 測定하는 것인데 그 內容을 보면, 關節面의 可動性이란 關節囊, 韌帶, 腱 등 動作이 크게 關係되고 있다. 即 身體動作의 範圍가 큰 運動을 할 수가 있으며, 同時に 몸의 동작 범위가 큰 운동을 하여도 그 刺激이 筋肉에 주로 있게 됨으로 적은 에너지로 많은 運動의 量을 遂行하는데 보다 容易 하다는 것이다. 또한 柔軟性은 敏捷性과도 많은 相關이 있다. 跆拳道에서 말차기, 열차기, 돌려차기 등은 勿論, 보다 높이 차기는 柔軟性과 密接한 關係가 있다.

⑫ 体後屈 (뒷몸 뒤로 젖히기)

初技者 M=40.57cm, 中技者 M=59.55cm, 高技者 M=61.85cm이다. 이의 順位를 보면, 高技者가 가장 많이 뒤로 젖히며, 그다음이 中技者이고 初技者가 가장 적게 젖힌다. 가장 많이 뒷몸 뒤로 젖히는 高技者와 中技者, 初技者를 比較하면, 高技者와 中技者 間에 2.30cm의 差, 高技者와 初技者 間에 11.28cm의 差가 있다.

※ 体後屈(뒷몸 뒤로 젖히기)의 種目은 体前屈, 体側屈, 体念転動과 더불어 柔軟性を 測定하는데 흔히 利用된다. 특히 脊椎 後部の 柔軟性 検査로써 人間の 老化傾向과 많은 相関이 있다고 한다. 뒷몸을 뒤로 젖힐 때, 脊椎關節의 可能性과 脊椎後部에 있는 伸筋群의 收縮性能과 關係가 있다. 跆拳道에서 열 차기, 二段 열 차기, 軀軀 跳 등은 大腿關節의 柔軟性과 關係가 있으나 뒷몸 뒤로 젖히기의 柔軟性과 많은 相関이 있다. 우리는 習慣的, 職業的으로 前屈에 비해 後屈의 使用 頻度가 적으므로 日常時 이에 대한 많은 訓練이 要求된다.

③ 달리기 (60m)

初技者 $M=9.43/sec$, 中技者 $M=8.83/sec$, 高技者 $M=8.57/sec$ 이다. 이의 빠른 順位를 보면, 高技者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이 中技者, 初技者의 順이다. 가장 빠른 高技者는 中技者보다 $0.26/sec$, 初技者보다 $0.86/sec$ 빠르다.

※ 달리기 (60m)의 種目은 단거리 질주 능력을 測定하는 것인데, 短時間 内に 最高의 에너지를 발휘하는 能力을 나타낸다. 即, 單位時間 内に 大筋肉群의 收縮과 弛緩을 빨리 反復함으로써 身体를 빨리 이동시키는 能力이다. 跆拳道에서 처럼時에 相자를 追擊한다거나, 相ต่อสู้ 부터 逃避하는 빠른 動作은 이의 能力과 相関이 많다.

④ 立幅跳 (제자리 넓이뛰기)

初技者 $M=215.15cm$, 中技者 $M=244.16cm$, 高技者 $M=249.51cm$ 이다. 멀리뛰기 順位를 보면 高技者가 가장 멀리 뛰며 그 다음을 中技者, 初技者가 따른다. 가장 멀리 뛴 高技者와의 差를 보면 中技者는 $5.35cm$, 初技者는 $34.36cm$ 의 差를 보였다.

※ 立幅跳 (제자리 넓이뛰기)는 跳躍力을 測定하는 種目이다. 跳躍力이란 힘과 속도라는 概念으로 爆發的인 힘을 뜻하며, 跆拳道에서의 強도 擊破, 二段차기에서의 jump, 強한 발차기 등과 運動部位는 다르나, 주먹 및 手刀 저르기, 貫手 메르기 등은 跳躍력과 密接한 關係가 있다. 即, 跳躍력이란 能力 $\times$ 速度이며, 筋力과 速度(方向, 位置變化의 率)는 共に 重要な 要素이다. 흔히 跆拳道 修練過程에서 筋力 訓練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이점 特別 留意하여 訓練에 注意할 필요가 있다.

⑤ Stick Test. (角木위에 한쪽 발바닥으로 오래 서기)

初技者 $M=12.55回$, 中技者 $M=5.69回$, 高技者 $M=3.11回$ 이다. 初技者, 中技者, 高技者의 順으로 失手回數가 적으며 가장 적었던 高技者와 中技者와의 差는 $2.58回$ 이고, 高技者와 初技者와의 差는 $9.44回$ 이다.

※ Stick test는 平衡能力을 検査하는 測定項目이다. 一定한 單位時間 内に 2.5cm角木위에 한쪽 발바닥으로 오래 서 있기인데, 주로 平衡感覺, 深部感覺을 통해서 自己狀態를 아는 것이다. 平衡 感覺은 內耳에 있는 平衡感覺器를 통하여 自己身體의 各方向에로의 運動과 重力에 대한 頭部의 傾度를 알아, 深部感覺은 筋紡錘를 통하여 筋의 張力과 그 變化를 아는 裝置이다. 우리는 이러한 裝置을 통하여, 눈을 감고 있으면서 四肢의 位置, 運動의 強弱, 範圍 등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跆拳道에서 自己身體의 位置를 알고 相對의 變化를 早速하고, 正確하게, 判斷하여 그 対応策을 세우는데 있어, 自己身體活動의 主動의 役割을 하는 筋肉의 收縮強度의 良否, 時機選擇의 正確性, 筋의 係統의 收縮 順序의 正確性 등이 크게 相関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空中에서의 발차기 등 跆拳道에서의 많은 技巧는 筋의 感覺器를 통해 얻은 바른 判斷과 바른 命令을 諸筋群에 傳達하는 諸神經의 總分인 것이다.

⑥ 重心移動 反應速度 (Reaction Speed)

初技者의 音刺戟에 대한 結果는 $M=0.307/sec$ 이며, 光刺戟의 結果는 $M=0.372/sec$ 이다. 中技者의 音刺戟의 結果는 $M=0.246/sec$, 光刺戟의 結果 $M=0.280/sec$ 이며, 高技者 音刺戟의 結果 $M=0.240/sec$, 光刺戟 $M=0.265/sec$ 이다. 音·光刺戟 共に 初技者, 中技者, 高技者의 順位로 빠르며, 가장 빠른 高技者는 中技者보다, 音刺戟에 대하여 $0.006/sec$, 光刺戟에 대하여 $0.015/sec$ 빠르고, 高技者와 初技者를 보면 音刺戟에 대하여 $0.067/sec$, 光刺戟에 대하여 $0.107/sec$, 高技者가 初技者보다 빠르다.

※ 重心移動 反應速度는 各種刺戟信號에 대하여 身體重心移動의 反應을 하기까지의 速度를 測定하는 것이다. 即, 눈 또는 귀를 통하여 얻은 情報에 대하여 얼마나 빨리 自己體重(重心)을 移動할 수 있나를 検査하는 測定項目이다. 跆拳道에서 수시로 變化무쌍한 相對의 움직임에 対応하여 自己의 行動을 決定함에 있어 反應速度는 매우 重要な 要因中的 하나이며, 이 反應速度의 遲速은 곧 競技 勝敗와 直結한다고 할 수 있다. 反應速度는 相對의 準備態勢(神經의 準備程度)와 筋肉의 收縮速度에 依하여 크게 左右되는 것이므로, 平常時 訓練에서 假想의 敵에 대한 攻防練習을 게을리 하지 말것이다. 武士人의 눈을 감고도 敵의 攻擊을 能히 處理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平常時 訓練 過程에서 이에 대한 練習을 쌓아온 功는 結果인 것이라 고 생각된다.

以上 위의 結果를 綜合 檢討하여 보면,

1. 身體形態(體格)面의 発達에 있어 初技者, 中技者, 高技者로 가면서 그의 身長, 座高, 體重, 胸圍가 共に 漸進的인 発達를 보였으며, 특히 身長과 胸圍에서 初技者와 高技者간의 差 $4.74cm$ (身長) $4.70cm$ (胸圍)를 보인데 비해, 體重에 있어서 初技者와 高技者간의 差 $0.32kg$ 를 보인것은 跆拳道가 그의 形態의 発達를 하는데 體重보다 身體의 長과 幅 発達에 보다 影響을 주는 運動이라고 하겠다.

2. 身體機能(體力)面의 発達에 있어서,

(1) 筋力인 握力, 背筋力, 腳力, 肩腕, 引力, 肩腕押力, 의





測定結果를 보면, 위의 5個 筋力種目이 共히 初技者, 中技者, 高技者에로 가면서 優秀한 発達를 보였다.

특히, 握力은 初技者와 高技者間에 左右手 共히 10kg 以上の 差로 高技者가 優秀함을 보였으며, 背筋力에 있어서는 19.70kg 脚力에 있어서는 17.11kg, 의 差로 高技者가 優秀하다. 또한 肩腕引力에서 4.49kg, 肩腕押力에서 12.05kg의 差로 高技者가 初技者보다 優秀하다.

한편 肩腕引力과 肩腕押力を 比較하여 보면, 같은 初技者에 있어서 肩腕引力이 32.36kg인데 對하여 肩腕押力 40.44kg으로 그의 差 8.08kg를 볼 수 있으며, 高技者인 경우, 肩腕引力 36.85kg, 肩腕押力 52.45kg을 보임으로서 그의 差 15.60kg가 있는 것은 跆拳道人은 肩腕引力보다 肩腕押力이 強함을 말하여 준다.

더우기 初技者와 高技者間의 発達差 4.49kg에 비해 肩腕押力에 있어서의 初技者와 高技者間의 発達差 12.01kg가 생긴 것은 跆拳道가 引力인 屈筋力의 発達보다 押力인 伸筋力의 發達到 더욱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跆拳道의 修練過程이 주먹 지르기, 발 차기 등에서 보듯이 屈筋보다 伸筋의 使用頻度가 越等히 많은 데서 基因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2) 筋持久力을 보기 위한 握음 일으키기의 測定結果를 보면 初技者와 中技者間의 発達差 3.94회, 中技者와 高技者間의 発達差 6.43회, 따라서 總発達差 10.37회로 初技者에서 中技者, 高技者로 가면서 그의 發達到 優秀하다. 따라서 跆拳道는 筋持久力 發達到 도움을 주며, 이것은 高技者로 가면서 더욱 더 하다.

(3) 全身持久力의 測定을 위한 Step up test와 더불어 肺活量의 結果를 보면, Step up test 肺活量 共히 高技者가 가장 優秀하였으며 그 다음이 中技者, 初技者の 順으로 優秀하다. 그러나 Step up test에서 初技者와 高技者間의 脈數의 總減少回數 2.66회와 肺活量에서의 初技者와 高技者間에 있어서의 總発達差 421cc는 極히 漸進의 発達이었다고 하였다.

(4) 敏捷性 檢査를 위한 Burpee Test, 重心移動 反應速度의 結果를 檢討하여 보면 뒤 全體目이 共히 高技者가 가장 優秀하며, 그다음이 中技者, 初技者の 順으로 되어 있다. Burpee test의 初技者와 高技者間에 있어서의 總発達差는 1.60이며, Shuttle Run의 初技者와 高技者間의 總発達差는 2.05/sec 이다.

한편, 反應速度에 있어서 初技者와 高技者間의 總発達 差는 音刺戟에 對하여 0.067/sec이며 光刺戟에 對하여는 0.107/sec 이다.

여기서 初技者の Burpee test score 6.15회, 高技者の Shuttle Run의 score 10.05/sec, 高技者の 反應速度 音刺戟의 score 0.240, 光刺戟의 score 0.265에 對하여 위의 各 總発達差를 놓고 比較할 때, 各 Burpee test, Shuttle Run, 反應速度의 發達度는 刮目할 만한 發達이며, 反應速度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跆拳道는 敏捷性에 많은 發達을 주는 運動인 同時에 敏捷性을 必要로 하는 運動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敏捷性은 跆拳道의 平常時 訓練過程에서 基本動作, 型, 그리고 約束對練과 自由對練을 通해 假想的인 敵 또는 相對者의 行動에 對하여 万般의 準備態勢을 취하여 對應히 相應의 行動을 하고져 하는 心理의 變 生理的인 訓練에서 刮然히 神經 및 氣導時間의 短縮과 筋內部抵抗의 減少에 依한 筋收縮時間의 短縮에서 이루어진 것 이라고 생각된다.

(5) 柔軟性 檢査를 위한 体前屈, 体後屈의 結果를 보면, 体前屈, 体後屈의 2種目이 共히 高技者가 가장 그의 成績이 優秀하고 그 다음이 中技者, 初技者の 順位이다. 体前屈에 있어서 初技者와 高技者間의 發達差를 보면 5.79cm이며, 体後屈에 있어서의 初技者와 高技者間의 發達差는 21.28cm이다. 여기서 初技者の 各 体前屈, 体後屈의 成績에 對하여 各 体前屈, 体後屈의 初技者와 高技者間의 發達差를 比較하여 볼 때, 初技者에서 高技者에 이르는 사이에서 發達된 柔軟性의 發達度는 意義 있는 發達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柔軟性은 跆拳道의 修練過程에서 여러가지 姿勢에, 여러가지 方向으로의 말차기에서 大腿部 關節의 可動性과 더불어 말 알차기 및 뒤로 차기에서 自然히 이루어지는 膝수 前後屈의 運動效果에서 얻어진 結果라고 하였다.

(6) 瞬發力 測定種目인 달리기 (60m)와 立幅跳의 結果에 依하면, 高技者가 가장 좋은 成績을 내었으며 그다음이 中技者 初技者の 順이다. 60m 달리기의 初技者와 高技者の 發達差를 보면 0.86/sec이며 立幅跳의 初技者와 高技者間의 發達差를 보면 34.36cm이다.

위의 60m 달리기에서 0.86/sec의 短縮과 立幅跳에서 34.36cm의 記録伸張은 跆拳道가 漸進의이기는 하나 瞬發力 育成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뜻하며, 이러한 瞬發力은 跆拳道 修練過程에서 二段 열차기 및 各種 jump 등의 訓練效果에서 얻어진 結果라고 볼 수 있다.

(7) 平衡力 檢査를 위한 Stick test의 結果에 依하면 初技者의 失點 12.55에 對하여 高技者の 失點 3.11로써 그의 發達差 9.11회는 平衡力 發達到 有意義한 發達度라고 하였다. 더 말해서 跆拳道는 平衡力 發達到 有意義한 影響을 주는 運動이며 이것은 跆拳道의 基本鍛鍊, 型, 自由對練 등에서 보는 各種 姿勢로 옮겨가, 各種 姿勢로 말차기 및 空中에서의 여러가지 動作 등의 日常訓練效果의 結果라고 思料된다.

IV. 結 論

以上 위에서 綜合 比較한 跆拳道人의 體格 및 體力를 살펴 보면,

1. 全體面에서 볼때,

跆拳道人은 前記 20個 測定項目를 통하여 볼때, 種目に 따라 多少의 差異는 있으나 體格·體力 共に 初技者에서 中技者 高技者로 가면서 그 結果의 向上을 보았다(表-2 参照)

2. 體格 및 體力要素別로 볼때,

(1) 體格面에 있어서 體重(初技者 59.63kg, 中技者 59.89, 高技者 59.95kg) 増加率에 비하여 身長(初技者 162.36cm, 中技者 165.21cm, 167.10cm) 胸圍(初技者 83.54cm, 中技者 86.31cm, 88.24cm) 등의 発達이 顯著하고,

(2) 體力面에 있어서는

① 거의 全身의 諸筋群들의 発達이 있는 것으로 思料되는 證據로, 筋力의 向上을 보고, 特히 握力(初技者 左手 35.13kg, 右手 36.81kg, 中技者 左手 42.22kg, 右手 43.59kg, 高技者, 左手 47.71kg, 右手 48.42kg)과 肩腕押力(初技者 40.44kg, 中技者 50.24kg, 高技者 52.45kg)이 顯著한을 發見 했다.

② 筋持久力에 있어서는 極히 微微하나 漸進的인 發達을 보이고 있다.

③ 全身持久力에 있어서는 더욱 遲延한 發達을 보이고 있고,

④ 敏捷性에 있어서는 刮目할 만한 發達을 보이고 特히 重心移動 反應速度(初技者音 0.307/sec, 光 0.372/sec, 中技者 音 0.246/sec, 光 0.280/sec, 高技者 音 0.240/sec, 光 0.265/sec는 더욱 더 그러하다.

⑤ 柔軟性에 있어서는 意義있는 發達이 있었는데, 体前屈(初技者 14.39cm, 中技者 19.06cm, 高技者 20.18cm) 보다는 体後屈(初技者 40.57cm, 中技者 59.55cm, 高技者 61.85cm)에서 많은 發達이 있었다.

⑥ 瞬發力에 있어서는 漸進的인 發達을 보였는데, 特히 立幅跳(初技者 215.15cm, 中技者 244.16cm, 高技者 249.51cm)에서 많은 發達이 있었다.

⑦ 平衡力の 發達은 Stick test (初技者 12.55 點, 中技者 5.69 點, 高技者 3.11 點)에서 놀랄만한 向上을 보이고 있다.

3. 以上에서 보는 바 跆拳道를 통한 跆拳道人의 體力은 各 體力要素를 (多少의 差는 있으나) 골고루 發達시키고 있으며, 特히 筋力, 敏捷性, 平衡力에서 많은 發達이 있었고, 柔軟性과 瞬發力에 있어서도 크게 發達이 있었다.

※ 여기서 한가지 밝혀 둘것은 以上の 體格 및 體力의 發達이 全體 20個 測定項目를 통해 筋持久力을 除外한 全 19個 測定項目에서 初技者에서 中技者에 이르는 過程에서 많은 發達이 있었고, 中技者에서 高技者에 이르는 過程에서는 極히 微進한 發達만을 보았다는 事實이다. 따라서 跆拳道人의 體力은 앞으로의 指導方法 및 指導內容의 改善에 따라 더욱 發達된 素地가 多分히 있다고 思料된다.

1. 金仁達: 한국인 체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논문집, 자연 과학 3: 75, 1956.

2. 南基謙·金仁達·金仁達·中東薰·張信堯·成東乙·李相致·金祐謙·崔德慶·金春熙·李鍾熙·嚴晔高: 한국인 청소년의 체력 기준에 관한 연구, 스포츠과학 연구보고서 6: 129, 1969.

3. 대한 소아과학회: 한국 소아의 발육 표준치, 소아과 10: 부록, 1967.

4. 張信堯·南基謙: 한국인 체력 기준 작성에 관한 諸 문제, 스포츠과학 연구보고서 2: 105, 1965.

5. 朴海根, 白光世, 柳明子, 閔孝仙, 丁太寅, 吳尚伯, 林美子, 洪植基: 韓國 어린이 및 靑少年의 體力에 관한 연구, 스포츠과학 연구報告書, 5: 49, 1968.

6. 猪飼達夫 外 2人. Sports의 生理學 同文書院, 東京 1958.

7. 佐佐木茂: 體育測定의 理論과 方法, 東京: 通達書院, 1954.

8. 末利 博: 體育의 테스트와 測定(下卷), 東京: 通達書院, 1961.

9. 末利 博: 體育心理學(下卷), 東京: 通達書院, 1960.

10. Karpovich, Physiology of Muscular Activity, 猪飼達夫 外 1人 訳, ベンズボームマガジン社, 東京 1963年.

11. More house L. E. 8 Miller, A. T., Physiology of exercise The CV. Mosby Co. St. Louis., 1953.

12. Mathews, D. K., Measurement in Phy. Edu. Phila. as London. W. B. Saunders Co., 1963.

13. McCloy, C. H., Test and Measurement in Health and Phy. Edu. n. y. Appleton-Century Crofts, Inc.

14. Cureton, T. K Physical Fitness and Appraisal and Guidance (1964)

15. Cureton, T. K. Physical Fitness and Dynamic Health (1964) A STUDY ON THE PHYSICAL FITNESS OF

TAEKWONDO EXPERTS IN KOREA

by Hyun, Woo Young

The Han Yang University Science Institution of Work Efficient Improvement

(Abstracts)

A physical fitness test was carried out to the 200 and more grade-holders of Taekwondo certified by Korea Taekwondo Association to study how was developed the bodily strength. It was tested about their heights, weights, girths of the chest, sitting heights, strengths, muscular endurance, agility, balances, powers, flexibilities and endurance.

As a result, the followings were caught:

1. There were remarkable developments in strength, especially, significant progresses in gripping strength and push-in strength.

2. Agility were well developed in particularly in reaction speed.

3. Powers appeared a physical development, expressly in standing broadjump.

4. Balances too show a weighty growth.

5. There was a little progress among muscular endurance, flexibilities and endurance.

6. Most of Taekwondo experts showed significant developments more in their heights and girths of the chest remarkably than in their weights.

내외



동정

—터어키—

조 수세사범이 터어키에 발을 들여 놓은 것은 1965년 11월의 일이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3년후인 1968년 8월 도장의 문을 열게 되면서 부터 본격적으로 한국태권도는 터어키에 뿌리박기 시작했었다.

그동안 조 수세사범은 터어키의 상하층을 막라해서 한국태권도가 갖는 참된 열과 그 기술면을 인식시키기 위한 끈기있고도 즐거운 시범과 또한 태권도 인구 저변확대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터어키의 대통령을 비롯한 체육 관계자들이 한국태권도를 정식 스포츠로 인정하게 했음은 물론이요, 일반의 관심도가 날로 깊어가서 현재 앙카라에 중앙도장을 위시해서 7개의 도장과 터



군중들의 시선을 모으며 격파시범을 하는 조 수세 사범
어키 전국 10개 지부에 19개의 도장을 설치하는 개
가를 올렸다.

그리고 태권도인구가 천 5백여명에, 상당수의 유단자를 배출하는 눈부신 발전상을 이루었다.

특히나 이름있는 대학과 각 중고등학교에 태권도장의 신설을 보게 됐음은 한국태권도가 스포츠로서 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성과라 아니 할 수가 없다.

단 시일내에 놀라운 성과를 거둔 조 수세 사범은 한국태권도를 통한 한국과 터어키간의 유대에도 큰 몫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자못 크다고 하겠다.

—불란서—

외형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화려하기만 한 불란서의 수도 파리에 마침내 한국 태권도의 맥박이 고동치기 시작했다.

참으로 놀랍고, 자랑스럽고, 또한 보람에 넘친 한국 태권도의 개가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렇게 한국태권도가 뿌리박고 놀라운 결실을 맺기에 이르기까지 결코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한국태권도협회 소속 이 관영(五단)사범이 지난 69년 9월이래 줄곧 성의를 다해 기반을 닦아 온 피땀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하겠다.

불란서에는 일찍부터 일본 <가라테>가 판을 치고 있어, 우선 이 세력을 몰아내는데 힘을 기울여야만 했었다.

이런 가운데서도 특히 힘들었던 점은 일본 <가라테>의 용어와 우리 태권도 용어의 차이점을 극복하는 것이었다.



빠리의 이 관영 사범 도장의 수련 생들.

이렇게 해서 이 관영사범은 파리 지역에 10개 도장의 문을 여는데 성공할 수가 있어, 하루 두개도장씩 일주일에 10개도장을 순회하면서 한국태권도 인구의 확장에 최선을 다했었다.

그러나 일본 <가라테>잡재 세력은 여러가지 형태로 방해를 일삼아 한때 세개 도장으로 줄어드는 시련을 겪기도 했었지만, 이도 역시 어 관영사범의 성의와 정력으로 이를 극복, 마침내 1년 6개월간에 유단자 다섯명을 배출하는 성과를 나타내기에 이르렀다.

—이태리—

1958년 경영학을 공부하기 위해 로마 대학에 입학하였던 박 선재사범은 뜻한바 있어 모든 어려움을 웃는 얼굴로 물리치면서 1966년 2월에 로마시에 한국태권도도장의 문을 여는데 성공했던 것이다.

지난 7월 26일 업무연락차 잠깐 귀국한 박 선재사범은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한국태권도도장을 열게된 동기를 이렇게 말한다.

박 선재사범은 꾸준히 태권도 수련을 쌓았던 몸이었다. 그러나 이태리 유학길에 오른 몇년동안 태권도 수련을 불가불 중단해야만 했었다. 그러나 몸이 날로 비대해 짐에 고민하다 후시 마땅한 운동할 장소가 없을까 해서 시가지를徘徊하던 끝에 일본 <가라데>가 판을 치는 광경에 시선이 끌려 갔다.

기술면으로나 실력면으로나 한국태권도의 우수성을 도저히 위파할 수 없는 일본 <가라데>가 위세를 떨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에 박 선재사범은 자기의 몸을 위해서나, 또는 한국태권도를 통한 국위선양을 위해서나 가슴으로 파고드는 한줄기 뜻이 생겼다.

이와같은 동기가 마침내 로마에 세개의 도장을 비롯해서 이태리 전역에 걸쳐 8개소의 도장을 일으켜 세우기에 이르렀고, 태권도 인구 5천여명에 현재 수련자만도 천여명에 달하고 유단자 18명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친서방 공산국가로 알려지고 있는 유고슬라비아에 까지 그 두터운 장벽을 뚫고 한국태권도의 뿌리를 착실히 옮기는데 또한 개가를 올린 것이다.

—에콰도르—

지난 64년에 태권도 보급을 위해 남미 에콰도르에 건너간 이 범재사범은 그간 전국에 4개의 도장을 개설, 태권도 인구의 확장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지난 8월 15일에는 한·에콰도르 문화협회의 주관으로 제 1회 전국 태권도 시범대회를 열어 독립기념일을 장식했다.

이 대회는 전국 4개 도장에서 선발된 30명의 대표 선수들이 참가했는데 에콰도르 체육협회와 유니베르사(UNIVERSA) 신문사, 그리고 한국 영사관의 후원아래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축하를 통해, 문화협회장 환 까르로스 화이 뜻며(JUAN CARLOS FAIDUTTI) 박사(변호사)는 스포츠를 통해 양국의 우호관계(友好關係)를 더욱 긴밀히 하자고 강조하면서 이어 한국의 전통적 스포

츠인 태권도를 젊은이들에게 보급하여 에콰도르의 국민정신을 공고히 하자고 호소하여 끝리고 세라



이 범재 사범과 수련생들, 색안경을 쓴 사람이 문화 협회장, 도(COLICO CERADO)실내 경기장(10,000명 수용)에 운집한 관중의 박수 갈채를 받았다.

이 대회를 통해 그나라에 태권도를 일반화(一般化)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보아 대회의 의의(意義)와 성과(成果)는 자못 크게 평가되고 있다.

한편 그국 체육협회에서는 태권도를 스포츠의 하나로 채택코자 태권도의 스포츠화 운동을 벌이고 있어 우리들의 기대(期待)와 주목(注目)을 끌고 있다.

—캐나다—

한국태권도가 우수한 스포츠로 높이 평가 받으면서 마침내 캐나다에도 그 뿌리를 박기 시작했다. 캐나다에 건너간 이 준재사범은 장벽처럼 앞으로 가로막는 일본 <가라데>를 물리치고 끈기차고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 알찬 결실을 맺어 놓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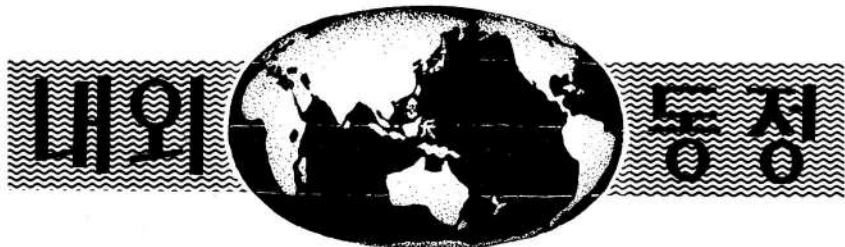
현재 이 준재사범의 문하생은 150여명에 달하고, 지난 9월 부터는 칼라리대학교에도 태권도부를 창설하는 산과역에도 성공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 준재사범이 전해온 소식에 의하면 밴쿠버에서는 최 찬근사범이, 윈위백에서는 박 중대사범이, 토론토에서는 박 종수사범이 그리고 엘베타주에서는 이 준재사범이 활약을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장 만호사범이 또한 캐나다 북쪽지방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준재사범은 캐나다에 더욱 알찬 한국태권도의 기반을 닦기 위해서 국가적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태권도 시범을 보여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리고 캐나다에 상주하는 사범들이 뜻을 모아 캐나다 태권도협회 창건까지도 계획하고 있어 머지 않아 그 성과는 눈부시게 빛날 것으로 자못 기대되는 바 큰 것이 있다.



— 엘 살바도르 —

지난 1966년에 교환교수 자격으로 엘 살바도르에 건너가 뜻한바 있어 한국태권도 보급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최 병호사범이 지난 9월 25일에 잠깐 귀국했다가 10월 5일에 다시 돌아갔다.

지금 최 병호사범은 엘 살바도르 전역에 15개 도장을 개설하는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약 1,000명에 달하는 수련생과 고단자만도 20여명에 이르고 있다.

— 미국 ① —

미국에서 발간되는 태권도 전문지인 <블랙·벨트>지가 선정하는 1971년도의 인물로 조 시학 사범이 그 영광을 차지하게 됐다.



조 사범 기사를 게재한 <블랙·벨트>지의 표지와 내용

조 시학 사범은 13세 때 태권도 수련을 쌓기 시작해서 고려대학교에서 태권도부를 이끌어 왔다.

그리고 1958년 미국으로 건너가서 「일리노이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 했었고 1961년 뉴욕시에다 태권도 학교를 창설하여 오늘에 이르기 까지 수 많은 문하생을 길러냈다.

또한 최 사범은 뉴욕시립 대학교의 교수단에 속해 있으며 그가 관장하는 분관과 뉴욕 주변의 여러 대학에서 태권도 교육을 감독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 한국 태권도를 통해 국위선양에 이바지한 공이 크게 빛나 1970년 한국 정부는 조 사범을 모국에 초청해서 박 정희 대통령께서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여했고, 외무부장관으로 부터는 표창장을 받은 바도 있다.

세계에 널리 알려진 미국의 태권도 전문지인 <블랙·벨트>지가 1971년도의 인물로 지냈었음은 바로 조 시학 사범의 업적이 그만큼 빛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요, 한국 태권도의 세계화에도 밝은 전도를 약속해 주는 경사라 하겠다.



최 병호 사범이 협회를 방문하여 환담을 나누고 있다.

엘 살바도르에 한국태권도의 불을 일으킨 최 병호 사범은 지난날을 이렇게 회고한다.

현재 15개 도장에 근 1,000여명의 문하생을 거느리게 되기까지는 평탄하지만은 않았다

도장을 열기 전 준비과정이 약 4개월이 소요됐으나 그동안 아라비아인 크림과 중국인 친목단체와의 친교로 예상외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도장을 열자 의사, 판리, 군 장성, 대통령 경호관 등 비교적 저명인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게 되어 비교적 좋은 평을 받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최 병호사범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끈기와 성의를 다해서 노력을 기울였다.

지금 엘살바도르 국립대학교 특수체육학과에서 강의까지도 맡고 있는 최 병호사범은 앞으로 한국태권도의 열을 엘 살바도르에 더욱 톡톡히 심겠다고 그 열의가 대단하다.

—미 국 ②—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클라멘트시에 마침내 한국태권도의 발판이 견고하게 구축되었다.

4년전 미국에 건너간 강 명규사범은 이미 진출한 일본 <가라메>봄으로 자신과 신념을 앞세워 확실하게 한국태권도의 우수성을 파시하는데 성공했다.

이와같은 노력의 결실은 캘리포니아주 안에 8개의 도장을 일으켜 세웠고, 4개 대학에서 한국태권도를 보급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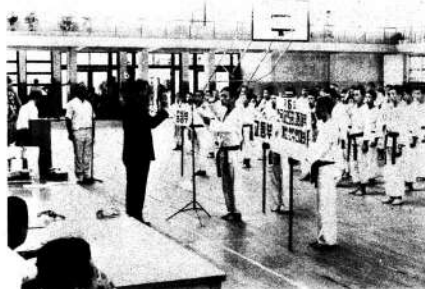
그리고 약 700명의 수련자와 약 30여명의 유단자를 배출했다.

지난 6월 두번째로 잠깐 귀국한 강 명규사범은 지난 8년간의 발자취를 더듬으면서 캘리포니아 주재 우리 영사관과 샌클라멘트시에 거주하는 우리 교포들의 물심양면에 걸친 협조에 새삼 감사하기를 잊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태권도협회가 베풀어 주는 여러가지 협조에도 깊이 감사하고 있다.

특히 일본 <가라메>계통에서 자랑하는 각종 간행물에 못지 않은 <태권도>지를 협회에서 보내주는데 대해 감사를 금할 수가 없다고도 덧붙인다.

지난 7월 5일 다시 도미길에 오르면서 강 명규사범은 앞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더욱 한국태권도의 참 모습을 빛내어 국위선양에 가일층 힘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선수 대표의 선서

전국에서 각기 모교의 명예를 양어깨에 걸머지고 무려 21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 시종 질서정연하게 기에 임해 관계 기관장을 비롯한 수많은 관중에게 국기(國旗)로 향한 태권도인의 자세를 다시금 과시, 벽



내빈 축하

찬 감명과 우렁찬 박수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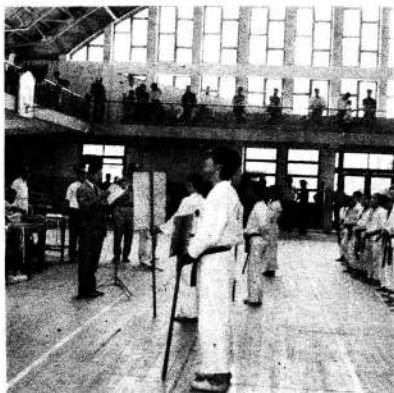
이번 대회를 주관한 전라북도 태권도협회 회장 권용수씨는 이번 대회가 안겨준 감회를 이렇게 털어놓았다.

“전국규모의 대회를 주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전 회원들이 평소애 가다듬은 협조와 협동정신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대회수준 또한 놀라운 실적을 기록하게 됐다. 그리고 전라북도내 13만에 달하는 태권도인들은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해관계를 초월한 대동단결로 앞으로 더욱 노력, 보람찬 내일의 한국태권도의 밑거름이 될 것”을 스스로 다짐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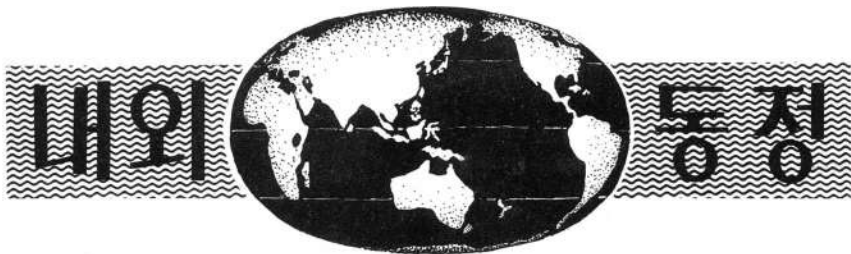
한편 전국규모의 이번 대회를 마치고 보니 앞으로의 더욱 큰 발전을 위해 협회를 중심한 일사불란한 체제 확립이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제 6회 전국 중·고·대 대회

제 6회 전국 중·고·대학 태권도 개인 선수권대회가 7월 10일부터 7월 11일까지 2일간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권용수 전북회장(대회 부 회장)의 개회사



—한·월 소년 친선 경기—

7월 23일 월남소년태권도 선수단 일행이 태권도의 종주국인 한국을 방문 일주일간의 바쁜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본협회 초청, 국방부와 주월 한국군 사령부후원으



월남 선수가 대련 시범을 하고 있다.

로 내한했던 이들은 7월 25일 장춘체육관에서 우리나라 소년선수들과 시범경기를 가졌고, 산업시설과 명승고적을 두루 살피는 한편 한국의 명산물을 선물로 듬뿍 사들고 돌아 갔다.

태권도의 종주국인 한국을 찾은 월남소년선수들이 받은 감동은 그들의 표정으로 미루어 보아 대단히 컸음을 알수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 태권도인들도 그들을 맞은 감회 또한 컸다고 하겠다.

그만큼 한국태권도가 월남에서 이루어 놓은 발자취는 참으로 놀라운 보람으로 나타난 것이다.

지금 월남에서는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한국태권도가 날로 번져가고 있다.

유단자만도 만여명에 달하고, 전 월남의 태권도 인구는 놀랍게도 60만명을 헤아릴 수 있게 됐다.

이와같은 사실은 피로 맺어진 한국과 월남의 장래를 더욱 밀접하게 이어주는 교량이다. 또한 승공전서의 자랑스러운 히의 격정페르 스현되 거이다



월남 선수단 일행이 국방부를 방문 환담하고 있다.

엘살바도르 관광단 대표에게 기념패를 전달



주한 외국인 태권도 선수권 대회

지난 1971년 9월 26일 서울 한성여자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주한 외국인 개인 선수권대회가 개최되었다.



선수대표의 선서

이 대회는 조선일보사의 후원을 받아 금년이 그 4번째로 열리는 대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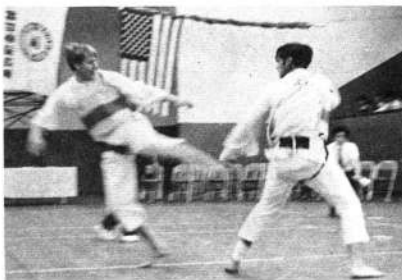
처음 협회가 이 대회를 개최하게끔 된 동기는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태권도 수련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태권도의 열의를 고취시켜 주고 한국의 올바른 태권도 정신을 불어 넣어 주기 위한 일환책으로 외국인 대회를 개최했던 것이다.

첫번째 대회에는 많은 외국인 선수들이 참가하였으나 해가 거듭될 수록 그 수효는 줄어들고 있다. 그 이유로는 한국에 주둔한 외국군의 철수때문인 것이다.

이 외국인 선수권 대회는 앞으로 1년내지 2년이 더 계속될 수 없는 실정이다. 태권도 종주국인 한국에서 이색적으로 열리는 이대회가 앞으로 2년을 넘을 수 없다

는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외국인 선수권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의 열의와 사기는 참으로 그 진가를 높이 평가 하고 싶다. 큰 제책에



불을 뿜는 경기

잘 돌지 않는 몸, 움켜 차지 못하는 발을 안간힘을 다하여 끝까지 선전 선무하는 모습은 어디엔가 우리 한국 선수들이 받아들여야 할 점이 많다고 본다.

이번 대회에 특기할 만한 것은 대회와 때를 같이하여 우리 나라에 태권도 관광차 찾아온 <엘살바도르> 태권도 관광단이다. 20여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현재 <엘살바도르>에 태권도 사범으로 활약중인 최병호(崔炳鎬) 씨의 안내로 이곳에 온것이다.

이들은 시종 경기를 관전하였고, 게임마다 우리와 같은 박수로 성원을 보내 주었다.

이들에게 본회 김 운용 회장으로부터 기념패가 전달되었으며 또 그들로부터 김 운용회장에게 기념품이 증정되기도 하였다.

해외 사범의 포스터와 안내장



- ① 정 홍일 (독일)
- ② 이 준재 (캐나다)
- ③ 호워드 리 (미국)

몸 닦고 마음 닦고

남을 못 믿는다는 것은 나를 못 믿는 거다!

박 주 석

요사가 세상 인심이 어떻게 된 한국인지 남을 못 믿는다는 것은 고사하고 내가 나를 못 믿겠음 되어 가니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남을 못 믿는 것 짚어야 하도 세상인심이 작박하니 하는 수 없다고도 하겠다.

사기꾼, 가짜 위조꾼들이 득실거리니 누가 누구를 믿고 살겠느냐 말이다.

그러나 내가 나를 못 믿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심차려 볼 일이다.

곰곰히 생각하여 보니 그도 그럴 법한 일이다. 남을 못 믿고 내가 나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나와 남은 상대적인 것이다.

이 상대성이 결국은 절대인 나에게도 그 반응을 받겠음 되니 자연 자기도 못 믿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사회구조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남과 같이 살기 때문에 결국은 남에게 주는 못 미더움이 결국 나를 못 믿게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다시 말을 바꾸어 쉽게 풀이 하면 이렇게 될 것이란 짐작이 어슴프레 가게 되는 것이다.

나는 남을 안 믿는다. 그 안 믿는다는 것은 남을 믿겠음 노력과 성의를 게을리 한다는 것이다. 그 노력과 성의가 없으니 과연 나 자신은 무엇으로 상대방에게 믿겠음 할 수 있겠는가!

비단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가 아니라 우리 태권도계에도 남을 못 믿는 불신 풍조가 전염병처럼 번져 가고 있으니 큰 일이다.

경기대회 때만 해도 그렇다.

네 사람의 부심과 한 사람의 주심 그리고 두 사람

의 배심원이 나와 승패를 가름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심판들이 관중이나 선수들에게 불신을 당하는 수가 있다.

선수나 관중들 뿐이 아니고 심판을 같이 보고 있는 심판들 사이에도 서로 못 믿고 있는 현상이다.

나는 올바르게 심판을 봤는데 아무개 심판은 자기편 선수라하여 진 것을 이겼다고 점수를 주었다는 말이다.

참으로 어이 없는 일이다.

심판을 같이 보았으면 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에서 자기만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 간악한 심보이다.

이러한 행위는 태권도의 올바른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일이다.

또 경기를 이끌어 가는 심판의 도리로서는 더더구나 아닌 것이다.

도대체가 있을 수도 없고 상상조차도 해서는 아니 되는 엄청난 행위라고 하겠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가 맡은 일이 무엇이며 자기의 책임과 사명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자기의 권위도 찾을 줄 아는 사람이나 하면 그렇지도 못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남을 못 믿는 데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자기 자신이 남들에게 불신을 당하고 있다는 엄숙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일까!

너 나 할것 없이 반성해야 되겠다. 특히 우리들 태권도인은 정신을 앞세운 운동인임에 자신을 믿을 수 있어야 하겠고 또한 남도 믿을 수 있는 인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해외소식 투고 환영

해외주재 사범의 투고를 환영합니다.

본지 편집자료로서 해외활동의 현황 파악과 협회 통계자료로서 필요할 뿐 아니라, 발송된 본지가 귀하에게 도착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오니 가급적 상세히 기록하여 빠짐없이 투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원고는 도착순으로 본지 내의등정란 또는 다른 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편집실〉

History of Korean Taekwondo

People in primitive ages, no matter where they lived, had to develop personal skills to fight in order to obtain their food and to defend themselves against their enemies, including wild animals. This was what we might call the only sports activity in that age.

They also had to invent weapons for more effective defense and easier subsistence. However, even after they learned to use weapons, they never stopped their effort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ir bodies and minds by practicing various games, especially in the form of religious rites.

The Korean ancestors who settled in several tribal states in this land after the neolithic age had many such activities. Yongko in Puyo state, Tongmaeng in Koguryo, Muchon in Ye and Mahan, and Kabi in the Silla dynasty are some of the striking examples of the "sports activities" which ancient Koreans practiced in their religious rites. These eventually were developed into arts to improve health or martial arts.

The long experience of ancient people in defending themselves against the attacks of animals as well as their imitation of the defensive and offensive positions assumed by the animals slowly led the people to develop more effective skills of their own to use their hands in fighting, thus creating primitive form of Taekwon(Taekwondo)

The origin of Taekwondo in Korea can be traced back to the Koguryo dynasty, founded in 37 B.C. since mural paintings found in the ruins of the royal tombs built by that dynasty show scenes of Taekwondo practice.

Muyong-chong and Kakchu-chong are two royal tombs built in the Koguryo dynasty, which were discovered by a group of Japanese

archeologists in 1935. They were located in Tungku, Chian county, Tung-hua province in Manchuria, where Koguryo had its capital, in Hwando province.

The ceiling of the Muyong-chong carried a painting depicting two men facing each other in Taekwondo practice, while the mural paintings of Kakchu-chong show two men wrestling. In reference to this particular painting, Tatsushi Saito, a Japanese historian, in the "Study of Culture in Ancient Chosun," says:

"The painting either shows us that the person buried in the tomb practiced Taekwondo while he was alive or it tells us that people practiced it, along with dancing and singing, for the purpose of consoling the soul of the dead."

The construction of the above two tombs dates back to the period between 3 A.D. and 427 A.D., during which historians say Hwando province remained the capital of Koguryo. So we can naturally infer that Koguryo people started practicing Taekwondo at a certain point of that period.

We can also easily infer that Taekwondo was practiced in the Silla dynasty. Silla was a kingdom founded in the southeastern part of the land some 20 years before Koguryo in the north. If we go to Kyongju, the ancient capital of Silla, we find two Buddhist images inscribed on the Keumkang Giant Tower at Sokuram in Pulkuk-sa Temple, both of which represent two giants facing each other in a Taekwondo stance.

Silla was famous for its Hwarang-do, the knights errant who trained their bodies and mind through devoting themselves to hunting, learning and martial arts. Development of martial arts by Hwarang-do was an essential part of Silla's struggle to unify the whole country by conquering Koguryo and Paekche, a third king-

dom in the mid-western section of the country.

Many scattered evidences described in the Samguk Sagi and Samguk Yusa, two oldest documents on Korean history, show that Hwarang-do also practiced Taekwondo in their basic training of the body.

Some people believe that Korean Taekwondo originated from Kwonbop, the Chinese art of self-defense. According to a Chinese document, the Chinese art of self-defense is believed to have been initiated as a sort of physical exercise when the Buddhist saint Dharma taught the monks of Hsiao lin Temple in Tungpung county, Honan province, China.

Saint Dharma, a great Indian Buddhist priest, came to China in 520 A.D. and spent nine years at Hsiao lin Temple to introduce the art of self-defense.

However, if we recall that the mural paintings of Taekwondo in the ancient tombs of Koguryo belong to the period of 3 A.D. to 427 A.D., it cannot be said that the Korean Taekwondo owes its origin to the Chinese "Kwonbop."

No detailed record is available as to when Karate, the Japanese equivalent of Taekwondo, was initiated, and even the explanation is two-fold. One explanation is that a Chinese named Chen Yuanpin, who lived in the late Ming dynasty, was naturalized as a Japanese and imparted the Chinese "Kwonbop" to the Japanese people. The other explanation says that Karate is a developed form of "Okinawate," a self-defenses art indigenous to Okinawa.

But when the Okinawate itself was begun is not known either. In order to trace the origin of Okinawate, we might rely on "The Historical Record of Chosun," which only says that envoys from the Ryukyu Islands made frequent visits to bring tribute to the kings of Chosun(Korea).

At that time in Korea, "Subak" (old name for Taekwondo) had gained great popularity among the people, and therefore it is not the envoys from Okinawa might have learned the game and introduced it to their people. This speculation is not too absurd when we recall the fact that "Nul," the Korean see-saw game, was also learned by the people of Okinawa.

Now we may conclude that the Japanese Karate, in turn, derives from Taekyon or Subak, the primitive form of Taekwondo.

Anyway, Taekwondo retained its popularity after the Koguryo and Silla dynasties through the Koryo dynasty, that was founded in 918 A.D., and continued for 475 years, and through the Yi dynasty after that.

In the history of Koryo, Taekwondo, which was then termed "Subak," was practiced not only as a skill to improve health or as a sports activity but it was also encouraged as a martial art of considerably high quality.

Here is one extract from the historical record of Koryo that testifies to the popularity of Taekwondo as a martial art.

"King Uijong admired the excellence of Yi Ui-min in Subak and promoted him from Taejong (military rank) to Pyolchang."

And here are a few more extracts concerning the practice of Taekwondo in Koryo.

"The king appeared at the Sangchun Pavillion and watched Subak conte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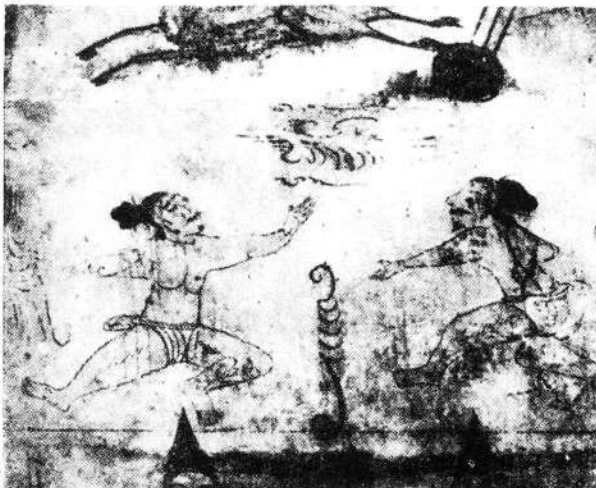
"The king watched Subak contests at Hwa-bi Palace."

"The king came to Ma-am and watched Subak contests."

These records tell us that the Subak in the Koryo dynasty was also practiced as an organized sport that could be presented for spectators to enjoy.

Subak is believed to have gained its highest popularity during the reign of King Uijong, between 1147 and 1170 A.D. This period roughly corresponds to the era that includes part of the Chinese Sung and Ming dynasties, during which the Chinese Kwonbop became widely popular after this self-defense art developed into two advanced systems, namely Neikya and Weikya. These two systems differ chiefly in that the one employs more defensive skills and the other offensive skills.

The above fact is quite worth our notice as it further shows that Taekwondo is not only of a



This mural painting, depicting two men practicing a sort of Taekwondo, is drawn on the ceiling of Muyong-chong, a royal tomb of the Koguryo dynasty. The tomb in southern Manchuria is believed to have been built between 3 A.D. and 427 A.D. and was excavated by a group of archeologists in 1935.

pure Korean origin but it has achieved independent development throughout the long history of Korea.

What is very important for us to note about Subak in the Yi dynasty is that there was a book published to teach the game as a martial art and that it became more popular among the general public while it had been to a certain degree monopolized by military society in the preceding dynasty of Koryo.

A historical record tells us that people from both Chungchong and Cholla provinces once gathered at the village of Chakji located along the provincial boundary to compete in Subak. This record supports the notion that Subak played an important role as a popular sports activity of the people in the Yi dynasty.

Furthermore, people who aspired to be employed by the military department of the royal government were eager to learn Subak because it was included as one of the major subjects of the test to be taken by the applicants.

Meanwhile, King Chongjo published "Muye Dobongji," an illustrated textbook on martial arts, which included Taekwondo as one of the major contents.

It is obvious, therefore, that Subak became an important national sport and attracted much

attention from both the royal court and the general public at one time during the Yi dynasty.

However, in the latter half of the Yi dynasty, the importance of Subak as a martial art began to decline due to negligence on the part of the royal court, which was constantly disturbed by strife between political factions. As a result, Subak was retained as nothing but a recreation for ordinary people.

In 1943, the Japanese Karate was first introduced into Korea and it enjoyed temporary popularity here until Korea was liberated in 1945.

But after the liberation from the 35-year Japanese rule, a number of Koreans who showed great interest in Taekwondo began trying to revitalize the traditional game of Taekwondo.

Thus, Taekwondo has grown as a unique Korean self-defense art for over 16 centuries. The increasing popularity of Taekwondo and the enthusiastic devotion by many people at last made Taekwondo one of the official events at the 43rd annual National Athletic Meet in 1962.

The popularity and enthusiasm are not only domestic but worldwide because of the dominating superiority of Taekwondo over any other kind of self-defense art in the world.

태권도는

나의 등불



韓國水原開發公社
錦江流域開發事務長

李公柱

내가 태권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동기는 대강 다음과 같다.

독립투사가 되려고 사범학교를 중퇴하고 일본·동경으로 건너갔던 17세 때의 정열, 큰 뜻을 품고 미국에 유학갔던 31세 때의 포부, 대실업가가 되겠다고 세계를 일주하면서 대기업(大企業)들을 순방했던 34세 때의 야망, 이와같은 패기(霸氣)를 갖고 한동안 잘 되어가던 사업이 37세되던 해에 돌지에 몰락하고 말았다. 이때 나는 이 욕(辱)된 현실을 몸시도 저주하였고 그후 7년간 낭인생활(浪人生活)을 계속하다가 이 좌절감을 해소하고 재기를 다짐하는 의미에서 종교나 무도 중 어느 하나만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몇일 곰곰히 생각한 끝에 태권도를 택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대충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그 첫째는 태권도 수련을 통하여 노익장(老益壯)하고 불로장생(不老長生)하여 50명생에 이루지 못한 청운(靑雲)의 뜻을 50후에는 꼭 이루고야 말겠다는 굳은 신념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며,

그 두째는 50 이후의 대기만성(大器晩成) 하는 동안의 수많은 크고 작은 난관(難關)들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강인한 체력과 불요불굴(不撓不屈)의 정신력을 갖고 싶었던 까닭이며,

그 셋째는 지정학적(地政學的)으로 늘 난세(亂世)를 면치 못하는 우리 민족으로서 장차 여하한 사회혼란의 상황하에서도 최소한 자기몸 하나만이라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호신술(護身術)을 모통(道通)해 둘 필요가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4년전 여름 어느날 집 근처의 전통동 도장에 들러 입관수속을 마치고 처음부터 일반 청소년들 틈에 끼어서 수련을 하였는데 늘 개구장이들의 웃음거리가 되긴 했지만 뜻한바 있었기에 규율있는 수련을 일관해 나갔다. 90분간의 운동은 나에게서는 정말 파로였기는 하였으나 기본동작과 형을 틀리지 않게 하는데 전 신경을 집중한 나머지 파로같은 것은 그리 문제되지도 않았다. 도장에서 수련이 끝나면 곧 그 자리에서 복습을 위한 필기를 해두었다가 다음날 도장시간까지 이 필기를 참고해 가면서 철저한 복습을 하였다. 그리고 나면 다음날 도장시간은 마치 방학이 되어 고향에 돌아가는 즐거움과도 같이 기다려 졌다. 머리 속에 도사리고 있던 패배의식과 좌절감도 차차 사라져가는 것만 같았다. 한달 후에 7급으로 특진되었을 때는 새 인생의 첫 관문을 통과한 기분이었다. 다음 달부터는 더 잘 해 보려고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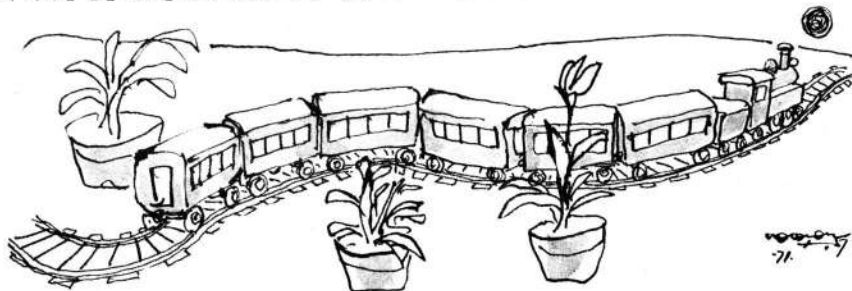
20세 전후에 점도, 유도, 육상 장거리 등을 소문나게 한 일이 있는 나였지만 20여년간이나 놀아먹은

너의 위치를 정하고 세계를 움직여라. <괴테>



몸이라서 말을 잘 듣지가 않았다. 특히 상단차기나 뛰어차기 같은 기본동작은 영 되지 않았다. 그럴 때면 소경, 커머거리, 병어리의 삼중불구(三重不具)의 몸으로 대교육가, 연설가되던 미국의 헬렌·켈라 여사의 그 피눈물나는 노력을 연상하면서 맹수련을 쌓았던 것이다. 몸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고 족기(足技)도 많이 향상되었다. 이리하여 6급에 승진, 청띠를 두르게 되어 새 인생의 제 2 판문을 통과한 것이다. 6급에서 5급, 4급을 거쳐 3급 홍띠로 승진될 때까지는 몹시도 추운 겨울이었는데 인생의 성배(成敗)를 걸고 하는 수련이라 냉방도장인데도 전신에서 흐르는 땀은 도복을 흠뻑 적시고도 남았고, 숨도 몹시 가뻤다. 이럴 때면 창가에 가서 찬바람을 마시곤 했다. 도복은 모두 네 벌을 준비해 가지고 매일 세탁하여 깨끗하게 갈아 입었다. 수련이 끝나면 바로 그 곳에서 냉수욕을 하였는데 불덩이 같이 열린 몸에 차디찬 물을 끼얹을 때의 쾌감은 정말 잊을 수

여 매일 치료해 가면서 수련을 강행했다. 그 후 2개월 만에 또 열구리 정광을 정통으로 채었다. 갈비가 부러지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다. 그 다음날부터 온몸이 오한기가 있고 해서 도저히 도장에 나갈 수가 없는 형편이었으나, 하늘이 주신 시련이라 생각하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도장에 나가 수련을 계속하였는데 2주일 후에는 또 다른 쪽 열구리를 채었다. 이러다가는 전신이 온통 박살이 날 것만 같았으나, 이 고통을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태권도 정신이라 생각하고 파스 정도로 부치고 수련을 강행하니 2개월 만에 거뜬히 나아 버렸다. 죽기 아니면 살기라 마음 먹으니 만사 형통이었다. 이 때부터 적의 여하한 공격에도 내 몸을 완전히 방어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내가 유단자끼리의 대련에 있어서 상대의 기술제어로 내 몸을 거의 완전히 방어할 수 있는 특기는 이 때 채득한 것이다. 이리하여 1년후에 협회 승단심사에서 초단에 승진되었



없다. 그러나, 운동 과로로 밤이면 불편증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였다. 이것도 내 인생의 또 하나의 장애물이라 생각하니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심리학상의 자기암시법(自己暗示法)을 응용하여 과로에서 온 피로 현상을 체력의 증진 현상으로 자기암시함으로써 불편증은 완전히 퇴치되었고, 잠도 더 잘 오게 되어 건강 상태는 점점 더 좋아만 갔다. 어느덧 봄이 되어 3급으로 승진되어 홍띠를 두르게 되었다. 새 인생의 제 3 판문을 통과한 것이다. 2급 1급을 거쳐 초단에 승진될 때까지의 이 홍띠 수련기간은 나의 새로운 인생 개발에 있어서 적성검사(適性檢査) 기간이기도 했다. 하루는 수련중에 안면 급소인 관자노리를 무참히 채었는데 이 순간 호흡도 정지되고, 코에서는 피가 낭자하게 흘렀다. 한참 동안을 나는 중단된 호흡을 회복하려고 필사적인 몸짓을 하였다. 다행히 주위에 있던 수련생들의 도움으로 응급치료를 받고 하루밤 자고나니 안면 눈 언저리가 온통 멍들고 말았다. 그럴 수록 용기 백배하

다. 나의 새 인생의 제 4 판문을 통과한 것이다.

나는 나의 새 인생을 이토록 힘차게 이끌어 주는 태권도의 마력(魔力)과 진가를 재인식하고 말, 아들 둘도 곧 입관시켰다. 그래서 우리집은 태권도인구가 모두 5명이 되었고, 나머지 식구들도 태권도 만만세를 부르게 되었다. 아이들도 각각 도복을 두벌씩 갖고 있었으며 내 것까지 합치면 우리집에는 도복이 모두 12벌이었는데 집 식구들은 매일 이 도복들을 세탁 해대야 했다. 이웃사람들도 처음과는 달리 차차 태권도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했던지 우리를 따라 도장에 나오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아 졌다. 동네에서는 우리집을 태권도 가족이라 불렀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나는 대전으로 전근되었다. 서울에서는 저녁 시간에 수련했는데 대전에 와서는 직장일이 저녁 늦게 끝나는 관계로 부득불 아침 시간에 수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또 다시 입관 수속을 밟았다. 이 도장에는 담뱃, 바벨, 상체대, 하체대, 활차, 본근대, 철봉, 평행봉 등 각종 기체체력을 위한 운동

키구와 욕장이 완비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월남전선 등에서 실전경험이 많고 새로 개발된 특기를 가진 사범들이 많아서 더욱 더 운동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또 성인부에는 이 지방 유지들을 비롯하여 판검사, 의사, 회사원, 일반공무원 등 각계 각종 사람들이 다수 참가하고 있었다. 이들은 각각 자발적으로 뜻을 세워 태권도수련을 결심한 분들이라, 매일 아침 이들과 더불어 수련하는 시간은 마냥 즐겁기만 했고 게다가 이 분들과는 죽마지우 처럼 절친한 사이가 되었다. 가끔 날씨 좋은 일요일을 택해서 우리들은 산이나 강으로 가서 모두가 도복으로 갈아 입고 시범수련도 하고 또 한잔씩 열근히 하고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기르는 기회도 가지곤 했다.

한때 기둥이 고두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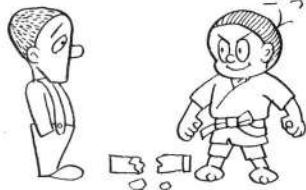


작년 이른 봄에 서울에서 있는 협회승단 심사에서 나는 2단에 승진되어 새 인생의 제 5관문을 통과하였고 아이들은 전부 협회초단에 승진되었다. 금년에 들어 딸 둘은 2단에 승진되었고 아들 두 놈은 2단보에 승진되었다. 지금도 나는 대전에서, 아이들은 서울에서 초지일관 열심히 수련을 계속하고 있다. 수련중단은 나에게서는 죽음과 같은 것을 의미하므로 천수(天壽)가 다할 때까지 나는 태권도를 계속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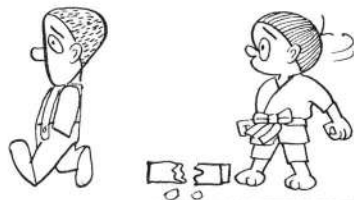
손 아프지?

아니

크덕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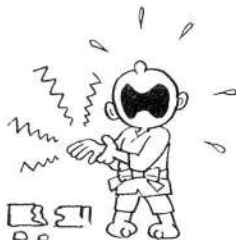


요컨대, 인생의 궁극의 목적은 행복하게 살자는 것인데, 이 행복한 인생을 쟁취(爭取)하려면 그 때 그 때의 여러 난관들을 모조리 극복할 수 있는 무서운 무기로서의 체력과 정신력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태권도장은 바로 이 무기를 생산하는 공장이다. 또 한 그릇에 물을 담으면 다 새버리 듯이 허약한 몸이 희망이나, 결심이나, 혹은 패기를 간직할 수는 없다. 태권도를 배우게 되면 우선 몸이 강인해 질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침착해져서 급기야는 신념의 마술을 갖게 되고 또 남이 나를 대할 때 마다 호락 호락 업신여기는 일도 없게 된다. 때문에 나의 소신과 주장을 무난히 피력(披歷), 관철(貫徹)해 나갈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서는 매사에 내가 원하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 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이고 끝내는 성공해서 행복한 인생을 쟁취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의 태권도관(跆拳道觀)이다.



우리는 시간이 미치는 대로 도장에 나가서 즐겁게 배우고, 연구하고, 수련을 해서 종신토록 인생을 보장할 수 있는 체력과 정신력과 호신술을 갖고 있어야 한다.

무술을 닦는 것은 물론 나라를 위함이나, 그러나, 그렇게 크게 생각할 것까지는 없다고 본다. 바로 우리 개개인의 생사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면 틀림없다. 닦으면 살고 안 닦으면 죽는다.



예의 규범의 실천 방안



이 성 호

孔子는 일찍이 子路에게 政治의 要諦는 正言이라고 하였다.

言文이 一致한다면 正言 即 正文 ↔ 政이 되지 않는다!
가!

正言이 아니면 禮가 서지 않고, 禮가 서지 않으면 型이 行하지 않고, 型이 行하지 않으면 秩序가 敗하고 마느니 어찌 正言하지 않으리오 하였다.

이 말을 다시 풀이하면 政治란 바른 말과 바른 글이라는 뜻으로 政字가 된다는 것이며, 바른 말이 아니면 규율에 즉 禮가 서지 않고, 規律를 잡아 나가는 처벌이 없으면 秩序가 잡히지 않으니 어찌 바른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뜻이다.

대한태권도협회도 바르게 다스리고 바른 規律를 잡고, 바른 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1971년 5월에 예의규범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 규범이 각 태권도 도장이나 태권도 수련자들이 지도자들에 의해서 제대로 실천되었느냐가 의심스럽다.

필자가 알기에는 아직도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으며, 또 실천할 엄두도 못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무슨 法이든 국민이 지켜 나갈 줄 알아야 그 法의 존엄성이 있는 것이지 법을 무시하고, 개인이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한다면 질서는 파괴되고, 나라는 혼란에 빠지고 마는 것이다.

하나의 예로 내가 내 마음대로 서울에서 가장 복잡한 울지로 입구 네거리에다 판자집을 지어 놓고 산다고 하면 삼시간에 전 서울 시내 교통은 혼잡과 마비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사람의 지나친 행동이 서울 五백만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교통수단을 위협하게 되는 것이다.

모름지기 이러한 일은 꿈에도 생각하지 말아야 하

고, 또 그렇게 된다는 상상조차도 말아야 하겠다.

한 나라의 국력을 과시할 수 있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軍隊規律이 엄격하여야 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국같이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나라는 다시 없다고 보겠다.

그러나 미국의 군대는 강대국으로서 손색없이 군대규율이 엄격하다.

또 군대의 규율이 엄격하여야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이다.

잠만 우리나라 사관학교 생도들의 생활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사관학교 학생들의 일거일동은 마치 기계가 움직이는 것처럼 절도가 있고 기민하다.

어떻게 보면 자유 민주국가의 인간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까지 한다.

언젠가 T.V 방송에서 사관학교 생도들의 밥먹는 이 야기가 나왔다. 생도들은 밥을 먹는때도 절도있게 밥숟가락을 입에다 가져다 놓는 것이 마치 하나, 둘 구령에 맞추어 먹는것 같더라.

그렇다, 사실 군인은 기율 속에서 살고 기율 속에서 죽는다는 아름다운 신념을 지니고 있다.

그러기에 기율 속에서 발달한 젊음을 자랑할 수도 있고, 생명까지도 아쉬움 없이 바칠 수 있는 것이다.

한 가정에 있어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 집안의 가풍이 어떻게 지켜지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화목과 행복이 판가름 나는 것이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식들은 자식들 대로 서로가 제 멋대로 산다면 그 가정은 한시도 의견이 접권될 리가 없고 화목과 애정과 행복을 찾아 볼 수가 없게 된다.

나 하나를 떠나 두사람만 모여도 그것은 벌써 공

동체이다.

공동체는 곧 조직이다. 조직은 기술과 질서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어떠한 나라이던 질서와 규율을 지키는 나라는 번영과 희망이 있다고 볼 수가 있다.

개인도 사회규범(社會規範)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인격과 인품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이다.

한 가정에서도 기풍과 가도(家道)를 잘 지켜 나가는 가정만이 훌륭한 가정인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규율과 질서, 예의와 믿음은 결코 독단이거나 독선을 띄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가 만든 예의규범을 실천해야 하고, 실천시켜야 할 의무와 책임과 사명감이 있다고 하겠다.

첫째 태권도인으로서의 특성을 갖기 위하여 예의를 지키는 태도도 남보다는 색 달라야 할 것이다.

인사할 때, 앉아서 대화할 때, 어디서나 무엇인가 상대에게 필요한 인상을 우리는 답답 안겨 주어야만 하지 않겠는가?

인간의 특성은 타고난 천성도 있었지만 매일 매일 습성화하는 행실이 중요한 것이다.

130만 태권도인은 한결같이 예의규범의 실천자가 되어야 하겠다.

지도사범은 매일 운동시간 전이나 운동시간 후에 단 5분간이라도 예의규범 실행을 강의 또는 실천에 옮겨야 한다.

어렵다고 엄두를 못내는 사범이나 수련자는 비단 이 예의규범의 실천 뿐만이 아니고 다른 면에서도 용기를 내지 못할 것이다.

용기를 갖는 자는 모든 일을 성취할 수 있고 최후의 승리가 된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이다.

도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또한 가정에서 우리는

서슴치 않고 예의규범을 실천해야 하겠다.

구체적인 실천방법의 내용을 다음에 제시해 보기로 한다.

※ <태권도>여름호의 “예의규범”을 참조하여 다음 예를 귀담아 주기 바란다.

1. 예의의 각도와 자세

도장에서 전 관원들에게 형을 지도하듯 각도와 자세를 반복시켜 올바르게 몸에 익히도록 한다.

2. 도장, 방, 마루에 앉았 있을 경우

사범은 관원들이 도장에 들어온 후 부터 앉은 자세에 주의깊게 관심을 두고, 계속 말로, 또는 자세를 바로잡게 가르쳐 습관화 시켜야 한다.

3. 복장 및 용모

도장에서나 외부에서 사범과 제자가 만났을 때나 동료간에 만났을 때 서로 상대방의 복장이나 용모, 즉 인상에 주의를 주어 서로 고쳐 가도록한다.

4. 도장에서

사범이나 선배 후배 순으로 꼭 지켜야 할 문제이다. 서로 주의깊게 꼭 실천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5. 의식과 자리 배정

관이나 협회에서 모든 행사의 사회 및 진행을 맡은 사람이 책임지고 이를 실천하여야 한다.

이상의 번호 제목외의 것은 수련자나 지도자 스스로 가정, 또는 사회에서 언제나 생활화할 수 있는 습성을 길러 하나 하나 차근차근히 실천한다면 우리들의 인격과 품위는 달라질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무엇인가 태권도를 수련하는 사람으로서 수련하지 않는 사람 보다 다른 점을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태권도인으로서 몇몇한 긍지와 보람을 이 예의규범을 실천하는 데서 찾아야만 하겠다.

「앉은 자리 선자리」

옛날, 한 머슴이 꺾꺾꺾 말을 타고 가다가, 역시 말을 타고 건드림 건드림 다가오는 주인과 마주쳤다.

머슴은 당황하며 그대로 꾸뻑 주인을 향해 머리를 숙였다. 그랬더니 주인양반 큰소리로 하는 말이 “이 버릇없는 놈, 양반 앞에서 말을 탄채 절하는 버릇을 어디서 배웠더냐?”

잠시 머뭇거리던 머슴은

“나리께서 땅에 게실 때 소인은 땅 속에 기여 들어 절을 해야 예절에 어긋나지가 않을 거 아니



졌읍니까요?”

주인은 할

말을 잃었다. 노여운

생각에 눈알을 부라

리고 씨근득 숨을 몰아쉬고 있을 뿐이다.

지나가던 선비 한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입속으로 “언대기를 “예법이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지 앉은 자리 선자리를 탓하다니, 교연놈이로군” 입맛을 췌뻔 다 시며 선비는 못 볼 것이나 본 듯 눈길줄 돌리면서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揭 示 板

**김운용 회장 대한체육회 이사(理事)로
선임되다 !**

전 대한체육회 회장 민관식 박사가 문교부장관으로 기용되어, 그 후임으로 김용우 대한보이스카우트연맹 총재가 취임되었다.

김용우 대한체육회 회장은 취임과 더불어 전 임원들께전, 본 협회 김운용 회장을 비롯 새로운 이사진용을 구성했다.

취임초부터 국민체육 진흥을 다짐하고 나선 김용우 대한체육회 회장과 보조를 맞추어 김운용 본협회 회장의 활약이 기대되는 바 크다.

**엄운규 부회장 대한체육회 대의원
으로 선임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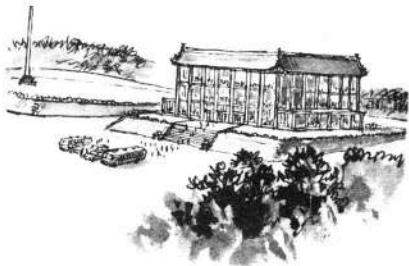
본협회 김운용회장이 대한체육회 이사로 선임되기 앞서 본협회 엄운규 부회장은 1972년까지의 대한체육회 대의원으로 선임되었다.

**김운용회장 국방부장관으로 부터
감사패 받다 !**



주월 태권도 교관단이 과전한 월남 청소년 태권도 선수단을 맞아 친선경기를 개최, 한국태권도의 참모습을 보여준데 대해 유재홍 국방부장관은 본협회 김운용회장에게 고마움의 뜻을 새긴 감사패를 전해 왔다.

마침내 중앙도장 건립 작업에 착수 !



본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중앙도장 건립 설계도가 서울대학교 교수 이 광보씨에게 위촉되어 완성 단계에 있다.

그리고 설계도의 완성과 더불어 130만 태권도인이 바라던 웅장한 중앙도장의 건립 작업이 드디어 착수될 것이다.

홍중수 전무이사 무덕관장으로 취임!



전 무덕관장 이 강익씨의 후임으로 본협회 가입 단체인 무덕관 제3대 관장으로 본 협회 전무이사 홍중수씨가 새로이 관장에 취임했다.

드디어 越南에서

護具着用 對鍊을 試圖하다.

한국의 얼굴 월남에 심는데 한국 태권도는 전투 못지 않은 큰 몫을 담당했음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월남전선에서 궤승을 다짐하는 반공전선의 발판을 또한 한국 태권도가 닦아 놓았음도 부인할 수 없다.

월남 태권도 인구가 수십만에 달하고 또한 태권도의 실력이 세계 어느나라 못지 않은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월남에 한국태권도의 뿌리를 더욱 알차게 길러 나가려는 한국태권도 교관단의 노력은 줄기차게 계속되고 있다.

그 좋은 실례로 현지 태권도 교관단에 새로 부임한 김승규중령은 본 협회 엄윤구부회장 앞으로 월남에 호구대련을 보급시킬 계획을 알려왔다.

그리고 앞으로 서울과 싸이공에서 호구대련으로 한·월 친선경기 개최를 계획해 온 것이다.

이에 대해 본협회에서는 이 제의에 원천적으로 동의하는 한편 호구대련 보급을 위한 적극적인 원조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태권도 분규 수습위와 실행위 해체!

태권도계의 분규를 수습하기 위해 구성되었던 태권도 분규수습위원회와 실행위원회가 지난 9월 22일 대한 태권도협회와 국제 태권도연맹측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해체키로 결정했다.

이중우씨 사회교육위원과 문교부 체육교과과정 심의위원이 되다!



본지 편집위원장이 이중우씨는 국민체육진흥의 일익을 담당할 대한체육회 사회교육위원으로 위촉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교체육의 보다 나은 내일을 기약하기 위한 심의기구인 문교부 체육교과과정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었다.

기술훈립에 강경책!

본협회에서는 전국체육대회 기간중 경기장에서 폭언과 욕설로 사도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고 사사건건 이유없는 항의를 일삼아 경기 진행상 물의를 일으키고 지장을 초래케 한 경기도 박길준(송무관 소속)과 충남 정업(무덕관 소속)을 제명했다.

그리고 무덕관 소속 이강익의 5명에 대한 본회 산하 무덕관에서 1971년 10월 14일자로 제명 통고할 해와 협회는 긴급 상임이사회를 소집 제명을 결의했다.

제명자명단

이 강익 (전 무덕관 관장)
임 명순 (전 충남 본관장)
이 익천 (부산직할시 본관장)
이 천형 (미군 관계 책임자)
정 성현 (")
김 봉기 (")

해외 태권도 사범 추천 현황

1971. 9. 1. 1971. 10. 30.

번호	사범명	과연명	기간	목적	추천처	추천일자	출발일자
1	김영익	가나	1년	태권도지도자보급과	체육회	71.9.9	71.10.30
2	정성봉	홍콩	"	"	태권도협회	71.9.15	71.11.10
3	이영현	"	"	"	"	"	"
4	정진용	"	"	"	"	"	"
5	이종호	"	"	"	"	"	"
6	안대성	에라소트	"	"	"	71.9.21	71.11.30
7	남재우	미국	6개월	태권도시범과	"	"	"
8	한준화	"	"	태권도지도자보급및심화	"	71.10.31	71.4.30

非 跆拳道人 이 보는 跆拳道

〈設 問〉

- 1) 跆拳道 競技를 본 적이 있는가?
- 2) 다른 競技와의 差異點
- 3) 跆拳道의 國際進出에 對한 意見
- 4) 跆拳道가 靑少年 善導에 미치는 影響
- 5) 跆拳道 育成에 對한 貴下의 意見

郭 培 仁 (『明朗』誌 編輯長)



1. 全國體典에서의 競技와 우연한 機會로 外國人 競技를 본 적이 있습니다.
2. 맹렬한 금소공격에 두려움이 생기더군요. 競技時間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3. 지금 잘 되어가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요.
4. 우선 건강에 좋겠고 自信感을 갖게 되어 迫力있는 生活態度를 갖게 되리라 봅니다.
5. 跆拳道誌를 보니 意外로 跆拳道修練生들이 禮儀規範에 注重하고 있더군요.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韓 庇 泰 (外科醫, 柔道人)



1. 여러번 봤습니다.
2. 같은 種類의 다른 競技에 비해 아주 優秀한 護身技라고 생각됩니다.
3. 跆拳道와 柔道는 함께 西洋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國家補助가 있었으면 합니다.
4. 跆拳道는 護身術뿐만 아니라 人格陶冶에 그 뜻을 두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靑少年들에게 좋은 影響을 주리라고 믿어 집니다.
5. 먼저 跆拳道界의 名実 共한 統合이 이루어져 劃一的으로 保護 育成해야 할 것입니다.

李 采 英 (嶺南化學課長)



1. 국내에선 한 번도 없고 외국에서 보았을 겁니다.
2. 말 할 필요도 없이 아주 우수한 것이 태권도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3. 외국에 가 보면 누구나 느껴졌지만 태권도는 국위선양 정도가 아니라 차라리 집콕타 할 정도로 한국의 얼굴을 외국에 심고 있습니다. 국가의 적극 지원이 있으면 더 발달 것이 없겠지요.
4. 태권도가 주는 자신감은 약자에 대해 관대한 보호심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청소년들에게는 더 없는 인격형성의 길이겠지요.
5. 역시 국가의 보조가 태권도 특성엔 없어선 안 될 필수요건입니다. 국내 뿐 아니라 국외에서의 태권도에도 적극 지원이 있을 수 있다면 외교적으로도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楊 森 (日刊『스포츠』記者)



1. 勿論이다. 跆拳道는 身體鍛鍊에 가장 좋은 『스포츠』이며 오랜 修練을 통해 精神의인 修養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武道라고 생각한다.
2. 跆拳道는 柔道, 柔身, 柔術등과 같이 個人間技競技이지만 특히 柔道와 함께 身體鍛鍊은 勿論, 하나의 道로서 精神의인 修養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본다.
3. 이미 跆拳道가 世界的으로 活發히 普及되고 있지만 보다 큰 效果를 거두기 위해서는 招請競技 等を 活發히 벌이는 한 便, 처음 開拓하는 地域에 對해서는 跆拳道服, 護具等을 補助해 주는 方法도 생각할 수 있다.
4. 자칫하면 일 길로 새기 쉬운 靑少年들의 善導에 跆拳道의 役割은 아주 크다. 靑少年들의 몸을 鍛鍊하고 跆拳道 本來의 目的을 注入시킴으로써 을 바르게 引導할 수가 있다.
5. 跆拳道는 이제 國技로써 世界的으로 脚光을 받고 있다. 跆拳道宗主國으로서의 威信 等 모든 면에서 더욱 發展을 期해야 할 것이다.

沈 春 淑 (女大生)



1. 映画館에 갔다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跆拳道하면 무서운 생각이 들더군요.
2. 잘 모르겠습니다. 기와를 깨고 벽을이나 나무도막을 거침없이 부수는 기술엔 질렸습니다.
3. 먼 촌 오빠가 지금 외국에서 태권도 도장을 하고 있는데 인기가 대단하네요. 신문을 보니 파워 넘게 세게도 뺨이 가고 있더라고요.
4. 글쎄요. 跆拳道를 하는 學生들을 보면 健康하고 또 誠實해 보여요.
5. 잘 모르겠지만 관자집 같은데 도장이라 써 붙이고, 또 더럽고 지저분한 환경을 가진 도장을 보면 저런 곳에서 어떻게 세계적인 무예가 수련될까 하고 의아스럽더군요.

朴 孝 春 (女高生)



1. 몇 번 있습니다.
2. 민첩한 동작이나 다양한 동작의 변화는 타 경기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3. 더욱 더 활발한 움직임으로 세계의 모든 인종을 태권도 가족으로 만들었으면...
4.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자신과 절제의 미덕을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5. 태권도는 정말 자랑스런 선조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태권도를 익히기 위해 어렸을 때부터, 말하자면 국민학교에 부터 친해학생에게 의무적으로 태권도를 가르친다면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태권도 피식

TAE KWON DO ILLUSTRATED

담당 · 이 종 우



.....

기본 동작은 이번호로서 마지막이 된다.

.....

이번호의 특색은 사진을 넣지 않고 그림으로 전부 넣었다.

.....

독자 여러분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

앞으로 나올 다음호(겨울호)에는 형(型)을 게재할 예정이나 협회에서는 그동안 한국고유의 태권에 대한 연구를 거듭한 결과 몇가지의 기본 자세와 형의 진행선을 약간 고치지 않을 수 없어 다음호에 신게 되는 형은 현재 까지 전국에서 지도하고 있는 것과 차질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

.....

그러나 큰 개조(改造)가 아니고 약간의 고침만 있으니 안심하기 바라며 아울러 현재 통일된 용어(用語)에 있어서도 몇가지가 고쳐 질 것을 미리 알려 드리는 바다.

.....



(1) 차렷 서기

- ㉠ 차렷 서기의 몸은 부동자세로 하고 고개는 반듯이 정면을 본다.
 - ㉡ 팔은 양 허벅다리 밖으로 곧게 내린다.
 - ㉢ 내린 팔의 주먹은 도복 바지 옆 재봉으로 이은 줄에 붙인다.
 - ㉣ 발은 뒤축을 붙이고 앞뾰리는 반발 정도로 벌린다.
 - * 반발은 발 기장에 반을 말한다.
- 발과 걸음은 (1보...거리, 나아가는 거리) 구분을 명심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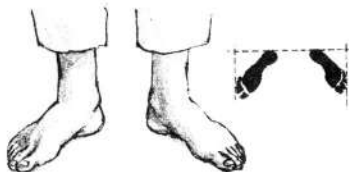


(2) 모아 서기

차렷 서기와 같으며 발 앞뾰리를 안 쪽으로 모아 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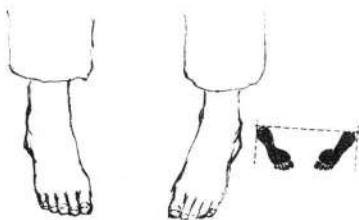
(3) 팔자 서기

- ㉠ 발 뒤축의 거리는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벌린다.
- ㉡ 발 앞뾰리는 한발 거리로 벌린다.



(4) 안짱 서기

- ㉠ 팔자 서기의 반대 동작.
- ㉡ 무릎을 약간 구부리는 듯 하면서 힘을 무릎에 지긋히 넣는다.



(5) 꼬아 서기

- ㉠ 오른발을 왼발 밖으로 넘겨 놓으면 무릎있는 부분이 자연이 꼬아진다.
- ㉡ 왼발이 오른발 쪽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 ㉢ 힘을 할 때 발끝 (경덩이) 을 뒤로 빼며 꼬아서는 동작도 있다.
- ㉣ 반대 발쪽으로 넘어간 발의 뒤축이 약간 들려야 한다.



(6) 주춤 서기

- ㄱ 발은 어깨 넓이로 벌린다. 발 앞뿌리를 약간 벌린다.
- ㄴ 무릎을 구부리고 발끝을 내려앉혀 의자에 앉은 듯이 한다.
- ㄷ 윗 몸통을 곧게 세우고 가슴을 편다.



(7) 무릎 서기 (기마 서기)

- ㄱ 주춤 서기와 모두 같으며 다음의 것만 틀린다.
- ㄴ 발 앞뿌리와 뒤축이 직선이 된다.
- ㄷ 무릎을 안으로 힘주어 오무린다.
- ㄹ 말 위에 타고 다리로 말 등을 깨안듯이 하면 된다.





(8) 앞 굽혀커

- ㉠ 뒷발 뒤쪽에서 앞발 뒤쪽까지 세발 길이의 거리를 둔다.
- ㉡ 뒷다리는 곧게 뻗치고 앞다리는 무릎을 구부린다.
- ㉢ 한 걸음씩 움직여 나아갈 때의 왼발과 오른 발의거리는 한발 기장을 넘지 않는다.
- ㉣ 걸음을 움직일 때 마다 뒷다리와 앞다리는 뻗치고 (뒷다리), 구부리고 (앞다리)는 변화가 없다.

(9) 뒤 굽히기

- ㉠ 뒷발 뒤쪽에서 앞발 뒤쪽까지 두발 반의 거리를 둔다.
- ㉡ 뒷발 뒤쪽에서 직선으로 앞발을 약간 뻗어 나아간다.
- ㉢ 뒷발을 앞발과 90도 각으로 하고 무릎을 구부린다.
- ㉣ 방향을 내려 앉히고 뒷발 쪽에서 앞으로 보아 주춤서기와 같다.





(10) 외발 서기 (일명 : 학다리 서기)

- ㉠ 바닥에 한발을 붙이고 들어올린 발을 서 있는 발의 무릎안에 붙인다.
- ㉡ 서 있는 발은 무릎을 약간 구부린다.
- ㉢ 한 발로 중심을 잡아야 한다.



(11) 고양이 서기

- ㉠ 뒷발을 45도 각도로 놓고 앞발을 한발반 나이가 직선으로 놓는다.
- ㉡ 뒷발은 무릎을 구부리고 발끝을 뒤로 힘주어 뻗는다. (의자에 앉은 듯) 모든 중심을 뒷발에만 준다.
- ㉢ 앞발 뒤축을 주먹하나 들어갈 정도로 바닥에서 든다. 앞발은 힘을 뻗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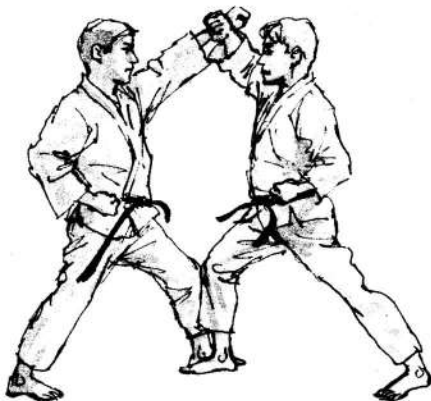
(12) 상체 막기

- ㉠ 첫힌 주먹이 얼굴 왼쪽을 향해 올리며 머리까지 올라간 주먹을 절도있게 멈추면서 팔의 관절을 통겨 주먹 바닥이 밖을 향하도록 돌린다.

- ㉡ 위의 설명대로 하면 컷 1, 2와 같은 동작이 되나 컷 1의 동작으로 연결해야 한다.

- ㉢ 왼손은 오른 손과 같이 변화 교체되며, 주먹 공격 또는 흉기를 막는데 쓰인다.

- ㉣ 상대 주먹을 막는 부분은 팔뚝 바깥 뼈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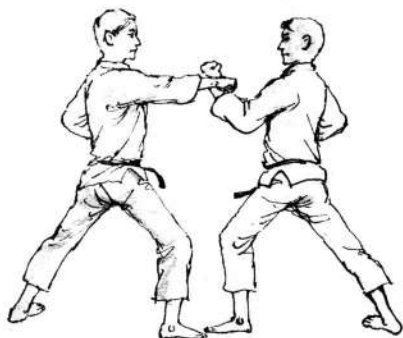


태권도의 모든 동작에 있어 주먹의 위치는 양 허리에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시작되며, 공격이나 방어에 있어서는 바른 손부터임을 기억하여야 한다.



(13) 중체 막기

- ① 주먹이 반대쪽 허리로 팔 길이 만큼 모두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 나오며 안쪽 팔목으로 막는다.
- ② 팔의 각도는 안으로 120도가 되며 팔꿈치와 옆 늑골 사이는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된다.
- ③ 주먹은 어깨 높이와 비슷하여야 하며 어깨보다 더 높으면 안 된다.
- ④ 주먹, 발 공격을 막는데 쓰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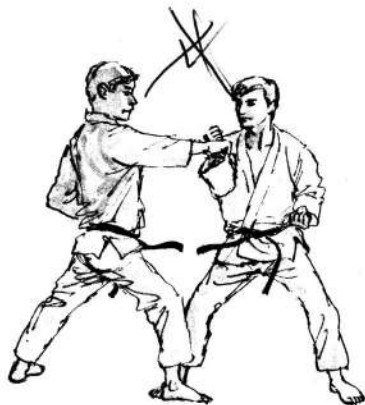
14 하체 막기

- ㄱ 막는 주먹을 반대쪽 어깨까지 올렸다가 원을 그으며 주먹이 올라간 다리의 반대 무릎 위까지 내려 친다.
- ㄴ 무릎에서 주먹의 높이는 주먹 둘을 포개 놓은 정도의 간격을 둔다.
- ㄷ 주먹을 반대 편 어깨쪽으로 올릴 때는 주먹 바닥을 안쪽으로 하고, 내려칠 때는 엮은 주먹이 된다.
- ㄹ 상대의 발 또는 주먹 막기에 쓰인다. 막는 부분은 바깥쪽 팔뚝이 된다.



(15) 옆 막기

- ㉠ 자세는 주춤 서기 또는 무릎 서기로 한다.
- ㉡ 몸을 옆으로 하고 중제막기, 또는 이와 반대로 주먹이나 장칼로 쳐 넣는 동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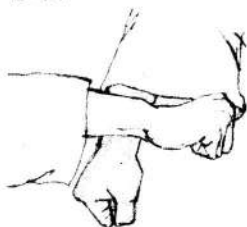
(16) 산돌 막기

- ㉠ 하체의 자세는 주춤 서기, 또는 무릎 서기로 한다.
- ㉡ 양 팔을 컷과 같이 한다.
- ㉢ 하나 하나 동작을 할 때 팔목으로 막으며 힘 주어 통겨준다.



(17) 팔목 막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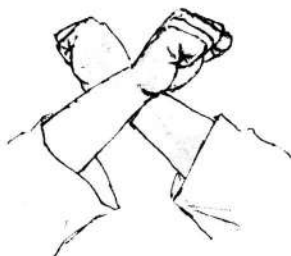
안 막기



앞 막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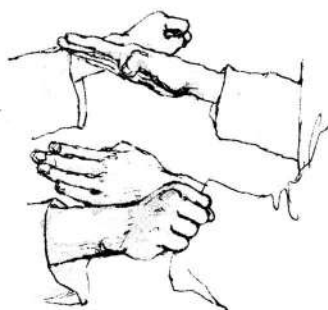
올려 막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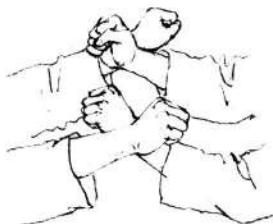
바깥 막기



쌍장칼 막기



헤쳐 막기



밀어 막기



눌러 막기



국립태권도연맹
총재

태권도진흥재단
회장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이것이

眞相이다

跆拳道 紛叫收拾의 内幕

태권도의 분규는 끝이 없는 것으로 국내외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 태권도의 분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태권도의 종주국은 한국이다. 그리고 이제 한국 태권도가 세계정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태권도인 자신들은 이 정상의 영예를 계속 지키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파생된 파열 현상이라고 분규 자체를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국내외에서 알고 있는 국제(국제 태권도연맹약칭)와 태협(대한태권도협회약칭) 간에 서로 주장하고 또한 양자간에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확실히 알리고자 한다.

첫째 문제점은 최홍희씨가 문교부로부터 체육상(연구부문)수상자 대상으로 올랐던 문제와 두째로 CISM(국제군인 체육위원회)총회에 태권도에 관한 자료 제출로 인한 의견 대립이다.

이때 형(型)의 통일성, 경기규정에 관한 문제점, 체급구분(體級區分)관계등이 문제가 되었다.

첫째 문제인 최 홍희씨가 문교부로부터 체육상 연구분야의 해당자로 대상이 됐던 것은 연구논문으로 간주된 그의 태권도교본이었다.

그러나 태협측은 이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최홍희씨가 저술한 태권도교본이 새로운 기술면의 개발과 이론을 근거로 한 연구가 아니고, 일본사람들이 발행한 서적에서 표절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리고 이러한 무가치한 저서가 체육 연구상이란 국가적 대상을 받게 된다면 전세계 태권도인들의 조소와 빈축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로 말미암아 <태권 한국>의 체면과 위신을

떨어뜨리게 됨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해서 태협측은 심지어 실력행사까지도 전개하여 이의 저지를 계획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태권도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태권도가 저된 정신, 그 가치성이 손상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과 문교부나 대한체육회의 간곡한 만류도 있고 해서 실력행사만은 중지했던 것이다.

두째 문제는 CISM(국제 군인체육위원회) 총회에 제출할 내용에 있어서도 국방부로 하여금 단독안을 제출하기로 하고, 국제측 최 홍희씨와 태협측의 김용재(당시 회장)씨가 불만서 파리 총회에 업저버로 참가하는 것으로 일단 매듭을 지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시시 비비로 신문, 방송에 자주 취급되어 졌었다.

이런 즈음해서 또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었다. 그것은 태협과 국제간에 해외 사범 파견에 대한 주도권 시비로 다시금 양자간의 문제는 가열되기 시작했

다.

태권도 분규 때문에 사회 전체가 소란스러울 정도였고, 태권도와 관계있는 사람은 물론 관심을 갖는 사람들까지도 이구동성으로 이 문제에 비상한 관심을 표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68년 9월 문교부와 대한체육회는 이 사태를 그냥 보아 넘길 수가 없었던지 마침내 태권도 분규수습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습에 착수하기 시작했었다.

분규수습위원회는 양측 대표들을 만나 서약서를 받고 이에 불응하면 여하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엄숙히 다짐한다는 내용이었다.

여기 양측에서 합의된 작서를 실기로한다.

#1 會議 覺 書

1. 本會에서는 태권도 團體의 紛糾을 圓滿히 收拾하기 爲하여 태권도 紛糾 收拾委員會를 構成하고 兩團體 代表들과 會同하여 1968年 9月20日 태권도 紛糾 收拾을 爲해 共同의 努力을 傾注할 것을 合意하고 또한 本 委員會에서 決議된 事項을 遵守하여 이에 順應할 것을 宣誓하였으며
2. 1968年 9月 24日 兩團體間의 同 問題 收拾을 爲한 意見書를 提出받아 이를 眞摯하게 檢討한 結果 國際聯盟은 他 競技團體의 國際聯盟 慣例에 따라 그 本然의 業務를 管掌하며 國內 協會는 本會 加盟 競技團體規約準則에 依據 國內業務를 管掌토록 그 業務限界를 明確히 함으로써 本 紛糾 收拾의 根本 指針으로 삼았으며 이에 對하여는 兩側代表도 이의 없음을 確認하였다.

1968年 12月 日

收拾委員會委員

兩 團 體 代 表

2 聲 明

本 태권도 紛糾 收拾 委員會는 오늘 會議에서 最終 收拾 方案을 決定지으려 하였으나 多幸히도 兩 團體間 스스로 收拾하려는 기운이 成熟하였음을 確認하였기에 오는 12月7日까지의 時限附로 圓滿한 收拾 方案을 마련하기로 決定하였다.

한편 本 委員會는 兩者間의 會議 事項에 對하여 全의으로 支援할 것을 아울러 約束하였다.

1968年 12月 4日

國際태권도聯盟

事務總長 한 헌 정

大韓태권도協會

會 長 김 용 채

성명 2에 대하여 자체 합의가 와해되고 말았다.
그후 다시 체육회 수습위원회에서 손을대기 시작하여 다음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3 合 意 書

1. 師範의 海外派遣業務는 大韓태권도協會 所管事項이나 당분간 태권도의 國際의 普及를 爲하여 大韓태권도協會 會長과 國際태권도 聯盟總裁가 協議하여 派遣키로 하고 이에 對한 覺書를 兩者間에 交換키로 한다.
2. 大韓태권도協會는 國內의 既存 17個 中央道場과 支館間의 系列를 없애기 爲하여 遲滯없이 地域別名稱으로 改稱토록 한다.
3. 國際태권도聯盟은 如何한 段證도 發給할 수 없으며 加盟國으로부터 4段 以上者에 對한 認准申請이 있을 境遇에 이를 認准하고 認准書를 發給할 수 있다.

但 大韓태권도協會에 對해서는 認准權限을 委任하고 4級 以上者에 對하여 國際聯盟에 登錄만을 시킨다.

1968年 12月 9日

國際태권도聯盟

事務總長 한 헌 정

大韓태권도協會

會 長 김 용 채

합의서 3에 대하여 1969년 9월 2일자로, 그러나 만 1년간 해외 사범 파견에 대한 권한을 매듭에서 완전 장악하기로 되었다.

(특) 합 의 서 사본

1968년 12월 9일부로 태권도 분규 수습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중 사범의 해외파견 조항은 양 단체의 불필요한 사무적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하여 1969년 9월 2일을 기하여 이를 무효로 한다.

앞으로 태권도 보급지도를 위하여 외국에서 한국 사범 지명 초청인에 대하여는 이를 가도록 추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서는 협회에서 처리하고 국제연맹에 보고한다.

1969年 9월 2일

국제태권도연맹

총재 최 홍 희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김 용 채

4 合 意 書

1969年 3月 7日 17:30 本會 收拾委員會는 兩團體 代表가 參席한 가운데 本 委員會가 提示한 方案에 對해서 兩團體는 全的으로 贊成 順從하며

型 問題에 있어서는

7人 專門 委員會에서 有級者型을 論議 決定하는 同時에 有段者型에 關해서는

9:6 (協會:聯盟)比率에 對해서 不合理한 點이 發見된다면 再檢討 決定하기로 한다.

1969年 3月 7日

國際태권도聯盟總裁 최 흥 희

大韓태권도協會會長 김 용 채

그리고 형의 통일에 대해서는 9대 6의 비율로 태협에서 3을 더 내기로 하였지만 태협은 이를 양보하여 5대 5의 비율로 결정하였다.

태협이 이렇게 양보한 까닭은 조속히 그리고 원만한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였다.

5 合 意 書

1. 有段者型은 12個, 有級者型은 10個로 定하되 有段者 및 有級者型 공히 聯盟과 協會 同率로 하며 具體的인 事項은 聯盟과 協會가 同率의 比率(2名씩)로 構成된 國際태권도聯盟 技術指導 委員會에서 다룬다.

2. 用語에 對해서도 上記한 技術指導委員會에서 論議 決定하되 여기에서 合意點을 找지 못한 事項에 對해서는 本 委員會에서 決定토록 한다.

1969年 4月 4日

國際태권도聯盟總裁 최 흥 희

大韓태권도協會會長 김 용 채

收拾專門委員會 委員長 김 중 열

합의서 5중 2항에 대하여 용어는 완전 통일되었음.

6 合 意 書

1. 體級은 10個로 区分할 것을 原則으로 하고 最下級을 48kg以下 最重量級은 90kg을 超過하는 것으로 하되 具體的인 事項은 技術指導委員會에서 다룬다.

다만 國內에서 少年部를 爲하여 別途로 区分하여 施行하는 境遇는 例外로 한다.

2. 호구問題는 國際聯盟內에 호구研究委員會를 常設하되 兩側이 同數로 推薦하는 人士로서 構成하며 大韓體育會 會長이 推薦하는 若干人의 人士를 包含한다.

國際태권도聯盟總裁 최 흥 희

大韓태권도協會會長 김 용 채

收拾專門委員會 委員長 김 중 열

이도 완전 합의 되었음.

合 議 書

1. 競技方法은 對鍊만으로 하되 採点內容에 있어 型을 基幹으로 하여 攻防하는 境遇에 한하여서만 採点한다.

2. 昇段 昇級 審査에 있어서는 형의 活用度를 最優先的으로 考慮하여 採点한다.

3. 採点(審判)規程은 技術指導 委員會에서 審議 決定하되 本委員會에서 必要하다고 要請할시는 大韓體育會會長이 推薦하는 體育人士 若干名을 參與시킬 수 있다.

4. 對鍊에 있어서는 K·O승을 認定하지 아니한다.

5. 余他의 事項에 對해서는 收拾委員會에서 合議 決定한 것에 따른다.

1969年 4月 16日

국제태권도연맹총재 최 흥 희

대한태권도협회회장 김 용 채

태권도 收拾 專門委員會 委員長 김 중 열

“ 委 員 김 수 정

“ “ 이 중 우

“ “ 김 영 택

8 覺 書

태권도 海外 師範 派遣에 있어서 大韓 태권도 協會의 業務所管이나 當分間 大韓태권도 協會會長과 國際 태권도 聯盟 總裁와의 合議하여 施行한다.

1969年 3월 20일

국제태권도연맹

총재 최 흥 희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김 용 채

이상 합의된 사항은 일체가 국내에서 사무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문제들이다.

그러나 국내측은 합의서 3의 2항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한편 태협은 이 문제에 대해 소홀히 다룰 수가 없는 문제임에도 용단을 내려 지역별 명칭을 나타낼 수 있는 간판까지 수백장 만들어 놓았으나 국내는 사무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문제도 처리하지 않고 있어 태협으로서는 이 문제들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국내는 여러가지 구실을 내세워 이의 실천을 기피하는 한편 발급해서는 안되기로 되어 있는 단증(段證)까지도 공공연히 발급하고, 국내 도장을 차릴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국제사범양성소를 차려 막대한 수습료를 징수한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으니, 대체 국내는 언제 합의된 내용을 이행할 것인지 남음이 가지 않는다.

아마도 국내는 태권도 분규수습이란 대의에 눌린 나머지 어물어물 작전을 펴고 있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

끝으로 바라고 싶은 것은 한마디로 나를 버리는 성신을 가졌으면 한다.

“나는 태권도의 아버지다.”

“나는 무슨 유과의 창시자다.” 하는 따위는 이 사회, 이 시대에서는 통용될 수도 없거니와 합리성도 있을수가 없고 또한 과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주장인가가 의심스럽다.

존경이란 자기가 자기를 알아 주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알아줄 때 비로소 그의 인격과 인품이 제 구실을 한다고 보겠다.

태권도는 입으로 또는 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랜 수련 경험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지난날 선조들이 쌓아 올린 역사적 근거를 어떻게 발굴하여서 앞으로의 발전을 어떻게 굳히 나가느냐도 중요한 태권도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사명감, 이것은 모든 태권도인들이 깊이 가슴에 새겨 놓고 있어야 할 과제이며 또한 일상불란한 목표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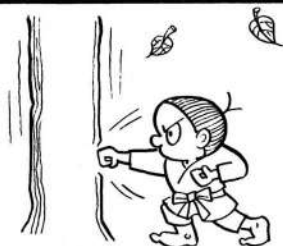
무도이건 스포츠이건 돈을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단증 한장에 몇 달라이다 하는 집착된 상술에 사로 잡혀서는 안될 것이다.

오직 태권도의 슬기로운 만이 국가와 민족을 자랑의 길로 이끄는 것임을 다짐한다.

국내와 태협은 한자리에 묶여 앉아 따뜻한 악수를 나눠주길 바란다.

한때 기둥이 고독현



형의 분석

형(型)이란 각 동작의 기본(基本)을 종합한 것이다.

연결된 기본 동작을 하나 하나 풀어 해쳐서 분석(分析)해 보기로 한다.

1개 형에 어떤 동작이 몇개 있으며, 어떤 자세가 몇개인가를 나누어 보는 것은 과학적인 힘의 안배(按配)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지도하는 사람이나 수련자가 쉽게 알 수 있게 풀고 또한 하나의 형에 근력운동(筋力運動)을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는가, 그리고 동작 하나 하나가 어떤 작용으로 체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급급적 상세히 분석하기로 한다.

모쪼록 초심자나 지도 사범에게 도움이 되어주길 바란다.

팔 괘 일 장 (八 卦 一 場)

구 분	동 작	앞굽히기	뒷굽히기	동작수
주 목	하체 막기	오른 편 2 왼 편 4		6
	중체 막기	오른 편 2 왼 편 2	오른 편 2 왼 편 2	8
	지 르 기	오른 편 2		2
상 팔	중체 막기		오른 편 1 왼 편 1	2
	목 치 기	오른 편 1 왼 편 1		2

(계 20개 동작)

위의 표를 보면

1. 막기

ㄱ 하체막기

앞굽히기로 오른쪽 2회, 왼쪽 2회.

ㄴ 중체막기

(1) 앞굽히기로 오른쪽 2회, 왼쪽 2회.

(2) 중체막기 뒷굽히기로 오른쪽 2회, 왼쪽 2회.

(3) 장팔 중체막기 뒷굽히기로 오른쪽 1회, 왼쪽 1회.

2. 공격

ㄱ 지르기

앞굽히기로 중체지르기 오른쪽 2회.

ㄴ 목치기

앞굽히기로 오른쪽 1회, 왼쪽 1회.

3. 자세

㉠ 앞굽히기 14회

㉡ 뒷굽히기 6회

이와 같이 20개 동작중 막기동작이 16회 인데 그 중 중체막기 동작이 10회로서 중체만을 막는데 많은 동작이 차지했다. 또한 오른쪽 보다 왼쪽으로 막는 동작이 2회나 많으며 지르기가 오른쪽으로 2회로 되어있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 습관을 그대로 감안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보편적으로 공격은 중체를 다른 부위보다 더 많이 받을 것이며 공격은 왼쪽보다 오른쪽으로 힘을 강하게 더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이 형은 방어(防禦)를 위주로한 형(型)이라 하겠다.

막기

㉠ 하체막기

하체를 막는데 필요한 근육의 발달과 작용은 다음과 같다.

- ㉠ 팔을 들어 올리면 어깨의 삼각근(三角筋)이 작용되며 발달된다.
- ㉡ 팔은 가슴앞쪽으로 당기면 가슴의 대흉근(大胸筋)이 작용되며 발달된다.
- ㉢ 팔을 가슴 앞쪽으로 가져가면 환배근(闊背筋)이 작용되며 발달된다.

- ④ 팔을 구부리며 들어 올리면 어깨에서 부터 팔꿈치까지의 상완굴근군(上腕屈筋群)이 작용되어 발달한다.
- ⑤ 팔을 반대편 어깨 앞으로 들어 올리면 어깨위 목까지의 승모근(僧帽筋)이 당겨지는 작용으로 발달된다.
- ⑥ 팔을 구부려 들어 올리면 팔꿈치가 구부러 짐으로 팔꿈치에서 손목까지의 전완굴근군이 작용되어 발달한다.
- ⑦ 팔을 들어 올리며 윗팔 부분을 들어 줌으로 팔의 회전근(廻轉筋)이 작용되어 발달한다.

내리 쳐 막기를 할 때

- ① 팔을 밑으로 내려치면 어깨의 삼각근이 작용되며 발달된다.
- ② 팔을 밑으로 내려치면 가슴의 대흉근이 작용되며 발달된다.
- ③ 팔을 밑으로 내려치면 겨드랑 밑 등쪽의 활배근이 작용되며 발달된다.
- ④ 팔을 밑으로 내려치면 어깨에서 팔꿈치까지의 상완굴근군이 작용되어 발달한다.
- ⑤ 팔을 밑으로 뻗어서 내려치면 팔꿈치를 뻗음으로 팔꿈치에서 손목까지 전완신근군(前腕伸筋群)이 작용하여 발달된다.
- ⑥ 팔을 밑으로 틀고 팔꿈치에서 손목까지의 회전근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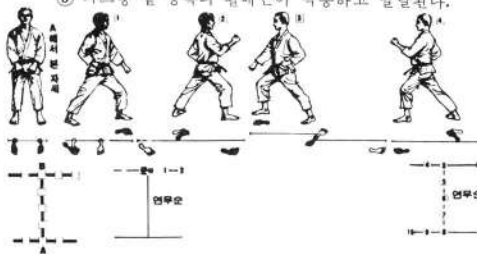
막기를 하지 않은 다른팔

앞으로 팔을 뻗어서 반대편 무릎위에 보낼 때

- ① 어깨의 삼각근이 작용되며 발달된다.
- ② 가슴의 대흉근이 작용되며 발달된다.
- ③ 겨드랑 밑 등쪽의 활배근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 ④ 어깨에서 팔꿈치까지의 상완신근군(上腕伸筋群)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팔을 당겨 허리의 띠에 주먹을 부칠 때

- ① 어깨의 삼각근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 ② 가슴의 대흉근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 ③ 겨드랑 밑 등쪽의 활배근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 ④ 어깨에서 팔꿈치까지의 상완신근군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 ⑤ 팔꿈치에서 손목까지의 전완굴근군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 ⑥ 팔꿈치에서 손목까지의 회전근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ㄴ 중체막기

중체막기를 하려면 우선 막으려고 하는 팔을 그 반대편 팔꿈치 앞으로 가져 간다.

반대편 팔꿈치 앞으로 팔을 가져 갈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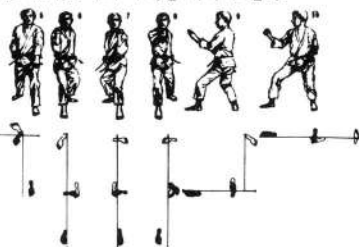
- ① 어깨위에서 목 뒷쪽의 승모근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 ② 어깨의 삼각근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 ③ 가슴의 대흉근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 ④ 겨드랑 밑 등쪽의 활배근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 ⑤ 어깨의 팔꿈치까지의 상완신근군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 ⑥ 팔꿈치에서 손목까지의 전완신근군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 ⑦ 팔꿈치에서 손목까지 전완신근군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 ⑧ 어깨에서 손목까지의 회전근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팔을 구부리고 옆으로 돌려 팔뚝으로 걸어막기를 하였을 때

- ① 어깨에서 목뒷쪽의 승모근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 ② 어깨의 삼각근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 ③ 가슴의 대흉근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 ④ 겨드랑 밑 등쪽의 활배근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 ⑤ 어깨에서 팔꿈치까지의 상완굴근군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 ⑥ 팔꿈치에서 손목까지의 전완굴근군이 작용하고 발달한다.
- ⑦ 어깨에서 손목까지의 회전근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공격

지르기기를 하려면 먼저 주먹을 쥐어야 한다.



주먹을 쥘 때

- ① 척측수근굴근(尺側手根屈筋)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 ② 요측수근굴근(桡側手根屈筋)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 ③ 장장근(長掌筋)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 ④ 단장근(短掌筋)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 ⑤ 배측골간근(背側骨間筋)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 ⑥ 장측수근인대(掌側手根靱帶)가 작용하고 발달된다.

주먹을 펼 때

- ① 척측수근신근(尺側手根伸筋)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 ② 총지신근(總指伸筋)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 ③ 고유소지신근(固有小指伸筋)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 ④ 장무지신근(長拇指伸筋)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 ⑤ 배측골간근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 ⑥ 장요측수근신근(長桡側手根伸筋)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 ⑦ 배측수근신근(背側手根伸筋)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① 지르기

지르기를 하기 위해 팔을 당겨 주먹을 허리의 띠(帶) 위에 대는 근육의 작용과 발달은 하체 막기를 할 때의 막기를 하지 않는 팔과 같다고 하겠다.

지르기를 하였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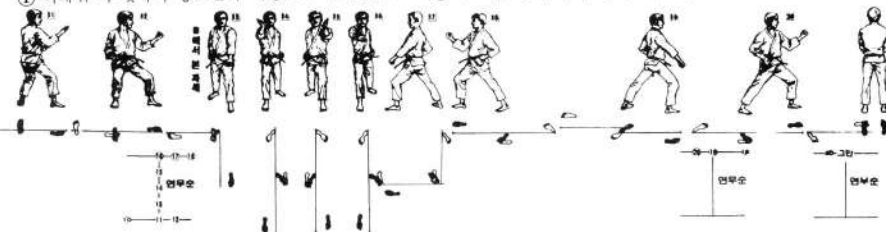
- ① 어깨의 목 뒷쪽의 승모근이 작용하며 발달된다.
- ② 어깨의 견갑근군(肩甲筋群)이 작용하며 발달된다.
- ③ 겨드랑 밑 등쪽의 환배근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 ④ 가슴의 대흉근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 ⑤ 어깨에서 팔꿈치까지의 상완신근군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 ⑥ 팔꿈치에서 손목까지의 전완신근군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 ⑦ 팔꿈치에서 주먹까지의 회전근이 작용, 발달된다.

㉔ 목치기

목치기는 편 손으로 장칼로 치는것을 말하는데 손을 쥘 때는 이미 주먹과 편 손에서 각각 근육의 작용과 발달을 상술(詳述)했으므로 목치기에서는 편 손에 대한 해설을 생략함.

목치기를 했을 때

- ① 어깨위 목 뒷쪽의 승모근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 ② 어깨의 견갑근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 ③ 가슴의 대흉근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 ④ 겨드랑 밑 등쪽의 환배근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 ⑤ 어깨에서 팔꿈치까지의 상완신근군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 ⑥ 팔꿈치에서 손목까지의 전완신근군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 ⑦ 팔꿈치에서 손목까지의 회전근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목치기를 하기 위해 팔을 들어 엮었을 때

- ① ② ③ ④ ⑦의 근육작용은 동일하고
- ⑤ 어깨에서 팔꿈치까지의 상완굴근군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 ⑥ 팔꿈치에서 손목까지의 전완굴근군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장칼 중체막기

편 손의 열 두터운 살 쪽으로 막는 것이다. 손을 쥘 때의 근육작용은 상술(上)하였으므로 생략함.

막기를 하기 위하여 반대편 상완 앞 쪽에 편 손을 가져 올 때

- ① 어깨에서 목 뒤까지의 승모근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 ② 어깨의 견갑근군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 ③ 겨드랑 밑 등쪽의 환배근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 ④ 가슴의 대흉근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 ⑤ 어깨에서 팔꿈치까지의 상완굴근군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 ⑥ 팔꿈치에서 손목까지의 전완굴근군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 ⑦ 어깨에서 손목까지의 회전근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이때 막기를 하지 않은 팔은 편 손으로 그편 위로 편는다. (손바닥은 하향(下向)이다)

편 손으로 팔이 뒤로 뻗었을 때

- ① 어깨위 목 뒷쪽의 승모근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 ② 어깨의 견갑근군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 ③ 겨드랑 밑 등쪽의 환배근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 ④ 어깨에서 팔꿈치까지의 상완신근군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 ⑤ 팔꿈치에서 손목까지의 전완굴근군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 ⑥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회전근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장갑 중제막기를 했을 때

- ① 어깨 위 목 위쪽의 승모근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 ② 어깨의 삼각근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 ③ 가슴의 대흉근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 ④ 겨드랑 밑 등쪽의 활배근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 ⑤ 어깨에서 팔꿈치까지의 상완굴근군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 ⑥ 팔꿈치에서 손까지의 전완굴근군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 ⑦ 어깨에서 손끝까지의 회전근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막기를 하지 않은 팔을 편 손으로 가슴앞에 가져다 댈 때의 근육의 작용이나 발달은 막기를 하는 팔의 각 근육부분과 동일하나 팔의 위치만이 다르며 막기를 한 팔만큼 힘을 들이지 않는 차이 뿐이다.

장갑로 목치기

장갑로 목치기를 하였을 때에도 손을 쥘거나 팔을 들어 올려 목 돌려치기를 했을 때도 팔을 움직인 높이나 방향이 다를 뿐이지 팔을 움직였을 때의 근육의 작용은 이제까지의 ① 승모근 ② 전갑근군 ③ 대흉근, 천흉근(淺胸筋) ④ 활배근 ⑤ 상완굴근군, 상완신근군 ⑥ 전완굴근군, 전완신근군 ⑦ 회전근등이 작용하며 발달한다.

앞굽히기

앞으로 한 걸음 내딛고 무릎을 구부리고 선 것을 말한다.

앞으로 한걸음 무릎을 구부리며 내딛었을 때

- ① 외관근군(外寬筋群)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 ② 내관근군(內寬筋群)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 ③ 대퇴굴근군(大腿屈筋群)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 ④ 하퇴굴근군(下腿屈筋群)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 ⑤ 족근군군(足根筋群)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 ⑥ 이때 슬개인대(膝蓋靱帶), 장경인대(腸脛靱帶)가 작용하고 발달된다.

뒤로 뻗어서 딛은 다리

- ① 외관근군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 ② 내관근군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 ③ 대퇴신근군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 ④ 하퇴신근군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 ⑤ 족근군군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뒷굽히기

몸의 중심을 뒷다리에 싣고 뒷다리를 앞의 발과 90° 방향으로 둔각(鈍角)을 짓게 굽혀 선 서기이다. 앞의 발은 무릎을 가볍게 구부려 내 딛고 선 서기이다.

뒤의 다리를 굽혔을 때

- ① 엉덩이와 넓적다리 바깥쪽의 외관근군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 ② 허벅지 안쪽의 내관근군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 ③ 넓적다리에서 무릎까지의 대퇴굴근군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 ④ 무릎에서 발까지의 하퇴굴근군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 ⑤ 발목 부분의 족근군군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 ⑥ 발의 족저근(足底筋)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 ⑦ 장경인대(腸脛靱帶)와 슬개인대(膝蓋靱帶)도 작용하고 발달된다.

앞으로 무릎을 가볍게 굽혀서 내딛었을 때

- ① 엉덩이에서 넓적다리의 외관근군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 ② 허벅지 안쪽의 내관근군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 ③ 넓적다리에서 무릎까지의 대퇴굴근군(大腿屈筋)이 작용하고 발달한다.
- ④ 무릎에서 발까지의 하퇴굴근군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 ⑤ 발목과 발의 족근군군과 족저근이 작용하고 발달된다.

위에서 설명한 근육에서 대개 굴근(屈筋)과 신근(伸筋)의 작용이 많은데 신근은 뻗어 주는 일을 하고 굴근은 끌어당기거나 오그랄 때에 작용하는 근육이다.

내관근군

- ① 대내전근(大內轉筋)
- (內寬筋群)
- ② 반막양근(半膜樣筋)
- ③ 반건양근(半腱樣筋)

외관근군

- (外寬筋群)
- ① 대둔근(大臀筋)
- ② 중둔근(中臀筋)
- ③ 대퇴이두근(大腿二頭筋)
- ④ 대전자(大轉子)
- ⑤ 비측광근(腓側廣筋)
- ⑥ 장경인대(腸脛靱帶)
- ⑦ 봉공근(縫工筋)
- ⑧ 대퇴근막장근(大腿筋膜張筋)

족근군군

- (足根筋群)
- ① 장지신근(長指伸筋)
- ② 장부지신근(長拇指伸筋)
- ③ 장지굴근(長指屈筋)
- ④ 하퇴횡인대(下腿橫靱帶)
- ⑤ 십자인대(十字靱帶) 등으로 보겠다.

競 技 規 定

大韓跆拳道協會

1962년 11월 3일 制定
1963년 2월 26일 改定
1964년 4월 23일 改定
1966년 5월 17일 改定
1967년 3월 7일 改定

제 1 条 本規定은 大韓跆拳道 協會의 審判規定의 嚴正과 統一 그리고 審判의 權威을 確立하기 爲하여 이를 制定한다.

第 2 条 競技進行上 公正無私한 判定을 期하기 爲하여 다음과 같이 審判員을 構成한다.

1. 審判員構成은 審判委員會 또는 審判總會를 開催하고 抽籤으로 其順序를 定한다.
2. 審判은 主審 1名 副審 4名 陪審 2名으로서 構成한다.

但, 大會當日 陪審員은 交替치 않는다.

3. 審判員은 審判中 自道場所屬 選手가 出戰하였을 時는 審判構成 配置를 交替申請하여야 하고 大會長은 申請不응을 莫論하고 即時이를 交替시켜야 한다.
4. 審判員의 誤判은 審判의 權威을 喪失하였다고 認定될 時 大會長은 審判長 및 陪審員과 相談하여 交替를 시킬 수 있다.

第 3 条 審判員의 資格과 權限은 다음과 같다.

1. 協會에서 允許한 4段以上者로서 審判資格을 얻은 者,
2. 協會 또는 體育團體로부터 懲戒 및 他의 犯則이 없는 者,
3. 主審은 副審員보다 先任 또는 高位段者로 하고 陪審員은 6段 以上 者中

本會에서 推薦된 者로서 한다.

第 4 条 主 審

1. 主審은 競技의 主導를 掌握한다.
2. 主審은 陪審員으로 부터 意見聽取 및 勝敗를 協議하여 決定權과 延長 및 其他宣言權을 保有한다.
3. 選手에 對한 注意事項과 競技의 始終을 宣言한다.

第 5 条 副 審

1. 副審은 採点表에 得点과 減点を 表示한다.
2. 主審은 意見과 協議에 應하여야 한다.

第 6 条 陪 審

陪審員은 主審과 副審間의 誤判이 있다고 認定될 時 遲滯없이 判定을 調整하여야 한다.

第 7 条 競技의 区分

1. 競技는 個人戰과 團體戰으로 한다.
 2. 團體戰은 參加 選手는 5名으로 하고 隨時 變更할 수 있다.
 3. 團體戰은 體級 및 段의 制限이 없다.
- 但, 必要에 따라 技部 및 體級을 나눌 수 있다.
4. 個人戰은 體級別로 한다.
 5. 團體戰에 提出된 名單中 本部席으로부터 競技의 準備宣言이 내린 後 順位를 變更치 못한다.
 6. 競技에 出戰할 수 있는 資格은 다음 3區分으로 한다.
- 가. 初技部 有級者
나. 中技部 初段부터 3段
다. 高技部 參段以上
7. 體級은 다음 種別로 区分

한다.
가. 高等部 및 1般部 (大學部 包含)

㉠ 권 級	48kg	까지
㉡ 플라이 級	53"	"
㉢ 밴 덩 級	58"	"
㉣ 페 더 級	63"	"
㉤ 라이트 級	68"	"
㉥ 웰 터 級	74.3"	"
㉦ 미 들 級	80"	"
㉧ 헤 비 級	80"	以上

나. 中, 等部 體級

㉠ 권 級	37kg	까지
㉡ 플라이 級	40"	"
㉢ 밴 덩 級	43"	"
㉣ 페 더 級	46"	"
㉤ 라이트 級	49kg	까지
㉥ 웰 터 級	52"	"
㉦ 미 들 級	56"	"
㉧ 헤 비 級	56"	以上

다. 國民學校 (유년부)

㉠ 권 級	19kg	까지
㉡ 플라이 級	21.5kg	"
㉢ 밴 덩 級	24"	"
㉣ 페 더 級	26.5kg	"
㉤ 라이트 級	29"	"
㉥ 웰 터 級	32"	"
㉦ 미 들 級	35"	"
㉧ 헤 비 級	35"	以上

8. 競技는 다음 2種으로 한다.

가. 리 그戰
나. 토나먼트戰

9. 競技는 本會에서 制定된 護具着用으로 한다.

第 8 条 攻擊의 得点은 다음과 같다.

1. 手拳攻擊 1点
2. 足技攻擊 가. 面上 2点
나. 外 1点
3. 減점은 1点
4. 攻擊의 有効得点部所
가. 臍치 나. 兩 옆구리
다. 兩 어깨 (手力)
라. 足技顔面攻擊

5. 攻撃은 手 拳 1회 攻撃 後 足 技 1회 攻撃하였을 時 減點으로 認定하며 主審은 例外를 抑制한다.
但, 連續足技攻撃은 認定한다.

第9条

技術과 言動에 있어서 故意 또는 感情으로 다음 各 項을 犯하였을 時는 減點으로 한다.

但, 程度에 따라 退場시킬 수 있다.

1. 넘어진 相對에 對하여 攻撃하는 것.
2. 비禮行為과 타클等 其他 危險한 行為를 하는 것.
3. 陰部를 攻撃하는 것.
4. 머리로 막치기 하는 것.
5. 顔面을 手 拳 또는 팔꿈치로 攻撃하는 것.
6. 時間을 空費하는 行為.
7. 잡아넘기기 또는 걸어넘기기를 하는 것.

但, 自然相對方에게 걸려 넘어진 것은 減點되지 않는다.

8. 故意로 相對方에게 등을 보이는 行為 및 審判員으로부터 2회 注意를 받고도 거듭하는 者.

第10条

다음 事項을 犯하였을 時는 即時 退場宣言을 한다.

1. 減點事項을 3회 犯하였을 時.
2. 다음 行動과 行為를 審判員으로부터 注意를 2회 받고도 거듭하는 者.
가. 相對에게 故意로 傷處를 주기 위한 行為.
나. 無禮暴言 暴行한 行為.

3. 極度の 興奮으로 試合進行上 有害하다고 認定된 境遇.

第11条

第10条 2項과 3項으로 退場宣言을 받은 者는 本會 賞罰規定에 依하여 懲戒한다.

第12条

競技는 다음 事項에 따라 進行한다.

1. 體裁別 競技에 있어 計體量은 競技時間 2時間 前

에 計體한다.

2. 競技時間은 1分30秒 2회 戰이며 中間休息은 30秒로 한다.

3. 競技者는 各己 다른 靑紅의 標識을 한다.

4. 競技者는 손목 팔뚝을 짧게 깎아야 하며 相對方에게 有害한 裝備 또는 其他의 것을 몸에 지니지 못한다.

5. 競技者는 競技場 中央에 2米 間隔을 두고 主審의 始作 宣言에 따라 競技를 開始하며 計時한다.

7. 競技中 主審의 “갈려” “繼統” “그만” 등의 宣言을 지켜야 한다.

7. 競技途中 必要에 따라 主審은 時間을 要求할 수 있다. 이 時間은 記錄에서 除外 計算한다.

8. 競技者는 主審 宣言에 無條件 服從하여야 한다.

9. 競技途中 故意 또는 自然戰意를 喪失하였다고 認定된 時는 主審은 競技中止 宣言을 할 수 있다.

10. 競技途中 相互 一方으로 물리거나 不便한 攻防에 充分한 技術을 發揮지 못한다고 認定된 時 主審은 遲滯없이 “갈려”의 宣言으로 原位置에 세워 試合를 繼續시킨다.

11. 競技 途中 一方의 自己判斷으로 競技中止하는 것을 認定치 않는다.

12. 競技途中 棄權한 境遇는 敗者로 한다.

13. 競技 途中 不可抗力의 負傷 또는 突発의 으로 競技不能인 境遇는 競技를 中止시키고 負傷者는 敗者로 判定한다.

但, 原因이 相對方의 故意인 경우는 이에 反한다.

14. 競技途中 得点部所에 相對方의 攻撃을 받아 意識不能으로 10秒 以內에 機能을 回復치 못한 時는 敗者로 宣言한다.

15. 競技終了 宣言後 有効한 攻撃이라 할지라도 이는 無効로 한다.

16. 競技終了 宣言(그만)을 하면 競技者는 原位置에 서야 한다.

17. 競技者는 主審이 勝負의 判定에 내릴 때까지 固定位置에서 서서 判定宣言을 받아야 한다.

18. 団体戰이나 個人戰을 不問하고 同一한 方法으로 審判을 한다.

19. 団体戰에 있어서 無勝負인 경우엔 延長(出戰 팀中 代表 選手를 選定하여 最終戰에 臨할 수 있음) 또는 無勝負일 時는 抽籤하여 勝敗를 決定한다.

20. 個人戰에 있어서 無勝負일 境遇에는 直席에서 計體量하여 體重이 가벼운 者를 勝者로 判定한다.

但, 가. 體重이 同一한 境遇에는 抽籤으로 한다.

나. 決勝戰에 있어서 無勝負일 境遇에는 一分30秒一回戰을 延長한다.

다. 決勝戰에 있어 一分30秒 延長戰 後에도 勝負일 境遇에는 추첨으로서 決定한다.

21. 団体戰에 있어서 出戰 팀의 選手가 二人 以上 出戰치 못하게 되었을 時는 그 팀은 棄權으로 한다.

22. 団体戰에 있어서 競技途中 正選手가 負傷당하였을 時는 候補選手가 正選手 位置를 代行한다.

23. 代替 當한 選手는 그 競技에 出戰資格을 喪失한 것으로 看做한다.

第14条

競技를 円滑敏速히 進行하기 爲하여 다음 補助員을 構成한다.

1. 計時員
2. 計體員
3. 記錄員
4. 進行員

제44회昇段審査合格者

—1971년 7월 4일 이후—

一段部

初段 서울 (1971. 7. 4)

이덕휘 桂英彬 김길봉 李漢量
김근석 이장수 吳太教 金鉉基
朴性普 김영수 金東洙 姜佑信
李光洙 조덕연 張泳鎬 이한영
홍성범 金宇城 여창구 盧興範
鄭範相 李南彰 高錫俊 金東圭
윤내원 金學德 孫五鳳 李昌鎬
鄭明讚 姜漢鎬 양승벽 김희준
金柱勝 李震榮 金基千 李基甲
金巨泳 金基出 孔用植 李宗炳
성기성 梁聖文 朴勝欽 金柱成
金東浩 丁海珍 金点得 박영구
尹東燮 張金熙 李東求 오승조
南成祐 千斗秀 李在茂 趙世竜
崔源選 宋文修 趙永權 文洪業
이명운 延英雄 崔榮植 이용희
梁鎮善 金宋日 金亨中 朴鍾福
崔甲天 유귀석 신동규 尹錫吉
허성무 金鍾德 李相益 徐慶源
文路虎 崔載鴻 盧鴻昌 朴茂欽
박수복 俞煥烈 김은중 金秉敦
崔文玉 朴性竜 봉승열 李康旭
具宅肅 康吾珪 박영길 朴根德
崔鍾權 朴玉煥 노영식 金鍾萬
鄭二項 심귀보 이호삼 이윤구
이재형 이수길 최재현 朴起鵬
홍진섭 윤정수 楊秉陽 한동현
안영도 김광배 金泰俊 金容善
林洛延 김현수 孫孝翼 배성천
李榮鎬 안승만 林永洙 申鉉吉
金容鳳 奇原甲 朱周鎬 李泰然
李發煥 崔永元 高明煥 黃竜德
金昌俊 元石喜 金詔雄 高英郁
김준성 강규형 崔 鮮 심락조

金慶勲 이덕현 李玟載 金在福
盧竜雲 趙忠善 李順基 姜長熙
정용식 李 赫 李明球 權命贊
李明腹 馬相吉 朴南壽 張榮鎬
김영관 金榮鎬 孫 權 曹永培
정용봉 김창현 金秉權 申南浩
최호섭 南貞順 최창미 朴愛淑
홍영실 박연태 劉顯春 崔榮子
李京子 南相玉 崔玉燮 夏連順
金庚淑 김숙자

RICHARD L. JOHNSON
JOSEPH A. SAPUTO
SCOT JAY FOLLMER
ROBERT
KILLEN FREDERICKS
LAMAR TISDALE
DAVID W. BELLO

박세운 金聖澤 丁喆壽 金榮遠
金建鎬 崔錫勲 金漢祚 鄭宇性
郭昌根 黃善球 金信在 林春成
김희영 朴明吉 朴鍾一 여상수
김신기 박재덕 宋竜在 김파용
崔柄煥 朴慶俊 金中起
HARLAN E. BOGIE
MAYMI ACOSTA

鄭鍾成 홍성구 김용일 민경식
이진규 박주순 張 源 이승만
서봉호 박영환 홍연표 가재근
金賢秀 李哲雨 林京鍾 姜斗鎬
章昌大 慎鳳吉 柳英九

初段 충북 (71. 7. 22)

孫彤文 김종만 朴魯哲 반우어
李相琦 李喆浩 朴宰逸 장민환
지교현 王鍾俊 홍상근 이태우
연구현 방근철 홍주표 이종식

崔元甲 나명수 安碩熙 南基正
李性吉 金永竜 金鳳性 車相淳
이권중 李慶熙 奉東根 劉永泰
南基滿 禹在根 신현갑 李圭哲
張錫潤 李泰熙 盧載正 유재경
金鎬寬 이상용 윤봉만 安聖浩

初段 강원 (71. 7. 22)

조명찬 李仲烈 이영직 金智哲
金昌成 金海南 康文吉 金舜成
張基善 禹光勲 安秉旭 朴竜得
金洪烈 韓敦培 朴星漢 元容周
金鍾赫 安孝植 李海東 朴鍾天
金光鎬 金春植 金光洙 李光淳
金哲雄 南基鍾 尹秉元 金聖弼
임재호 진용수 金德永 安重熙
張憲國 李興植 李圭海 都日玉
金正九 崔鍾鉉 安贊秀 朴容萬
劉炳洙 朴鍾珣 吳壽一 許南原
文潤植 金奎奎 金明奎 盧松鉉
文南株 오덕환 조성화 이동훈
정정찬 정관섭 權五福 朴慶煥
金南鴻 金鍾來 李沢善 孫相根
金天振 정진권 成承鎬 李成律
朴壽天 前弘濱 박인세 金燦雲
金基俊

初段 전북 (71. 8. 15)

趙永彩 崔春基 崔哲源 이재현
김승환 李成基 西門湧 姜津竜
朴竜斗 崔炳奎 車光允 洪在權
沈忠烈 孫政奎 田炳烈 李鉉植
朴星昊 安承大 鄭鉉東 鄭然春
李茂源 李殷佑 최종규 양창민
박광호 WILLAM C. SHUPP
OK SU SHUPR

DAVID C. JOHNSON
THOMAS E. BASHKEIOM
RAYMOND D. ODOM

初段 경기 (71. 8. 14)

韓相舜 崔載德 具然恒 宋載坤
서종만 崔載善 권이주 김철수
한기진 라영범 김康鎬 윤충현
KING CURTIS
RALPH BARBA

少年部

初段 서울 (71. 7. 4)

金慶南 金仁哲 許品茂 金貞燮
徐裕進 金裕珍 李承宰 한일수
南年洪 金東鎮 주종형 洪垠姬
박두홍 윤중구 李東一 정문영
조용철 韓政熙 鄭在憲 이상용
金炳天 김정훈 이세중 黃仁星
李承贊 朴承主 이현식 李荇蕙
이원영 고성수 崔永根 徐廷翔
이현문 金裕鉉 金恩石 崔正根
鄭鍾結 朴洙沅 金奎學 최성균
김원만 김용호 임한기 김광만
이현식 김만보 都鍾珍 許均
金成容 李孝東 金鍾浩 孫廷元
黃亨俊 서정환 鄭在洸 박현규
金學 李善郁 朴炳結 최종삼
章在成 高秉哲 鄭仁豪 金知相
趙尚杰 우창협 尹喜政 白輝
權成沢 安政東 辺光植 이병훈
李昌憲 金均洙 吳重悅 金瓊淑
趙光國 吳在一 南宮成憲 李宗冠
金敏謙 李相虎 趙奎洙 劉賢和
吳熙熙 姜成吉 洪性文 金光雨
최경호 李承宰 高斗奉 梁炳熙
김경주 金長南 韓宙榮 李豐允
鄭皓元 鄭培泳 白昌基 高裕榮
趙重德 李貞恒 李湘浩 黃仁燮
權鍾哲 조성준 鄭慶仁 咸秀濤
李亨贊 李慶熙 咸秀希 李範石
姜奉熙 林虎 咸秀正 吳周京
南秀鎭 신철식 劉碩珍 吳泰榮
韓哲哲 金成源 金亨秀 鄭준
陳容壽 정찬원 丁喜正 林貞錫
유재하 박기용 이규철 朴柱千

朴東烈 홍세환 尹用勲 박해현
柳濟敏 김진우 崔正夏 韓相權
尹銀永 최종태 송석원 車範燮
金鍾樞 박용훈 金庚鉉 李浩永
이제환 박운서 신국찬 김세권
朴德基 劉英根 文章永 鄭弘根
김도영 최영철 李宗奎 宋正國
정영춘 朴京用 趙允熙 유승우
尹亨文 박성동 유성용 李夏榮
吳明錫 이승우 申銀淑 노민석
韓光呼 이형석 金哲浩 韓昌熙
朴勝仁 이재명 趙忠煥 이범수
임현교 崔正範 구광서 임현교
김대식 鄭鍾一 김하식 김재갑
정윤식 엄인용 김장록 朴胤燮
金仁培 崔明鎬 황세규 조경현
徐英錫 김경택 고명민 朴炳英
정수한 崔大成 柳在永 남옥식
김경희 李昌淵 한무희 손암
朴鍾三 하중안 李康汝 권오국
조준호 권태훈 이효진 김재근
김제원 현학봉 이형 梁光福
박희경 김성민 박형근 하준권
이병호 郭秀光 金海鎭 이용대
김택수 허웅 윤지진 이상준
李敬男 현영주 朴寅圭 윤관복
장원모 崔源煥 元容造 金永結
김용범 이정국 徐世源 白允哲
高性來 尹相九 金顯晃 이재원
김준식 이강성 임종경 李仁範
李泰炯 라장돈 윤형원 吳元根
정태섭 여진구 朴日善 王盛鎭
千榮日 최광우 朴慶漢 박종일
張德權 심기태 조한봉 최근형
安鎭 崔範 朴正驥 金玟珠
崔成一 김인준 金亨珠 이성기
강원주 채수만 배영호

TOMMY TAYLOR

李剛鉉 金泰旭 金永勲 吳희숙
黃國煥 이연길 朴相錄 李愛哲
김성규 朴炳吉 尹謀 서원철
金鎮洙 張豪淳 李興世 李孝燮
金昌福 李承植 李圭夏 朴相撤
徐範錫 權赫俊 김공수 호학준
이진우 여성구 진영민 李一權
文仁柱 李正浩 진창호 유광목

朱在稜 이원수 채동규 안덕근
李燦行 李敏圭 권행주 이우운
李承彦 朴在維 李憲 李承言
金宰碩 이원선 인승준 趙宣逸
林采鎭 김수정 周承 崔範燮
李起玄 周松 李河九 金慶鎮
홍경주 李奇炳 배종형 김재선
趙良勲 李浩經 강기선 박현수
白東鉉 이연섭 이종관 이옥진
이민수 배석환 박승민 최유열
김경모 黃三悅 趙秋錫 文正煥
김대호 김영 김형수 金元平
李成民 鄭正煥 金銀水 金萬坤

初段 충북 (71. 7. 22)

韓平洙 李甲熙 安秉鉉

初段 강원 (71. 7. 5)

池韓基 韓熙元 허승빈 徐萬石
崔完植 鄭光詰 전인구 孫永相
崔元相 金在詰 李南健 李相明
辺榮大 김주복 李建眞 金智運

初段 전북 (71. 8. 15)

鄭昇天 姜鍾震 朴憲宇 金享坤
金鳳水 吳錫信 金學永 康仁哲
尹成植 羅益柱 승수관 金世中
黃熙順 申見昊 鄭圭煥 丁岩鎭

初段 경기 (71. 8. 14)

李必立 王福君 馬東辰 劉日
玄鎭鎬 李德衡 玄在鎬 정영종
이봉준 白虎烈 정성학 金根秀
이재환 鄭吉源 吳申沢 玄聖鎬

HEMLEON GANY

최경보 권구열 김정환 李昌洙
朴承鎬 鄭泰允 車永一 이정현
윤보혁 洪性意 박원영 文煥男
전지웅 김윤영 김재일 황규일

一段部

二段 서울 (71. 7. 4)

金瑋正 宋榮林 박정욱 李植完
金茂根 金杜鳳 金占錄 嚴柱善

李錫奉 김민부 尹錫太 韓奎聖
玄永周 洪恩源 李哲赫 尹仁洙
金鍾濟

二段 전남 (71. 7. 3)

金仁福 千公天 黃美石 김희수
韓相孝 吳永錫 金學律 鄭萬洙
金知中 安泰龜 金吉中 宋奉錫
趙大植 僕永浩 白銀準 신양수
최경동 허관석 秋收寶 柳炫鉉
김용훈 李台煥 申甲浚 朴昇來
吳世煥 金貴鍾 丁鴻基 李東植
朴明珪 安瑞煥 國경석 朴奎將
吳鍾萬

二段 전남 (71. 9. 12)

金萬雄 김 공 허정권 문병현
金榮中 丁宗植 조삼배 金貞淑
具勇俊 李化實 李正法 정청방
申福吉 변천홍 李心勲

二段 서울 (71. 7. 4)

金萬雄 朴豊緒 金光天 孫學龜
申重秀 이승원 李海俊 柳在勲
崔炳學 林采杭 趙香來 金鍾英
鄭基南 金英秀 崔哲植 김영계
鄭雲京 吳勇進 이천우 宋東淳
尹達中 梁泰和 최원식 權五國
李炳晚 박은창 金龜亨 유영갑
韓相甲 劉金俊 金判用 홍영락
崔承載 宋熙斗 金東沃 임삼돈
李圭爕 金素永 安在述 白仁光
원인희

二段 서울 (71. 9. 12)

朴男竜 金熙鎭 鄭夏福 權善夏
朴鍾出 李恒雨 구은도 金永來
姜重植 鄭甲永 朴鍾泰 李銀壽
姜連求 이종화 崔建重 張寅珠
朴英漢 崔明圭 윤준원 張漢洙
申彥翼 朴炳日 金 喆

二段 충북 (71. 7. 22)

노병철 오무균 반기호 강기훈
최학조 朴重培

二段 충북 (71. 9. 12)

池在燮 金化泳 張泰一 조성덕
閔斗植

二段 강원 (71. 7. 22)

金模漢 金鍾浩 金仁坤 徐錫昌
金尚泰

三段 전남 (71. 7. 3)

金正珉 白斗善

三段 전남 (71. 9. 12)

金連秀 윤재균 金文圭 高在春
丁一元 李在桓 李奉南 金五洙
張在南

三段 서울 (71. 7. 4)

崔世珍 姜文道 金昌坤 李炳泰
朴光植

三段 서울 (71. 9. 12)

安致電 文丙七 崔龜河 박인준
金壽哲 金容弼 陳錫佑 文炳坤
鄭世根 黃漢圭 李鳳元 金典男
李榮根 홍현규 崔鍾鉉 吉炳哲
南文植

三段 충북 (71. 7. 22)

金泰圭 김영배 金泰壽 박원기
鄭鍾錫

三段 충북 (71. 9. 12)

이정의 김홍우 李卓遠 李昇濟
金在學 吳明世 정인처

四段 서울 (71. 7. 4)

李勝彦 金正明 李鍾元 李光植
鄭鳳萬 崔福成

四段 서울 (71. 9. 12)

鄭普永 盧天弘 高炳玩 劉京南
김응수 俞煥燮 宋英奭 南大永
李源淵 鄭泰秀

五段 서울 (71. 7. 4)

黃鍾鎮 安成紀 金起萬 金泰振

五段 서울 (71. 9. 12)

李雲世 崔炳大 金龜全 朴性弘
李基豪 李正男 任炯然 金亨均
李正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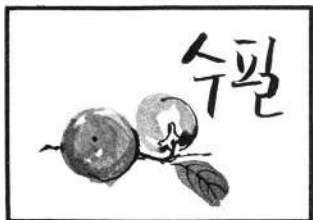
알

림

심사신청서 기재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적과 현주소 성명은 한자(漢字)로 정확하게 기재할 것.
2. 증명판 사진 3매를 첨부할 것.
3. 소속 관, 중앙본관장의 추천서를 반드시 첨부할 것.
4. 2단 이상 응시자는 협회 발행 단증 번호를 반드시 기재할 것.

이상 4항목이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았을 때는 이유를 불문하고 일체 심사원서를 접수치 않음.



跆拳道 所感

趙 豐 衍

우리 나라에 「태권」이란 것이 있었다. 이것은 내가 어렸을 적에도 「태권질」이다 하여 많이 들던 말이다. 한쪽 발을 들어 상대를 차는 것인데, 보통 「발길질」과 다른 점은 일정한 방식을 쓰는 데 있다. 즉 발길질 하면 꽃불을 차듯이 앞으로 내치르는 것인데 태권은 발드는 것 부터 달라서 몸을 비꼬는듯 하는 순간에 발이 차는 사람 머리의 수준까지 치솟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는 수박(手搏)이란 것도 있었다. 이것은 권(拳)이라고도 하여 무예의 하나로 고려 시대에 무척 무인 사이에 독상(獨相) 되었다 한다. 조선시대에는 버젓이 무예의 한 종목으로 채택되었으니, 태종실록에 병조(兵曹)가 수박회(手搏會)를 가지고 군인 모집의 실기 고사를 했다는 기록까지 있다. 전라, 충청의 경제선인 작지(鵲旨)라는 곳에서 해마다 7월 보름에는 양쪽 도민들이 모여서 수박회로 승부를 다투는 경기가 벌어졌다는 사실도 있다.



그런데 태권이 나 수박이, 처음에는 무예에 들어가 차를 주석의 여흥거리로, 또는 아이들의 장난(要戲)으로 화한 것은 얼른 이해가 안 간다. 아마, 전투에 있어서 무기의 실효에 비해 손색이 크다고 여겼던 탓이리라.

모든 무예가 근대에 이르러 옷을 「스포츠즈」로 갈아 입고 등단함에 이르렀다. 아테나이의 용사들이 쓰던 「함대」창이 투창으로, 마라톤의 통신병이 달리던 것이 고대로 마라톤 테레이스로 화하는 등, 올림픽 경기

에 삽입되었거니와, 그러면 동양에서 연면히 내려온 씨름, 태권은 왜 올림픽 종목에 들지 못하는가? 우리로서는 불만이다.

우리 나라에서 「태권」이 부흥한 것 또한 사실인데, 이의 근원은 알 수 없으나, 옛날 태권은 종합 무예임에는 틀림없다.

그리고, 근대 스포츠가 덮어놓고 옛 무예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반드시 「스포츠즈 정신」이 사무쳐야 한다. 즉 「정신」이 알맹이요 거죽에 나타난 동작은 「기」에 불과하다는 해석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태권이 무에도 유희도 아니라면 반드시 그 「정신」에 핵심을 두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즈음, 텔레비전을 통해 태권의 시범이 자주 눈에 띄는 가운데, 내가 느낀 바는 보여주는 것이 「기」에 세고, 정신에 약하지는 않나 하는 것이다.

내가 알고로는 태권에서는 선수(先手)를 쓰지 않는다. 즉 공격하지 않고 수비에만 쓰는 것이므로, 무척 대고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태권과는 다르다. 그럼으로써 태권이 스포츠에 들게 되는 것이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태권도는 상대가 없이 연마하더라도 이른바 신인합일(神人合一)의 경지에 도달한다고 말한다. 이것이 곧 태권이 도(道)에 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P 라는 권투 선수

崔 要 安



꽤 오래 된 이야기인데 그 무렵에 문학하는 친구, 그림 그리는 친구 혹은 잡지 편집을 하는 친구들이 어울리는 다방이 있었다. 거기서 대개 주식회사가 굳적이 되어 대포집으로 옮겨지게 된다.

지금 돈으로 환산해서 백원 내지 3백원 정도 주님들을 모아서 별로 안주도 없는 막걸리 잔치를 벌리며, 문학 얘기, 그림 얘기, 세상 얘기, 나오는 대로 지겨워대다가, 마지막 장소에 가서는 노래나 시조나 여흥으로, 놀이를 한바탕 벌리고는 헤어지는데, 그 뎀버 속에는 현역 문필가나 화가는 아니지만, 그 방면에 뜻을 갖은 사람도 끼어 있었다. 그 속에 P라는 퇴역권투선수가 한 사람 있었다. P는 가끔, 현역시대의 활약상이나 권투에 관한 얘기를 재미있게 신나게 했는데, 그 세계와는 인연이 먼 문백한 선비들의 노르스름한 얼굴들은 구리빛으로 빛나는 P의 이야기를 경청했었다.

우리가 주식회사를 벌리던 그 이층 술집 골목은 명동 어귀인지라, 밤이면 주정꾼이 욕신거렸는데, 이때 금 우리에게 시비를 거는 주객이 있었다. 그러나 문백한 우리 주식회사 회원들은 상대하지 않고 피했었다.

이럴 때, P만은 가름하게 찢어진 눈으로 날카롭게 쏘아보며, 여차하면 왕년에 날리던 철권으로 한대 갈길 기세를 보였다.

그러나 그 골목에서 실지로 주먹이 오고 간 싸움은 없었다.

우리 주식회사 회원들은 누구하고도 싸울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P가 있는 것을 저속이 맘 든든하게 여겼다.

하루 저녁은 주식회사에서 싸구려 술 한잔 석을 마시고 다방으로 되돌아 온 적이 있었다. 다방에서 무슨 일로 P와 그와 비슷한 체격의 낯선 사나이와 싸움이 있었다. 상대의 사나이는 그 다방의 경영주와 무슨 관련이 있어, 다방 주인과 처음에는 시비가 걸렸는데 사나이가 너무 난폭하기에 P가 나선 것이었다. 사나이는 술이 취해 있었고, 무언지 약에 치바친

듯이 흥분해 있었다.

우리 주식회사 회원들은 오래간 만에 P의 천권을 구경하는 기분으로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우리의 예상은 단 한대에 상대방의 사나이는 흠 바닥에 나가 떨어질 줄 알았다.

그러나 국면은 극히 예상 밖이었다. 서로 맞붙들고 밀고 밀렸다 하며 발질이 오고가고 오래 오래 실랑이를 벌였다. P가 한 때 날렸던 자랑스러운 그 주먹은 조금도 활약을 못한다. 주먹이 몇번 들어 갔으나, 그것은 별로 위력이 없었고 상대방은 까딱도 안했다. 되려 P가 물리기 시작하는 데서 싸움을 말렸다.

우리 주식회사 회원들은 P의 주먹이 것처럼 맥을 못쓴데 대해 크게 실망했다.



이전 근자의 일인데 태권도를 일년간 배웠다는 친구가 실지 싸움에서 태권도를 배우지 않은 상대에게 경을 치고 있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실지 싸움에서는 기술보다 (악)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악이란 사람이 발산하는 일종 독기(毒氣)이다.

독기를 다른 말로 하면 승화된 정신의 집중도(集中度)를 말한다.

손바닥 모서리로 다섯장의 벽들을 일시에 깨는 일종의 독기가 손모서리에 집중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태권도가 권투고 유도고 코에 걸어서는 힘을 못쓰는 것이며, 필사적인 근경에서 발휘할때, 비로소 위대한 힘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박장달은 이조 말엽의 사람이다. 그의 출신 성분은 자세히가 않으나, 그 당시 박장달의 이름은 남녀노소 누구의 귀에도 새롭지가 않았던 인물이다.

그의 이름을 장달이라 부른 것은 남달리 다리가 길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구경 같은 몸집에 인상 또한 호탕스러워 박장달이가 거리에 나타나면 출몰이 구경꾼들이 몰려들곤 했다.

원래 박장달은 깊은 산골 아주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었다. 그리고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원모슬하에서 근근히 몸살으로 생계를 유지했었다.

그러나 나라의 운명이 왜놈들 손에 넘어가는 한일합병의 기운(氣運)이 짙어지자 박장달이도 가난히 있을 수 없는 외부에 사로잡혀갔다.

때마침 국내 도처에서 의병이 일어나 패척과 싸움에 박장달은 의병에 몸을 담아 구국운동에 몸바칠 것을 결심했다. 어머니의 간곡한 만류를 뿌리치고 집을 나선 박장달은 의병의 하술로 몸을 담기는 했으나, 뜻처럼 의지가 결실을 못 맺는 것을 밤낮으로 안타까워 했다.

그러던 중 박장달은 소수의 의병과 더불어 패척의 진지를 분쇄할 과업을 맡게 되었다.

패척의 세력은 날로 기세를 올리고 있을 무렵이요, 패척이 지닌 무기 또한 신식인지라 적진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의병들의 사기는 말미 아니었다.

마침내 적진에 당도한 의병들은 굳게 닫힌 패척 진지의 담벽을 뛰어넘을 재간이 없었다. 의병들은 모두 낙심 찬란이었다.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싶으니 만큼 안타깝기만 했었다.

이때였다. 박장달이 불꽃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자신 넘치는 눈길로 까마득히 높은 패척 진지의 담벽락을 훑어 보면서 입을 열었다.

“내가 저 담벽을 뛰어 넘겠오!”

그러나 아무도 박장달의 장담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았다. 워낙 몸집이 컸던 박장달은 혼연중에도 언제나 뒤처기만 했던 것이다. 그런 박장달이가 담을 뛰어넘겠다고도 두가의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을 수 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박장달은 기어코 아슬한 패척 진지의 담을 뚫

어 넘을 수 있다고 부득부득 우겨졌다.

그러나 문제는 또 있었다. 설사 박장달이 담을 뛰어넘는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자물쇠를 어떻게 부수고 대문을 열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것도 자신이 있오, 그러니 제발 이 몸에게 맡겨 주십시오.”

이렇게 박장달은 부득부득 우겨졌다. 의병들은 반신반의 박장달을 한번 믿어 보자는 의견으로 기울어 갔다.

그러나 박장달은 몸을 날렸다. 이를 바라보던 의병들은 모두가 벌린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언제 것처럼 몸에 익혔음인지 박장달은 나는 새와도 같은 눈 깜짝할 사이에 그토록 높은 담을 사뿐히 뛰어넘었던 것이다.

그 다음 순간 의병들은 숨을 죽였다. 용하게 담을 뛰어넘은 박장달이가 과연 패척에게 잡히지 않고 무사히 그 자물쇠를 부수고 대문을 열 수가 있을 것일까?

잠시 동안 깊은 몰속 같은 적막이 흘렀다. 그야말로 잔용조이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얼마 후 신기하게도 패척 진지의 대문이 살금살금 소리도 없이 열리기 시작했다.

기실 명이 달려붙어 힘을 모아 밀어 대도 열기가 어려운 대문을 박장달 혼자 힘으로 열고 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삼시간에 의병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다. 지금까지 가라앉기만 하던 힘이 의병들의 전신에 불끈 솟아 올랐다.

박장달의 손짓이 의병들을 패척의 진지로 불러들였다. 한사람, 두사람 의병들은 패척 진지 속으로 스며들어 갔다. 그러나 패척의 수호는 수만에 달랐다. 이들을 무뎌서기에는 의병의 수효는 너무나도 보잘 것이 없었다. 설사 패척 진지를 불사르는 정도로 그 임무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의병들이 살아나올 길은 도저히 없었다.

마침내 불경이 일었다. 뜻밖의 일을 당한 패척은 개미떼처럼 몰려왔다. 칼이 번쩍이고 창이 날고 화살이 소나기처럼 쏟아졌다.

그런데 이제 또 어이된 기적이지요, 그러한 많은 패척이 여기서 와르르, 저기서 와르르 비명을 지르며 쓰러져

가는 것이 아닌가!

그 때마다 화살처럼 하늘을 뚫은 사나이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박장달이었다. 박장달의 그 긴 다리가 한번 내 뻗으면 달려들던 왜적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박장달의 그 긴 팔이 한 번 내지르면 또 우수수 왜적의 무리는 쓰러져 갔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고 날면 박장달의 몸짓이 계속 되는 동안 왜적의 무리는 넋을 잃고 어이 할 바를 몰랐다. 이날밤 왜적의 진지는 완전히 허박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사태가 이쯤까지 왜적은 급히 비상대책을 동원했다. 증원 부대가 밀려오고, 이들은 조총을 지닌 신에 병풍로 조직되어 있었다.

하늘을 날며 왜적을 다치는대로 쓸어들어던 박장달도 신식무기 앞에서는 어쩌는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박장달은 물러 서려고 하지를 않았다. 어쩔 한 바를 몰라 갈장전망하는 의병들을 향해

“이 곳은 나 혼자서 맡을 것이니 여러분은 곧 몸을 피해 숲메골로 발걸음을 서두시오.”

이렇게 외치고는 의병들이 몰려설 것을 열거위해 단신 왜적의 무리속에 뛰어들었다.

의병들은 박장달이 몸피 열려되기는 했었지만 위급한 사태 속에서 어이할 방도가 없었다.

이리해서 마침내 의병들은 왜적의 포위망을 무사히 벗어 날 수가 있었다.

그러나 다시는 용맹스러운 박장달을 만날 수가 없게 되었다고 모두가 슬픔에 잠기고야 말았다.

의병들은 박장달과 다시 만나기로 한 숲메골을 향해 2백리 길을 걸어 왔을 때 일이었다.

숲메골을 빙글 돌은 곳에서 하늘을 울리듯 메아리쳐 오는 박장달의 고향 소리에 의병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

었다.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왜적의 포위망에 갇힌 박장달이 살아있을 리가 없었고, 설사 조총의 겨낭을 벗어 났다 하더라도 의병들 보다 앞서 와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고향소리의 주인공은 박장달에 틀림이 없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 더욱이나 박장달은 몸에 상처 하나 입은 곳이 없었다.

이렇게 온 세상이 놀랄 전과와 행적을 박장달은 남겼지만 이미 기운 국운은 쇠잡을 길어냈다. 마침내 한일 합병의 비극이 이 땅을 지배하고야 말았다. 그렇지만 온 겨레의 가슴에는 박장달의 승전고와 메아리가 살아질 줄을 몰랐다.

그러나 박장달은 다시 세상에 그 모습을 나타내질 않았다. 의병들 사이에서는 력방으로 기인 박장달의 행방을 수소문 했으나 허탕이었다.

박장달은 나라의 운명이 왜적의 손에 좌지우지하게 되자 다시 시골로 내려와 흠어머니를 모시고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 머리를 깎고 중이 됐다는 풍문이 돌았으나 끝내 박장달의 그 후 소식은 알길이 없게 됐다.

어찌됐던 박장달은 구국운동에 큰 공을 남긴 위인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리고 그는 역사상 보기도문 기인이기도 했었다.

또한 하늘을 주름잡는 기민성, 적을 향해 내지르고 견어차는 총세는 틀림없는 태전의 발자취라 하겠다.

박장달은 깊은 산 속에 태어나 어릴적부터 스스로 호신술을 익혀야 했으리라, 그리고 몸에 익힌 태전이 마침내 왜적을 무찌르는데 그 익숙한 솜씨가 효력을 나타낸 것이나 아닐지!

아무튼 우리 태권도인은 기인 박장달이를 기억에 깊이 담아 두어야 할 인물임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겠다.

《끝》





독자코너

협회귀중

지난해 뉴—옥에서 개최했던 태권도 참피온쉽과 토나먼트에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수준을 능가하도록 올해도 우리들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니 협회의 협조가 또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올해의 정기 국제태권도 참피온쉽은 10월 3일 뉴—옥의 록펠러에서 개최됩니다.

블랙·벨트경기에 새로이 참가하는 **황후란**이라, **부레인**, **그리이네** 등등입니다.

이들 선수들은 정기 국제태권도대회의 거물급 선수들로서 타이틀을 놓고 겨루게 될 것입니다.

훌륭한 운동정신을 보이기 위해서 대련경기, 형, 격파등으로 구분 1, 2, 3등의 시상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합에 있어서 태권도 기술과 형의 다양성을 공개하기 위한 시도로서 여러 유형까지도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각 유파의 경기규정 가운데 장점을 골라 채택할 계획입니다.

참고될 말씀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워드 리 올림

회장님 앞

쌀쌀해지는 날씨에 별로 없으신지요. 항시 태권도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정출일(일명 찬형)이라고 합니다.

작년 7월에 이곳 독일에 광부로 건너와서 일년이 넘게 근무하다 보니 이제야 처음으로 오는 9월 24일에 이곳 북홀에서 한국 태권도 사범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범대회를 크게 갖게 되었습니다.

남쪽 독일에서도 오래전에 오신 분들이 피나는 수고를 하신 보람으로 태권도 수련생도 많고 태권도에 대한 인식이 아주 좋아 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있는 북쪽 독일에서는 아직도 일본(가라테)가 성행하고 있어 앞으로 제단에는 힘써 노력

하지 않으면 안되리라는 생각입니다.

회장님께서도 앞으로 많이 격려해 주시옵고 지도를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10월 1일부터 도장을 개관하게 되었사오니 참고 자료와 이곳 태권도 발전에도 많은 도움을 주시옵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협회 여러분에게도 안부 전해 주시옵고 내내 건강하옵길 빌면서 두서없는 난필 이만 줄입니다.

1971. 9. 4

정 출 일

답—귀하의 서신 감사합니다.

본 협회는 귀하 뿐만이 아니고 해외에 나가있는 태권도 사범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원하는 참고자료는 본협회가 발간하는 <태권도>지를 무료로 계속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준비중에 있는 태권도에 관한 책자도 곧 보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앞으로 귀하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한국의 얼을 심는 애국의 기사로서 전진하실 것을 믿고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문—저는 독일에 온지 2년쯤 됩니다.

독일에 오게된 동기는 광부(鉱夫)로 돈을 벌기 위해서 입니다.

독일에 와 보니 일본의 <가라테>가 많이 성행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한국 국기인 태권도를 보급시키기로 결심하고 도장을 하나 마련 하였습니다.

이곳 우리나라 공관(公館...大使館)에 가서 협조를 당부하였더니 국제 태권도 연맹형(型)을 가르쳐야 하고 국제 태권도연맹지시를 받으라는 뜻으로 보이지 않는 압력을 넣고 있는데 참으로 어이가 없더군요.

이국 만리(異國萬里) 타국에 와서 무슨 파(派)니 무슨 유(流)니 하며 지원(支援)을 꺼려 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국제연맹이건 대한 태권도협회이건 간에 한국사람이 태권도를 지도한다면 자연 국가의 이름이 떨치게 되는 데 도와주기는 커녕, 방해를 한다면 이는 도시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 귀 협회로서 올바르게 교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971. 9. 독일 일우에서

김 애국생 올림

답—귀하의 서신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귀하가 제시 독일 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도 그러한 좋지 못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협회에서도 관계 기관을 통하여 그러한 일이 없도록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 밝히고 싶은 것은 첫째 대한 태권도 협회란 대한민국의 체육총본산인 대한체육회에 가맹되어 있고,

둘째 국민학교 어린이로부터 중, 고, 대학, 일반 군·경, 그의 단체에서 모두 대한 태권도협회가 제정한 신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각하에서도 1971년 3월 20일 휘호를 써 주신 때 「국기 태권도」라고 써 주셨다는 것을 태권도인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셋째 이상의 사실에도 불구하고 유독 국제 태권도 연맹이란 임의단체(任意団体)가 개인이 고안한 창원류를 가지고 국제화 한다는 것은 좀 어디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국제연맹이란 기관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이 지구상에 그 수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대한 태권도 협회도 앞으로 귀하와 같은 입장에 계신 분들을 돕기 위하여 국제 규모의 단체를 구상 하고 있으며 이 단체 조직이 이루어 지는 대로 해외사범들에게 기술적으로나 또는 물질적으로 무조건 도와 줄 것이 약속 될 것입니다. 귀하의 고충 심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분간만 참고 계신다면 밝은 내일이 있을 것입니다. 전투를 벌입니다.

존경하는 협회장님

중추가절에 협회장님 귀체 평안하시며 백배 제절이 균안하오니 문안드립니다.

협회 부회장님을 비롯 임원 여러분도 모두 안녕하시며 협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지요?

소생은 갑작히 이곳 월남 태권도 교관단장의 중임을 맡게되어, 출국시 진배하움이 도리이면서도 그날 떠나 왔습니다. 결례를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월남의 태권도는 많은 교관들의 노력으로 경장히 발전하였고, 국위선양과 한·월 친선에 다대한 성과를 올려 왔습니다.

1962년 12월 이래 잠시 중단은 되었지만, 벌써 9년이란 연를 쌓았고, 이제 그 결실을 맺고, 또한 한국 태권도의 얼을 깊이 심을 단단한 작업의 뒷처리를 해야 할 중대한 시기가 온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이 임무를 맡게 되었음을 무한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한편 너무도 벅찬 일에 두려움과 책임감에 어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곳에서 그간 우리의 노력은 어느 개인의 공과도 아니고, 오직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군 태권도 전체

의 이름으로 해 왔고, 나아가 한국 태권도의 선양과 한국의 얼을 가리켜 온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의 업무와는 협회나 국제연맹이 모두 직접적으로 깊은 관계에 놓여 있음을 저는 통감하고 있습니다.

비록 군대권(軍跆拳道)의 특수성이 있다 하더라도 역시 사회 태권과 전혀 다른 길을 걸을 수도 없는 것이 실정이지 아니겠습니까?

모처럼 사상 유례없이 많은 인원을 과전해서 월남 전역에 보급하는 기회이오니,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또 더욱 빛나도록 협회장님의 끊임없는 지도와 사랑을 보내 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태권도는 이제 국제무대에서 점차 각광을 받고 있는데, 방법 자체에 모순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과감히 연구·수정·발전해 나아 가지 못함은 매우 슬픈 일 이겠습니다.

특히 해외 사범들은 이 점에 항상 부딪쳐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특정인의 권위나 류(源流)만 가지고는 세계의 정상을 차지할 수 없음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다행히 국군에서도 군장병의 건강관리와 전투에 이바지할 도수공방위주의 기본 훈련 방법을 연구,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연구 발전과 무도인다는 정신적 자세로부터의 참여로서만이, 만인이 공감하고 아껴주는 태권한국의 앞날이 있겠습니다.

협회장님의 폭 넓은신 지도력과 덕망으로 한국 태권의 밝은 앞날을 창조하심에 신의 가호가 있기를 기원하오며, 여활비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1971. 9. 25

주월 한국군 태권도 교관단

단장 김 승 규



「義手라는 것이 그거야!」

각종 태권도 대회

1. 제 6 회 전국 중 고등 및 대학 개인 선수권 대회

주최: 대한 태권도 협회
주관: 전북 태권도 협회
일시: 1971년 7월 10~11 (2일간) 오전 10시
장소: 전주 고등학교 체육관
참가 인원: 215명



각기 모교의 명예를 걸고 출전한 선수들

■ 우승자 명단

《중등부》

체급	1 위	소속	2 위	소속
핀	최영선	군산동중	이수창	경신중
플라이	신기철	인천동산중	홍성무	전주신흥중
밴텀	신형은	"	강종식	예산중
페더	방승호	"	최상명	완주동산중
라이트	박영인	"	권명서	인천동산중
웰터	장석희	"	김상지	이리남중
미들	유동출	"	박호경	예산중
헤비	유길환	"	홍종익	인천동산중

《고등부》

체급	1 위	소속	2 위	소속
핀	서정훈	삼례중고	신근	전주농고
플라이	이철주	인천동산고	김석모	동대문상고
밴텀	김병기	"	강주갑	전라고
페더	이종구	이리남성고	한광열	전주농고
라이트	김용호	만경고	강병원	이리상고
웰터	김철환	동양공고	김관홍	"
미들	배남식	삼례중고		

《대학 중기부》

체급	1 위	소속	2 위	소속
플라이	김광수	우석대		
밴텀	최진수	동아대	전영희	한양대
페더	이은성	명지대	박상권	예산농전
라이트	윤명수	"	박봉찬	명지대
웰터	안기현	우석대	고봉신	"
미들	김정식	명지대		



개회식에서 축하를 하는 내빈

《대학 고기부》

체급	1 위	소속	2 위	소속
핀	김종철	원광대	성재준	우석대
플라이	박재희	동아대	김장환	단국대
밴텀	김수영	"	서태원	한양대
페더	차동철	"	안영빈	명지대
라이트	양승길	단국대	김동국	단국대
웰터	김정태	동아대	김정년	명지대
미들	임인수	원광대		
헤비	서동현	우석대	이원택	원광대



불꽃 튀는 대전



입상자에게 메달을 걸어주는 김 운용 회장

■ 우승자 명단

2. 주한 외국인 태권도 선수권 대회

주최: 대한 태권도 협회

일시: 1971년 9월 26일(일요일) 오전 10시

장소: 한성여고 체육관

참가인원: 45명



요기를 연발하여 박수와 갈채를...

조별	등위	성명	소속
A	1	CORTRAIT	
A	2	SUNG IK PECHT	
A	3	CURTIS KING	
A	3	PETER KONSTANTS	미 공군
B	1	MIKE ROSSON	미 8군
B	2	JAMES S. SENSENIG	미 8군
B	3	BILL MILLER	
B	3	TERRY CARTER	
C	1	FRAGALE LANCE	대구 미 공군
C	2	DOUGLAS BUCKLEW	미 8군
C	3	MONTE HOLLANDER	
C	3	TONT CARDINALLI	
D	1	WILLIAM D. HORN	미 8군
D	2	RICHARD YOUNG	
D	3	DAVID LEE DAY	인천 미사일
D	3	JULIAN E. GONZALES	
여자	1	TERASIA	미 8군학교



영예의 태권도 대상 수상자. 우로부터 공로상의 이 병로, 김 순배, 지도상의 전 일섭, 권 영문 제씨.



태권도 발전에 힘써준 공헌한 영구들. 각각 감사패를 받고 있다.



내고장의 명예를
걸고 시·도별로 입
장한 임원·선수들.



경기 스냅





김 운용회장에게 양 택식
서울특별시 체육 회장으로
부터 전달된 표창대.

KTA President Kim was honored
in a medal by the Hon. Yang Taek Shik,
Mayor and President of the Amateur
Sports Association of Seoul.



김 용우 대한체육회장이 수여한 우승 컵과
메달

Three of trophy-cups and medals (gold, silver
and copper for Taekwondo winning team and winners
in the 52nd annual National Athletic Meet given
by Mr. Kim Yong Woo, President of Korea Amateur
Sports Association.



경기 스냅



한국의 태권

—그 원형을 찾아서—

79살의 고령답지 않게 건강한 송몽의 모습에서 태권의 모습을 여기 되살려 본다.

Living scenes illustrated for old Taekwondo techniques by the old Mr. Song, a man of 79-year-old, who has an appearance of a man looked in the best of health.



〈발등걸이〉 Bal-deung-gul-yi.

Kicking the opponent's tibia with the instep.

〈낙시걸이〉 Nac-si-gul-yi.

Tackling the opponent, ankle by ankle.



〈공실〉 Kum-sil.

To compete each other they move with a pose of Kum-sil.

〈곧은 발질〉 Go-deun-bal-jil.

Kicking straightly the opponent.



REPORTS IN PICTURES OF OLD KOREA TAEKWONDO TECHNIQUES.

〈칼 잡이〉 Kal-jae-bi.

Beating the opponent's neck with the part of hand between the thumb and the forefinger.



〈날치기〉 Nal-chi-ki

Kicking the opponent's face, standing on one's hand.

〈이마 재기〉 Yi-ma-jae-ki.

Beating the forehead with the outside of one's palm gripping the opponent's foot



〈두발 당상〉 Du-bal-dang-sang.

Kicking several times the opponent with who feet jumping

〈무릎 걸이〉 Mu-reup-gul-yi.

Flinging the opponent's knee



当社製品은 모든
堅固



仁川製鉄株式会社

本社：서울特別市 市大門区 西小門洞 58-7

電話 (24) 1221-9

工場：仁川市 松峴洞 1

電話 (3) 0081-90

고국에 잠시...



→ 이대리회 박 선직 사원의 열 무회장과 함께
회장을 방문, 기념 트로피를 받고 있다.
↑ 박리의 이 문열 사원이 회장을 방문,
기념 트로피를 받고 있다.



全国体典을 마치고



회장으로부터 태권도 대상(공로상)을 받는 이 병로 총무이사와 김 순배 경기이사.

Lee Hyong Ro and Kim Soon Bae, G.A. Director and Competition Director of KTA rewarded this year's Taekwondo Prizes by KTA President Kim.

On the evening of October 12, there was a reception by Mr. Kim Un Yong, President of Korea Taekwondo Association, at the O.B. lounge, Mookyo-Dong, Seoul. During that reception, Kim awarded some of prizes for the Taekwondo men, all over the country, whose great contributions to Taekwondo.



리셉션 광경 (10. 12. 체육회관 2층 O.B.라운지에서)

A view of the reception by KTA President Kim.

권 영로(지도상), 김 순배, 이 병로 제씨.

Kwon Young Moon carried off the year's Prize and another medalists, Kim Soon Bae and Lee Hyung Ro.





이런 일

A PICTORIAL REPORT

① 전국체전을 앞둔 대표자 회의

② 제 45회 승단 심사.

③ 응심자들

④ 어린이 응심자들

⑤ 전북 전주에서 열린 제 6회 전국
중·고·대 개인선수권 대회

⑥ 제 45회 승단심사 광경.

지관 일

OF CURRENT EVENTS



③



④



②



⑤



⑥

- ① 주한 외국인 대회.
- ② 월남 선수단과 페넌트 교환.
- ③ 외국인 대회, 우승자에 대한 상장 수여.
- ④ 월남 선수단 방한경기 장면.
- ⑤ 월남선수단, 체육회 방문.
- ⑥ 터어키의 조 수세 사범도장의